

제44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16년 7월 15일(금요일)

장소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동관 223호, 107호

주제 : 한말연구학회 30년,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주최 : 한말연구학회

개회식(제1 발표장)		사회: 최영미(경동대)	
10:10 ~ 10:25	등록 및 접수		
10:25 ~ 10:55	개회사 : 조일규(한말연구학회 회장) 축사 : 김종택(한글학회 이사장) 기념사 : 김승곤(한말연구학회 초대 회장)		
제1부	<제1 분과> 자유발표	<제2 분과> 자유발표	
	제1 발표장 사회: 전정미(상명대)	제2 발표장 사회: 김정호(춘천교대)	
11:00 ~ 11:30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사람 중심 삼조화 문자 관의 의미 김슬옹(인하대) 이진경(연세대)	다층적 부사의 사용 양상 연구 조민정(연세대) 황화상(서강대)	
11:30 ~ 12:00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에 대하여 오재혁(건국대) 이동석(교원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현황 및 분석 -한국어 교재의 관계절 출현을 중심으로- 박철웅(한국외대) 정대현(협성대)	
점심 : 12:00~13:10			
제2부	창립 30돌 기념 특강	제1 발표장	사회: 김홍범(한남대)
13:10 ~ 14:00	언어 연구의 두 관점,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권재일(서울대)		
휴식 : 14:00~14:15			
제3부	창립 30돌 기념 학회사	제1 발표장	사회: 이만식(경동대)
14:15 ~ 14:20	사진으로 보는 한말연구학회		
14:20 ~ 14:50	한말연구학회의 정신과 걸어온 길 조오현(건국대 명예교수)		
	창립 30돌 기념 발표	제1 발표장	사회: 최홍열(강원대)
14:50 ~ 15:30	남북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과 발음법에 대한 비교 연구 이관규(고려대)	토론: 최용기(국립국어원)	
15:30 ~ 16:10	중세국어 객체높임의 통어적 결합 제약 연구 허원욱(건국대)	토론: 최대희(제주대)	
휴식 : 16:10~16:20			
	주제 토론 : 한말연구학회 30년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제1 발표장	사회: 허재영(단국대)
16:20 ~ 16:30	[한말연구]에 실린 논문 성향 분석 윤혜영(한라대)		
16:30 ~ 16:40	국어학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박동근(대진대)		
16:40 ~ 16:50	국어교육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신호철(청주대)		
16:50 ~ 17:00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김용경(경동대)		
17:00 ~ 17:10	일반언어학적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조용준(건국대)		
17:10 ~ 17:30	종합 토론		
논문우수상 시상			
폐회 및 총회			

한 말 연 구 학 회

차 례

【제1부 제1 분과 자유발표】

김슬옹(인하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사람 중심 삼조화 문자관의 의미.....	1
이전경(연세대)	토론	13
오재혁(건국대)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에 대하여.....	15
이동석(교원대)	토론	24

【제1부 제2 분과 자유발표】

조민정(연세대)	다층적 부사의 사용 양상 연구.....	25
황화상(서강대)	토론	41
박철웅(한국외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현황 및 분석 -한국어 교재의 관계 절 출현을 중심으로-.....	42
정대현(협성대)	토론	52

【제2부 30주년 기념 특강】

권재일(서울대)	언어 연구의 두 관점,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53
----------	------------------------------	----

【제3부 30주년 학회사】

조오현(건국대)	한말연구학회의 정신과 걸어온 길.....	64
----------	------------------------	----

【제3부 30주년 기념 발표】

이관규(고려대)	남북한 어문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과 발음법에 대한 비교 연구.....	77
최용기(국립국어원)	토론	93
허원욱(건국대)	중세국어 객체높임의 통어적 결합 제약 연구.....	95
최대희(제주대)	토론	104

【제3부 주제 토론 : 한말연구학회 30년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윤혜영(한라대)	『한말연구』에 실린 논문 성향 분석.....	106
박동근(대진대)	국어학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113
신호철(청주대)	국어교육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124
김용경(경동대)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136
조용준(건국대)	일반언어학적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146

제1부 <제1 분과 자유발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사람 중심 삼조화 문자관의 의미

김슬옹(인하대)

< 차례 >

1. 머리말
2. 사람(人)에 대한 분석과 ‘|’ 모음 설정
3. 맺음말

1. 머리말

올해는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해례본’이라 부름) 간행된 지 570돌이 되는 해이다. 해례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자가 김슬옹(2015)에서 집약했듯이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¹⁾ 그중 핵심 분야는 제자 원리에 대한 언어학과 음양오행 철학 연구로 이 분야도 심도 높게 논의되어 왔다. 훈민정음의 언어학 차원에서의 과학성은 이제 전세계 전문가들이 두루 인정하거나 평가하고 있지만 음양오행 철학에 대한 평가는 약한 편이다.

훈민정음에 적용된 음양오행 철학에 대한 연구는 이정호(1975), 이성구(1985), 문효근(1993), 반재원·허정운(2007) 등에서 집중 논의해 온 이래, 해례본에 그대로 드러난 사실 분석 연구부터 해례본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음양오행까지 밝힌 김양진(2015), 니에 바오메이(聶寶梅)(2016)의 최근 연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발전해 왔다.²⁾

그렇다면 이제는 훈민정음에 적용된 음양오행 철학의 가치론적 의미는 무엇인가가 이번 발표의 핵심 문제 의식이다. 훈민정음이 단지 음양오행 철학을 적용했다고 한다면 훈민정음 창제 정신이나 문자의 가치론적 의미는 음양오행 철학에 귀결되는 환원론적 논리에 빠지게 된다. 결국 쉬운 문자를 통해 지식과 정보 공유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의 창제 취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1) 필자는 김슬옹(2008)에서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1916)와 세종의 <훈민정음> 해례본(1446)의 비교를 통해 세종을 언어학자로 조명한 바 있다. 외국 학자가 언어학 차원에서 세종과 훈민정음을 평가한 것으로는 Margaret Thomas(2011)이 두드러진다. 토마스는 세종을 세계 50대 언어나 언어학 사상가로 뽑아 세종을 명실상부한 언어학자 반열에 올려 놓았다. 당연한 평가이지만 해례본이 나온 지 70여년이 지난 뒤의 평가이니 매우 늦은 편이다. 다음은 토마스의 평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세종의 결정적인 업적은 한글이라고 알려진 한국문자의 발명이었다. 한글은 전 세계의 문자역사에서 기적이었고,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수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철자법이었다(Ramsey 199 2:50).-가운데 줄임-한글은 아주 적절한 언어 디자인이었다. 한국 언어사회의 명확한 가치가 있었으며 문자시스템 본질에 대해 유럽중심의 과정을 차단함으로써 언어의 일반적인 연구에 기여하였다.”

2) 앞선 연구는 김슬옹 엮음(2015) 주제별 논저 목록 참조.

그렇다고 문자 과학이나 음운학, 문자학 등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 원리인 음양오행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훈민정음은 기본적으로 음양오행 논리에 의해 창제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 현대 언어과학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과학적인 문자가 되었다.

흔히들 발음기관을 상형한 자음의 제자 원리는 과학이고 우주의 3요소인 천지인을 상형한 모음은 비과학이라고 얘기한다. 문자에 동양철학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음과 모음의 상형 원리와 전략을 달리한 것 자체가 과학이며 모음의 경우는 발음을 규정하는 입모양, 혀, 목구멍의 상태 등의 복합 요인에 의해 작용하므로 특정 발음 기관을 상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과학이다.

훈민정음 28자 전체 짜임새 측면에서 본다면 훈민정음의 용이성과 과학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음의 경우 가획 원리이며 모음의 경우는 간결한 도형으로 다양한 모음을 완벽하게 설정했다는 데 있다. 곧 천지인 모음소 세 자 설정과 이 세자를 바탕으로 동양의 상수학과 하도 원리에 맞게 사방으로 합성한 원리에 있다. 이러한 모음 과학의 핵심은 아래아(·)와 ‘ㅣ’ 모음 설정에 있다. 특히 ‘ㅣ’모음 설정에 대한 음운학적·철학적 의미 부여야말로 훈민정음 제자 원리인 음양오행으로 불리는 자연철학의 핵이고 꽃이다.

따라서 해례본의 ‘ㅣ’와 ‘人’에 대한 언어학과 철학의 통합 분석을 통해 훈민정음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³⁾

2. 사람(人)에 대한 분석과 ‘ㅣ’ 모음 설정

해례본에서 ‘人’은 크게 네 가지 의미나 상징으로 쓰였다. 이러한 네 가지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훈민정음에 담긴 원리나 취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 1) 소통 주체로서의 의미
- 2) 기본 문자소로서의 의미: 천지인 삼재로서의 의미
- 3) 초중종 삼조화 사상으로서의 의미
- 4) ‘겸호인’으로서의 의미

1) 소통 주체로서의 의미

세종이 직접 저술한 ‘정음편’의 세종 서문에 의하면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동기는 ‘우민’의 문자 표현 문제 해결이다.⁴⁾ 한문으로 된 문서로는 만백성을 위한 지식과 정보 전달과 교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민정음 문자 반포의 최종 목표에 대한 기술에서는 “予, 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정음1ㄱ:5-6](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

3) 통합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맥락’ 중심으로 김슬옹(2012)에서 체계화한 바 있다.

4) 일부에서 주장하는 한자음 표기 목적설, 왕조 이데올로기 보급 목적설 등은 다양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주된 목적은 아니다. 이런 목적설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해례본에 나타난 훈민정음 창제, 반포 취지를 폄하하는 논리가 된다.

고자 할 따름이니라.”라고 하여 ‘人’을 거듭 써서 우민만이 아닌 모든 백성들을 위한 문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관점은 정인지서에서도 ”드디어 임금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하시었다.(遂命詳加解釋, 以喻諸人. [정음해례28 ㄱ:8] [정음해례28 ㄴ:1])“에서 ‘人人’을 ‘諸人(모든 사람)’으로 표현하여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이 서문 앞 부분의 ‘流通’이란 말이다. 말(우리말)과 글(한문)이 유통이 안 되니 책을 통한 지식과 정보 유통을 할수 없고 따라서 사람마다 유통 곧 소통이 안 되는 모순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쉬운 문자로 편안하게 살게 하려는 민본주의 문자관을 아주 잘 드러낸 표현이다.

모든 문자는 표현과 소통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오랜 세월 시대적 환경과 한계 속에서 발전되어 오다 보니 누구나 쉽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상을 합리적으로 담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문자 모순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설계되다 보니 이상을 합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고 긍정적 의미와 취지를 담을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 따라 해례본의 설명과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며 해례본과 다른 해석이나 확대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문자의 이상이 담긴 문자가 탄생한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문자에 대한 설명서이자 취지를 담은 학술서가 집필되고 간행되고 전해진 것도 그에 못지않은 기적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해설서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나누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종 서문에서 밝힌 사람 중심의 문자관이 음양오행 철학과 실제 음운학적 문자 설계로까지 이어졌다

2) 기본 문자소로서의 의미: 천지인 삼재로서의 의미

중성의 기본 문자소(상형 기본자)는 ‘·, 一, |’ 세 글자를 의미한다. 이를 해례본에서 천지인 삼재라고 표현하였다. 이 글에서 집중분석하고자 하는 ‘|’는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形之立, 象乎人也. [정음해례5 ㄱ:1-2]). ‘|’의 상징 의미인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지인 삼재’ 전반에 걸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해례본 설명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⁵⁾ 이제 28자로 이루어진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애초부터 문자만을 위해 지혜를 굴리고 힘들여 찾은 것이 아니고, 단지 말 소리(성음)의 이치를 끝까지 연구하다 보니 만들어낸 것이다.⁶⁾ 정음 창제는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요, 자연의 이치에 의한 것이다.⁷⁾ 천지 자연의 이치가 아주 많으며, 사람의 힘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하늘이 주신 것이지 슬기와 기교로 창제한 것이 아니다.⁸⁾ 물론 정음 28자는 세종이 직접 만들었지만 세종은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⁹⁾

정음이 창제되어 천지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천지인 삼재와 음양 이기의 어울림을 두

5)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정음해례26 ㄴ:4-5]

6)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정음해례1 ㄱ:7-8]

7)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정음해례29 ㄱ:3-4]

8)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정음해례1 ㄱ:7-8]

正音之字只廿八 探蹟錯綜窮深幾 指遠言近牖民易 天授何曾智巧爲 [정음해례14 ㄴ:1-4]

9)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정음해례27 ㄴ:4-6]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정음해례29 ㄱ:4-5]

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¹⁰⁾ 그러다 보니 천지자연의 혼령과 신령스런 정령과도 통할 수 있는 문자가 되었다.¹¹⁾ 스물여덟 자로써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¹²⁾ 그래서 스승 없이도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고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 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¹³⁾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익혀 하고자 하는 표현을 맘껏 할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다.¹⁴⁾

우리 겨레가 오랜 역사를 이뤄왔지만 이제 천지인 음양의 이치를 담은 정음 28자로 인해 비로소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¹⁵⁾ 이상이 해례본의 전체 내용의 핵심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세종은 자연의 소리 연구를 위해 천문과 음악을 연구하여 가장 이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말소리의 과학 연구까지 이룰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천지자연지문도

이러한 천지인 삼재 사상을 바탕으로 중성의 상형 기본자 세 자에 대해 “중성은 하늘, 땅과 사람에서 본뜬 것을 취하니, 천지인 삼재의 이치가 갖추어졌다.¹⁶⁾”고 했다. 그러므로 “천지인 삼재가 만물의 우선이 되고 하늘이 천지인 삼재의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이 •—| 석 자가 여덟 소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했고 세 자 가운데서는 •자가 으뜸으로 보았다.¹⁷⁾

실제 중성자 도형 원리로 보면 ‘•’자가 으뜸이 맞다. 그러나 기능 부담량으로 보면 가장 편하게 발음 수 있는 ‘|’가 으뜸이 된다. “|가 깊고, 얇고, 닫히고, 열리는 소리에 두루 능히 서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소리가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얇아서 입을 여는 데 편하기 때문이다.¹⁸⁾”라고 한데서 잘 드러난다.

10) 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 [정음해례6ㄱ:8] [정음해례6ㄴ:1]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정음해례27ㄴ:8] [정음해례28ㄱ:1]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정음해례26ㄴ:5-7]

11) 理既不二, 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 [정음해례1ㄴ:1-2]

12)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정음해례28ㄱ:6-7]

13) 庶使觀者不師而自悟. [정음해례28ㄴ:7]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정음해례28ㄱ:2-3]

14)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정음1ㄱ:3-4]
 予, 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정음1ㄱ:5-6]

15)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蓋有待於今日也哉. [정음해례29ㄱ: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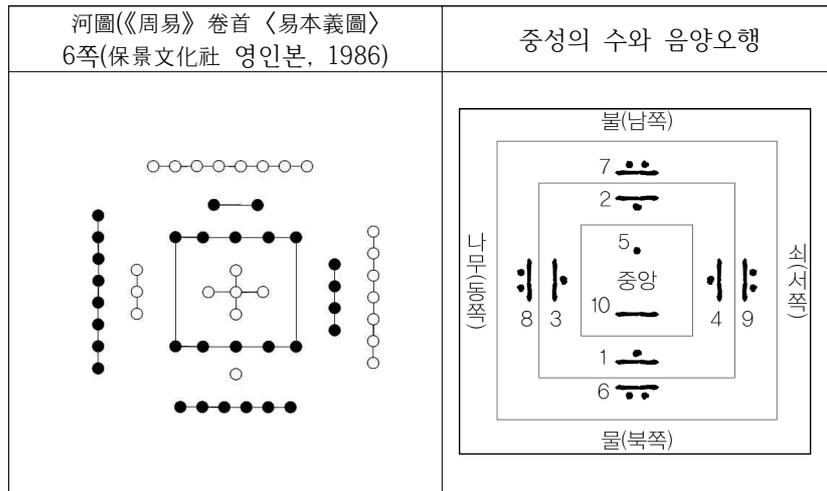
16) 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 [정음해례6ㄱ:8] [정음해례6ㄴ:1]

17) 然三才爲萬物之先, 而天又爲三才之始, 猶 •—| 三字爲八聲之首, 而 • 又爲三字之冠也. [정음해례6ㄴ: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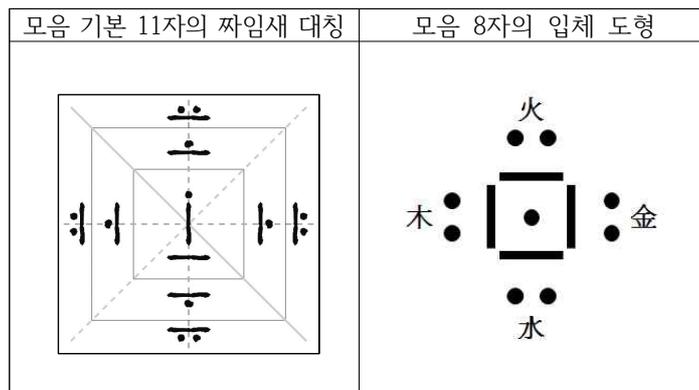
이러한 삼재로서의 세 모음의 가치와 의미는 다른 모음의 바탕이 된다는 데 있다. 곧 삼재의 합성을 통해 8자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결과가 매우 간결하고 과학적이며 실제 모음의 실체를 온전하게 드러내 주었다는 점이다.

여덟 자는 두루 밝혀졌듯이 <그림 2>과 같은 하도 원리를 따른 것으로 삼재의 도형 차원의 합리적 설정 때문에 짜임새 대칭과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합리적 배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동양의 철학과 상수학을 도형 과학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낸 것이다.

<표 1> 하도와 중성의 수와 음양오행



<표 2> 모음 기본자의 대칭 구조와 모음 8자의 입체 도형



이때 모음 8자의 입체 도형에서 보듯 삼재에 의해 가장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8자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형 기본자 세 자와 8자에 1-10의 수가 부여되었다. “ | 만 홀로 자리와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이면 무극의 참과 음양과 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어울리고 영기어서, 진실로 자리를 정하고 수를 이루는 것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獨無位數者, 蓋以人則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정음해례7㉓:6-8]).“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수 적용은 <표 2>에서 보듯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이다. 상형 기본자의 ‘·(양)’는 5의 중앙수를 ‘—(음)’은 10의 중앙수를 ‘|’는 무극수를 부여하여 상형 기본자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고 단모음 기본자는 생수 ‘1,2,3,4’를 이중모음 기본자는 ‘6,7,8,9’를 부여하고 홀수(양성모

18) | 於深淺闔關之聲, 並能相隨者, 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 [정음해례16㉓: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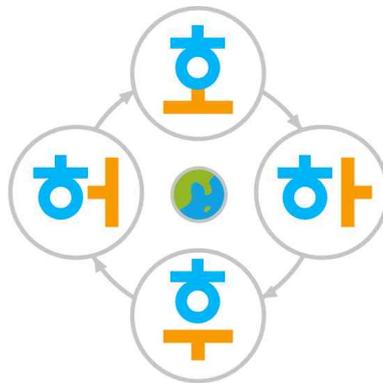
음), 짝수(음성모음)의 짝을 이루게 했다. 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섬세하게 발달되어 있는 모음의 정확한 실체를 설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전략이 있었기에 <표 3>과 같은 무려 29자나 되는 중성자가 복잡하지 않게 생성되었다.

<표 3> 기본 11자에 부여된 상수

갈래		하늘(양성모음)			땅(음성모음)			중성
생(生)	중성자	ㄴ	ㄷ	·	ㅌ	ㄱ		자리가 없는 수
	생수	1	3	5	2	4		
	오행	수	목	토(생토)	화	금		
성(成)	중성자	ㅇ	ㅈ		ㅊ	ㅋ	ㅡ	
	성수	7	9		6	8	10	
	오행	화	금		수	목	토(성토)	

<표 4> 모음자 구성도

기본자			운용			
원형 문자	초출자	재출자	두 글자 합친 글자	ㅣ와 한 글자 어울리기	ㅣ와 두 글자 어울리기	
양성	·	· ㅌ	ㅌ ㅌ	ㅣ ㅌ ㅌ ㅌ ㅌ	ㅌ ㅌ	
음성	ㅡ	ㅡ ㅌ	ㅌ ㅌ	ㅣ ㅌ ㅌ ㅌ ㅌ	ㅌ ㅌ	
중성	ㅣ					
3자		4자	4자	4자	10자	4자
11자			18자			
29자						



<그림 2> 자음자와 모음자 결합의 위상수학 원리

모음자의 합리적 배열과 간결한 도형 고안은 <그림 2>와 같이 모음이 점이 짧은 막대로 변형된

현대 언어에서조차 자음과의 조화로운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ㅎ’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ㄴ’을 90도씩 틀면 ‘호하후허’가 생성된다. 모음조화가 발달되어 있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우리말의 특성을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로 생성해낸 것이다. 이렇게 최소의 글자로 최소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수학에서는 ‘위상수학(topology)’라고 한다.

3) 초중종 삼조화로서의 의미

임용기(2016)를 비롯하여 기존 논저에서 거듭 강조되었듯이 ‘초성-중성-종성’ 삼분법을 전제로 문자를 창제된 것이 세종의 탁견이었고 훈민정음 문자 기능의 탁월함이었다. 삼태극으로 상징되는 삼조화 사상과 맞물려 이에 대한 철학적 의미 부여도 매우 치밀하게 적용되었다. 제자해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머무는 것은 땅으로 전통적인 양과 음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움직임과 멈춤을 겸한 것은 사람으로 보아¹⁹⁾ 양성과 음성 외에 ‘중성(中性)’을 설정한 것이 삼조화의 핵심이다. 사실 해례본에는 ‘中性’이란 말이 단 한군데도 안 나온다. 사람 또는 ‘ㅣ’가 하늘(양)과 땅(음)을 겸한다고 나오므로 현대 언어학자들이 ‘중성(中性)’이란 말을 붙인 것이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특별한 대안 용어가 없으므로 그대로 쓰기로 한다.

중성(모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성은 초성을 생기게 하고 이어서, 종성을 이루어지게 하여 붙게 하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의 일이라고 보았다.²⁰⁾ 대개 오행이 하늘에서는 신(우주)의 운행이며, 땅에서는 바탕의 이룸이다. 사람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하늘의 뜻대로 살되 땅에서 그 뜻을 이뤄야 한다. 곧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짚·예의·믿음·정의·슬기”와 같은 신(작은 우주)의 운행을 따라가는 것이다. 또한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의 땅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는 바탕의 이룸이다.²¹⁾ 사람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하늘의 뜻대로 ‘어짚·예의·믿음·정의·슬기’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과 같은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천지가 만물을 낳고 이룩해도, 그것이 쓸모 있게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기 때문이다.²²⁾ 또한 운을 이루는 핵심은 중성의 작용에 있으니 사람이 능히 천지의 마땅함을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²³⁾

세종은 모음(중성)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말의 특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모음의 기능에 심도 높은 철학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음절 단위에서는 당연히 중성이 중심 역할을 한다. “음절 소리마다 제각기 중성이 있으니, 모름지기 중성에서 열림과 닫힘을 찾으라.”²⁴⁾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에 근거한다.

이상의 논의를 해례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3>과 같다.

19) 動者, 天也. 靜者, 地也. [정음해례8ㄱ:4-5]

兼乎動靜者, 人也. [정음해례8ㄱ: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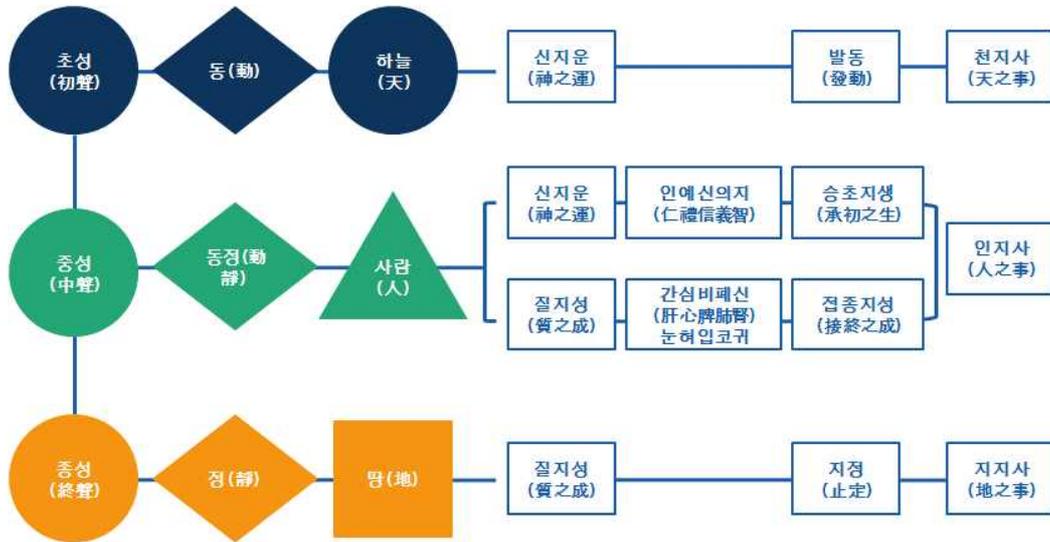
20) 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 [정음해례8ㄴ:2-3]

21) 蓋五行在天則神之運也, 在地則質之成也, 在人則仁禮信義智神之運也, 肝心脾肺腎質之成也. [정음해례8ㄱ:6-8]

22) 亦猶天地生成萬物, 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 [정음해례8ㄴ:4-6]

23) 韻成要在中聲用 人能輔相天地宜 [정음해례14ㄱ:3-4]

24) 母字之音各有中 須就中聲尋關闔 [정음해례17ㄱ:2-3]



<그림 3> 초중종 음절 짜임새에서의 중성 자리매김

음절에서 모음은 성절음의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핵심 단위가 된다. 세종은 이런 모음의 특성 측면에서는 모음이 주도적인 구실을 하므로 ‘하늘’로 보았다. 그래서 중성이 깊고 얇고 오므라지고 퍼짐으로써 앞에서 소리 나고, 초성이 오음의 맑고 흐림으로써 뒤에서 화답하여 초성이 되고 다시 중성이 된다고 하였다.²⁵⁾ 이때의 중성은 하늘로 보고 초성과 중성은 모두 땅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말 모음조화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에는 음양이 중요하므로 “중성의 음양은 하늘의 이치다(陰陽, 天道也. [정음해례7ㄴ:2]).”라고 보았고 초성은 ‘강유(剛柔)’ 특성을 중요하게 여겨 “초성의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은 땅의 이치이다(剛柔, 地道也. [정음해례7ㄴ:3]).”라고 하였다.

다시 세밀하게 보면 중성 열 한 자를 통합적으로 보면 “하나가 깊으면 하나는 얇고, 하나가 오므리면 하나가 벌리니, 이런즉 음양이 나뉘고, 오행의 기운이 갖추어지니 하늘의 작용”이라는 것이다.²⁶⁾ 이에 비해 “초성은 어떤 것은 비고, 어떤 것은 튼실하고, 어떤 것은 날리고, 어떤 것은 막히고 어떤 것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초성이야말로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드러나서 오행의 바탕을 이룸이니 땅의 공”으로 보았다.²⁷⁾ 결국 중성이 깊고 얇고 오므라지고 퍼짐으로써 앞에서 소리 나고, 초성이 오음의 맑고 흐림으로써 뒤에서 화답하여 초성이 되고 다시 중성이 된다.²⁸⁾ 이상의 내용을 보기 좋게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이렇게 음절 단위로 음양을 보느냐 ‘초-중-종’ 결합순으로 보느냐 음양이 달라진다. 음절 단위로 보면 모음은 양성이요 결합순으로 보면 중성(中性)이다. 그래서 제자해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울려 이루어진 글자를 드러낼 것 같으면, 또한 움직이고 멈추어 있음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이 서로 바뀌는 뜻이 있다.”라고 한 것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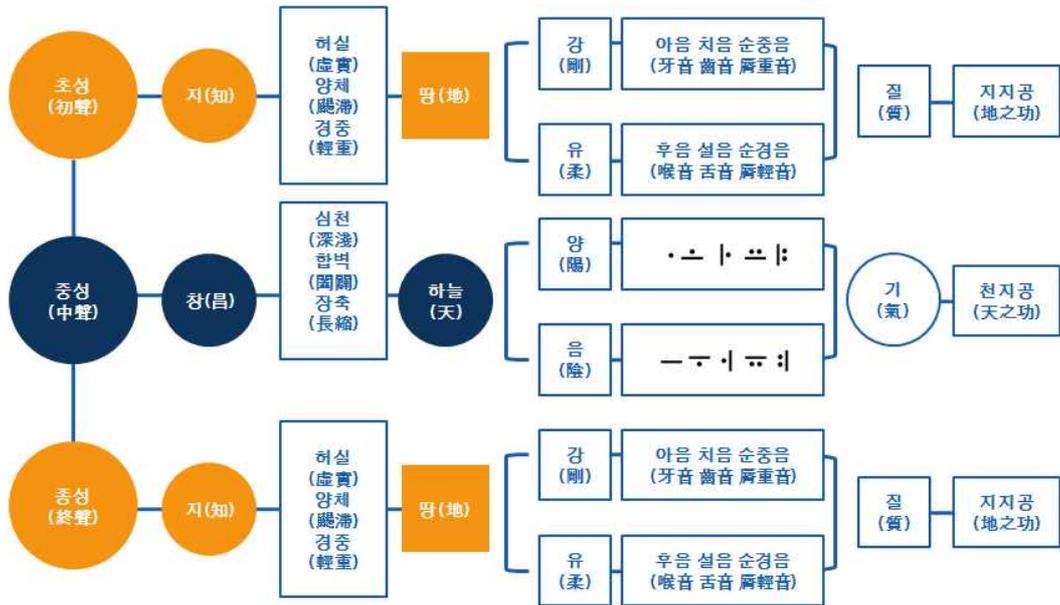
25) 中聲以深淺闔唱之於前, 初聲以五音清濁之和之於後, 而爲初亦爲終. [정음해례7ㄴ:7-8] [정음해례8ㄱ:1]

26) 中聲者, 一深一淺一闔一關, 是則陰陽分而五行之氣具焉, 天之用也. [정음해례7ㄴ:3-5]

27) 初聲者, 或虛或實或颯或滯或重若輕, 是則剛柔著而五行之質成焉, 地之功也. [정음해례7ㄴ:5-7]

28) 中聲以深淺闔唱之於前, 初聲以五音清濁之和之於後, 而爲初亦爲終. [정음해례7ㄴ:7-8] [정음해례8ㄱ:1]

29)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정음해례8ㄱ:3-4]



<그림 4> 음절 단위에서의 중성과 초·종성 어울림

이러한 문자관에 담긴 세종의 사상을 삼조화 문자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초성, 중성, 종성이 또렷하게 분별되면서 두루 어울리는 우리말의 발음 특성에 따라 중성은 사람으로 하늘인 초성과 땅인 종성을 이어주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리듯 말을 이룰 수 있다. 음절의 핵인 중성을 중심으로 보면 중성은 하늘이요 초성과 종성은 땅이 된다. 모음의 제자 원리로 보면 천지인 세 자에 의해 모음이 조화롭게 설정되는 삼재가 된다. 결국 음운학적 분석과 철학적 의미를 철저히 결합시켜 새 문자의 논리적 정당성과 우수성을 철저히 논증했다. 성리학의 천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면서도 전통적인 도교, 유교 등에 두루 녹아 있는 삼조화 사상을 훈민정음을 통해 구현했고 훈민정음으로 그런 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4) ‘起於 丨’, ‘검호인[丨]’으로서의 의미

사람을 상징하는 ‘丨’는 음운학적으로 이중모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고려대 국어대사전의 설명을 모아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모음 기본 발음법(고려대 국어대사전/다음 사전)

모음	발음법
ㅑ	혀와 입 모양을 ‘丨’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ㅛ’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윗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 모음이다.
ㅓ	혀와 입 모양을 ‘丨’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ㅕ’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윗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 모음이다.
ㅗ	혀와 입 모양을 ‘丨’ 소리를 낼 때와 같이 하고 있다가 ‘ㅜ’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윗기면서 숨을 내쉬어 내는 이중 모음이다.

에 걸맞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단모음에서도 “ㅏ는 •와 같으나 입을 벌리며 그 모양은 ㅣ와 •가 서로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 뜻을 취한 것이다.”⁴⁰⁾라고 하고 “ㅓ는 ㅡ와 같지만 입을 벌리니 그 모양은 •와 ㅣ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역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뜻을 취한 것이다.”⁴¹⁾라고 하여 사람 중심의 능동성의 의미를 부여했다.

4. 맺음말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반포의 핵심 사상은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는 민본주의 사상이며 이를 구체화한 문자 사상은 삼태극, 천지인으로 상징되는 삼조화 사상이다. 이를 위해 동양의 자연주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음양오행 사상을 철저히 훈민정음에 구현하였다. 현대 학문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종은 사람 중심의 민본주의 정치 철학과 언어과학과 삼조화 철학 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영국의 역사가 존맨의 말처럼 “모든 문자의 꿈”을 이뤄냈다.

이는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신분제 사회에서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본 길을 연 것이다. 사람은 지식과 정보와 교육의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쉽고도 과학적인 문자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세종의 문자관 또는 문자 사상 규명은 그래서 중요하다.

세종의 핵심 문자관은 세종 서문과 신하들과 함께 저술한 정음해례에 녹아 있다. 특히 사람을 가리키는 ‘人’과 사람을 상징한 ‘亅’와 관련된 기술에 문자관이 잘 드러나 있어 이를 집중 분석했다. 곧 사람답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천지인 삼조화의 주체로서 사람을 설정하였고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亅’는 간결하고도 과학적인 중성 체계를 만들어내는 핵심 구실을 하였다.

세종은 자음의 가획 원리와 모음의 상징 기본자 설정과 합성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삼조화가 잘 드러나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조화롭게 구현되는 정음 28자 발명에 성공하였다.

40) ㅏ與•同而口張，其形則ㅣ與•合而成，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정음해례5 ㄱ:4-6]

41) ㅓ與ㅡ同而口張，其形則•與ㅣ合而成，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정음해례5 ㄱ:8] [정음해례5 ㄴ:1-3]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편(2008),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생각의나무.
- 간송미술문화재단 편(2015), 『訓民正音』. 교보문고.
- 강신항(1974.1995 : 증보판), 『譯註 訓民正音』(문고본). 신구문화사.
- 김만태(2012),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사상 - 음양오행론과 삼재론을 중심으로 -. <철학사상> 45.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55-94쪽.
- 김슬옹 역음(2015), 『훈민정음(언문·한글) 논저·자료 문헌 목록』. 역락.
- 김슬옹(2008), 세종과 소쉬르의 통합언어학적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6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23쪽.
- 김슬옹(20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404-439쪽.
- 김슬옹(2012), 『맥락으로 통합되는 국어교육의 길찾기』. 동국대출판부.
- 김슬옹(2013), 『한글 우수성과 한글 세계화』. Hanguipark.
- 김슬옹(2014), 세종의 '정음 문자관'의 맥락 연구. 『한말연구』 35. 한말연구학회. 5-45쪽.
- 김양진(2015), 일음양오행(一陰陽五行)과 훈민정음(訓民正音). 『국어학』 74. 국어학회. 57-102쪽.
- 김주원(2013), 『훈민정음』. 민음사.
- 니에 바오메이(聶寶梅)(2016), 훈민정음 초성의 배열과 음양오행 원리. 『한글』 312호. 한글학회. 67-94쪽.
- 문효근(1993), 훈민정음 제자 원리. 『세종학 연구』 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282쪽.
- 문효근(2015), 『훈민정음 제자원리』. 경진.
- 반재원·허정윤(2007), 『한글 창제 원리와 옛글자 살려 쓰기 : 한글 세계 공용화를 위한 선결 과제』. 역락.
- 백두현(2012),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어문론총』 57. 한국문학언어학회. 115-156쪽.
- 이성구(1985), 『訓民正音 研究』. 동문사.
- 이윤숙·이달원(2010), 음양오행 원리로 만든 한자와 한글. 『왜 周易이고 孔子인가?』. 경연학당. 21-47쪽.
- 이정호(1975), 『訓民正音의 構造原理 그 易學的 研究』. 아세아문화사
- 이현희 외(2014), 『訓民正音』의 한 이해. 역락.
- 임용기(2016), <훈민정음>의 우리말 음절짜임새와 초성·중성·종성의 자질체계. 『2016년 훈민정음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훈민정음 연구의 깊이와 외연』. 훈민정음학회·국립한글박물관. 3-32쪽.
- 정우영(2012), <訓民正音> 해례본의 번역을 위한 기본적 이해.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봄학술대회자료집』.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 최현배(1942.1982 : 고친판), 『한글갈』. 정음문화사.
- Margaret Thomas(2011), King Sejong the Great(1397-1450). Fifty Key Thinker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49-55.

▣ 토 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音’과 ‘聲’의 쓰임새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이전경(연세대)

한말연구학회의 30돌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온 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역량이 이 논문의 토론을 감당할만한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훈민정음 연구자로서 그간 필요성을 느껴왔던 훈민정음 제작의 바탕철학에 대한 연구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논문의 요지와 총평

이 논문의 요지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 이해되어 왔던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역철학의 가치를 현대적 견지에서 고구해본 것입니다. 특히 음양오행사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제자원리 중 ‘ㅣ’모음의 처리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삼조화 문자관을 추론해 낸 것입니다. 발표자는 삼조화문자관이 세종의 애민사상과 연결된 것으로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에 사용된 ‘사람(人)’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사람(人)’의 의미를 다음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1) 소통 주체로서의 의미
- 2) 기본 문자소로서의 의미: 천지인 삼재로서의 의미
- 3) 초중종 삼조화 사상으로서의 의미
- 4) ‘겸호인’으로서의 의미

그간 많은 국어학자들이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른 훈민정음 제자원리의 해석에 뛰어들어 지금도 차근차근 업적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손도 대지 못한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역학에 지식이 일천한 연구자나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너무도 설명부족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느낍니다. 발표자로서는 너무 분명하고 확신이 든 점이라 생각됩니다만 듣는이에게는 결론을 앞서 제시한 감이 듭니다.

질의 내용

1) ‘사람(人)’의 의미로 제시한 네 가지 분석은 차원이 다른 내용을 하나로 묶은 감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본문에 사용된 ‘사람(人)’ 자체의 의미 분석이 아니라 세종의 애민사상이 훈민정음 본문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추정해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통의 주체라는 점은 사람

과 사람의 소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의미와 나머지 역철학적 원리의 한 재료인 사람(증 ‘ㅣ’모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ㅣ’모음=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이 논의를 풀어나가고 있어 논지의 전개에 무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한 절 정도 사람과 ‘ㅣ’모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삼조화 사상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음양오행설과는 어떤 관련을 맺는지 궁금합니다.

3) 지적할 점

2-3 앞 쪽: 다음 인용문에 대한 더 진전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부분과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성(中聲)이란 용어가 한자 없이 사용되어 이해에 혼란을 줍니다.

삼태극으로 상징되는 삼조화 사상과 맞물려 이에 대한 철학적 의미 부여도 매우 치밀하게 적용되었다. 제자해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머무는 것은 땅으로 전통적인 양과 음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움직임과 멈춤을 겸한 것은 사람으로 보아¹⁾ 양성과 음성 외에 ‘중성(中性)’을 설정한 것이 삼조화의 핵심이다. 사실 해례본에는 ‘中性’이란 말이 단 한군데도 안 나온다. 사람 또는 ‘ㅣ’가 하늘(양)과 땅(음)을 겸한다고 나오므로 현대 언어학자들이 ‘중성(中性)’이란 말을 붙인 것이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특별한 대안 용어가 없으므로 그대로 쓰기로 한다.

2-4 제목

4) ‘起於ㅣ’, ‘겸호인[ㅣ]’으로서의 의미=> ‘起於ㅣ’, ‘兼乎人[ㅣ]’

1) 動者, 天也. 靜者, 地也. [정음해례87:4-5]
兼乎動靜者, 人也. [정음해례87:5]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에 대하여

오재혁(건국대)

< 차례 >

- 1. 서론
- 2. 연구 방법
- 3. 연구 결과
- 4. 논의
- 5. 결론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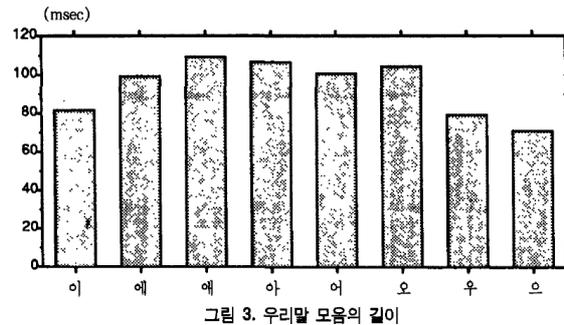
고모음과 저모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음성학적 길이를 갖고 있다. 조음할 때의 개구도 차이에 의한 생리적인 이유 때문인데(House & Fairbanks 1953, Peter & Lehiste 1960, Sharf 1962 등), 보편적으로 고모음이 저모음보다 지속 시간의 길이가 더 짧다고 보고되어 있다.¹⁾ 이때 생리적인 차이에 의해 갖게 되는 모음의 본질적인 길이, 이를 내재적 길이(intrinsic duration)라고 한다. 이 연구는 국어 단모음이 갖는 본질적인 음성학적 길이, 즉 내재적 길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음은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를 갖기도 하지만, 모음이 놓인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구희산(1998)에서는 음절 유형과 인접 자음의 발성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였으며, 이숙향(1998), 정혜정 외(2015)에서는 모음이 놓이는 운율적 위치에 따라 모음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결과도 제시하였다. 또한 황영순(1998)에서는 발화 속도에 따라 모음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결과도 제시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밝히기 위하여 모음의 음운론적 환경 및 변인으로 음절 유형과 운율적 위치, 발화 속도도 함께 고려한다.

국어 연구에서 모음의 내재적 길이에 대해서는 지민제(1993)에서 ‘고유 지속 시간(intrinsic duration)’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보고되었다. 지민제(1993)은 말소리의 리듬이 갖고 있는 속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림 1>과 같이 단모음의 음성학적 길이를 제시하였다. 고모음 /이, 우, 으/의 길이가 다른 모음들에 비해 짧고, /애/와 /아/가 긴 편에 속하며 /으/가 가장 짧다고 하였으며, 그 외의 모음의 길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하였

1) Lisker(1973)에서는 개구도를 반영한 F1을 통해 고모음이 턱을 더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고모음이 저모음에 비해 더 긴 길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림 1>의 결과는 ‘같은 음성 환경에서 발음한 단모음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라고 했을 뿐 실험 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림 1> ‘우리말 모음의 길이(지민제(1993: 45))’

이후 국어 모음의 길이에 대한 연구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운율 구조와 관련한 모음의 길이(이숙향 1998), 자음 환경과 관련한 모음의 길이(구희산, 1998), 발화 속도에 따른 모음 지속 시간(황영순, 1998)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모두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차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음 그 자체의 내재적 길이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민제(1993)이 연구 자료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더라도 국어 모음의 내재적 길이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이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연구는 지민제(1993)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 자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 1>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민제(1993)이 발표된 지 시간적으로도 30여년이 흘렀으며, 코퍼스를 기반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지금 지민제(1993)에서 제시한 단모음의 ‘고유 지속 시간’을 검증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2.1 자료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살피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 코퍼스(Seoul Corpus)를 이용한다. 서울 코퍼스는 2015년 3월에 공개된 한국어 자연 발화 음성 코퍼스이다. 총 3년에 걸쳐 10대~40대 남녀 각각 5명씩 총 40명의 자연 발화를 녹음하고 전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의 규모는 총 231,632어절이다. 녹음은 한양대학교 영문학과 녹음실에서, Tascom HD-P2 녹음기와 AKG c420 마이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추출을 44,100Hz, 양자화 16bit로 디지털화되어 있다. 이 코퍼스는 음성 파일 240개와 그에 해당하는 프라트(praat) 프로그램의 텍스트그리드(TextGrid) 파일 240개로 구성되어 있다. 코퍼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Yun et al.(2015)를 참조할 수 있다.

서울 코퍼스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층별로 레이블링되어 있다. 가장 위부터 음소, 어절(발음 전사), 어절(로마자 발음 전사), 발화(발음 전사) 순이고, 나머지 5~7 층별은

3. 연구 결과

3.1 분석 대상 음소 전체에 대한 단모음의 길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체 음소를 대상으로 측정된 단모음의 길이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길이가 가장 짧은 모음은 /ㅡ/로 평균 63.6ms이고, 가장 긴 것은 /개/로 104.7ms이다. 가장 긴 모음과 가장 짧은 모음 간의 길이 차는 41.1ms이다. 7개 단모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보였으며($F(6,180607)=1116.2, p<.01$),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ㅏ/와 /ㅓ/는 차이가 없었으나, 나머지 모음들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단모음의 길이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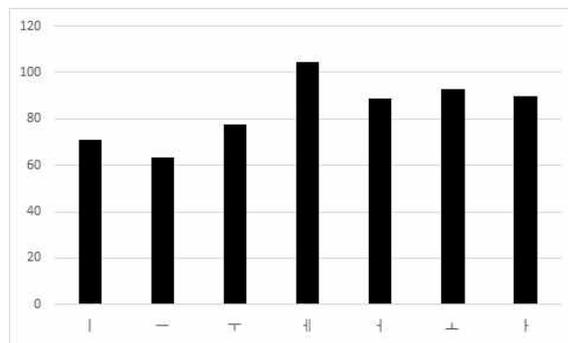
음소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F
ㅣ	26,932	70.9	60.5	9.0	1,326.0	55.7	1116.2**
ㅡ	30,609	63.6	61.5	0.0	1,230.0	46.0	
ㅏ	13,224	77.3	75.8	7.0	1,162.0	53.6	
개	26,631	104.7	83.8	9.0	1,119.0	75.9	
ㅓ	25,886	89.0	74.8	8.0	1,456.0	68.4	
ㅗ	16,678	92.9	77.4	7.0	878.0	67.4	
ㅜ	40,654	89.5	62.2	11.0	931.0	75.3	
합계	180,614	83.9	71.1	0.0	1,456.0	63.6	

** $p<.01$

<표 2> 단모음 간 평균 길이의 통계적 차이

	ㅣ	ㅡ	ㅏ	개	ㅓ	ㅗ	ㅜ
ㅣ							
ㅡ	**						
ㅏ	**	**					
개	**	**	**				
ㅓ	**	**	**	**			
ㅗ	**	**	**	**	**		
ㅜ	**	**	**	**		**	

** $p<.01$



<그림 3> 단모음의 평균 길이

<그림 3>은 <표 1>에서 평균 길이만을 대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 ㅏ/와 / ㅑ/만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 다른 모음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중에서 특히 고모음 /ㅣ, ㅡ, ㅓ/와 중·저모음 /ㅓ, ㅕ, ㅗ, ㅛ/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모음 /ㅣ, ㅡ, ㅓ/는 평균 77ms 이하이며, 중·저모음 /ㅓ, ㅕ, ㅗ, ㅛ/는 평균 89ms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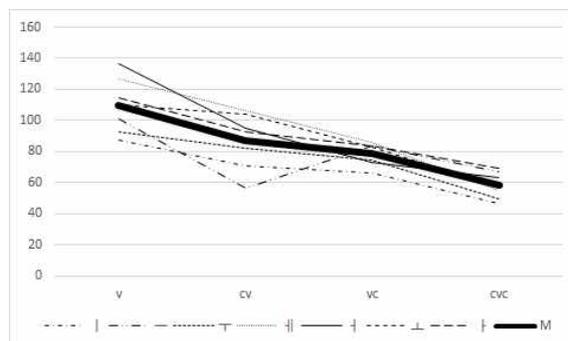
3.2 음절 유형에 따른 길이

음절 유형에 따른 모음의 평균 길이는 <표 3>,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에서 x 축은 음절을 이룬 유형 즉, 모음 하나로 음절을 이룬 유형(이하 v유형), 자음과 모음(이하 cv유형), 모음과 자음(이하 vc유형),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하 cvc유형)으로 이루어진 음절 유형별로 각 모음의 평균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음절 유형 내에서도 각 모음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음절 유형별 모음의 평균 길이

	v	cv	vc	cvc
ㅣ	87.7	70.8	66.5	47.1
ㅡ	100.9	56.7	83.8	66.8
ㅓ	93.1	82.0	74.3	49.5
ㅓ	126.9	106.7	85.6	55.0
ㅕ	136.3	95.0	72.9	63.5
ㅗ	110.1	104.1	82.6	56.9
ㅛ	115.0	92.8	83.8	69.3
평균	110.0	86.9	78.5	58.3
F	138.349**	955.334**	32.641**	189.359**

** $p < .01$



<그림 4> 음절 유형별 모음의 평균 길이

<그림 4>에서 보듯이 음절 유형별로 단모음의 길이는 차이를 보인다. v유형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cv유형, vc유형, cvc유형 순으로 짧다. 이렇게 음절 유형들 간에 길이가 감소하는 정도

는 /—/모음을 제외하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 굵은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 음절 유형별 모음의 평균 길이인데, 각 유형별 단모음의 평균 길이는 v유형이 110ms, cv유형이 86.9ms, vc유형이 78.5ms, cvc 유형이 58.3m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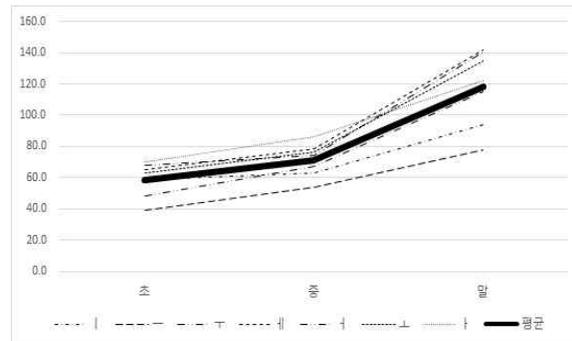
3.3 어절 내 음절의 위치별 길이

어절 내 음절의 위치별 단모음의 평균 길이는 <표 4>, <그림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어절 내 음절의 위치에 따라서도 각 단모음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어절 내 음절의 위치별 단모음의 평균 길이

	초	중	말
	58.7	59.7	93.8
—	38.9	50.8	77.7
⊥	48.2	64.3	115.4
ㄱ	65.2	71.8	141.6
ㄷ	67.9	67.1	140.4
ㄴ	62.8	71.2	134.9
ㅌ	69.9	80.1	122.0
평균	58.8	66.4	118.0
F	1240.6**	517.5**	457.6**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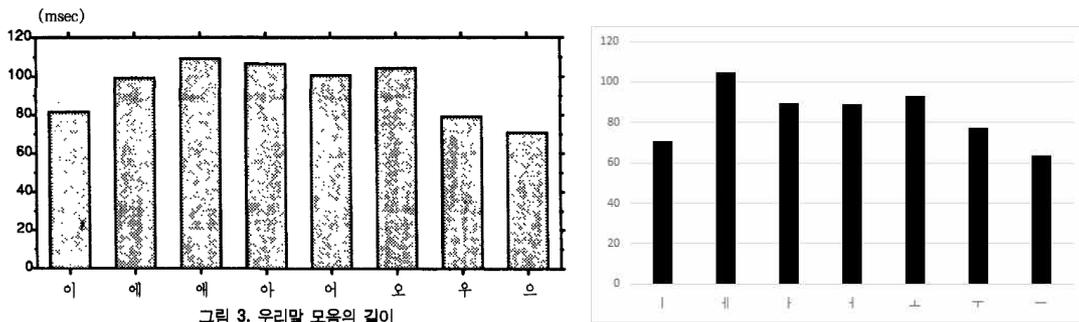
<그림 5> 음절 위치별 단모음의 평균 길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모음이 어절의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느냐, 어절의 중간 음절에 위치하느냐, 어절 마지막 음절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평균 길이는 차이를 보인다. 어절 초 음절에 위치하는 단모음의 길이가 가장 짧고, 그 다음은 어절 중간, 그리고 어절 말 음절에 위치하는 순으로 길이가 길다. 굵은 선으로 보인 것이 평균인데, 어절 초 음절에 위치하는 모음은 58.8ms, 어절 중간 음절에 위치하는 모음은 66.4ms, 어절 말 음절에 위치하는 모음은 118.0ms이다.

4. 논의

4.1 지민제(1993)의 결과와의 비교

지민제(1993)에서는 단모음의 길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그래프로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연구의 측정 결과 값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래프 모양에 의한 인상적인 비교만이 가능하다. 편의상 앞서 제시한 <그림 6>에 <그림 1>과 <그림 3>을 다시 제시한다(<그림 3>은 지민제(1993)과 같은 모음 순서로 바꾸었다).



<그림 6> 단모음의 길이(좌: 지민제(1993)의 결과, 우: 이 연구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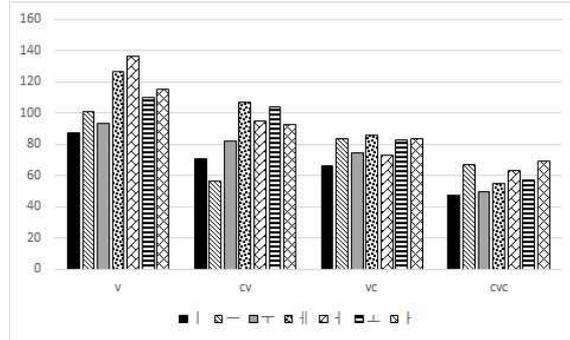
지민제(1993)이 대규모 코퍼스를 통한 정보처리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0,614개의 음소를 대상으로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인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흥미롭다. 약간의 비율 차이는 있을 지라도 두 결과 모두에서 /꺀/의 길이가 가장 길었으며, /ㅡ/의 길이가 가장 짧았고 /꺀/, /ㅏ/, /ㅑ/, /ㅓ/의 길이와 /ㅣ/, /ㅓ/, /ㅡ/의 차이 즉, 중·저모음과 고모음 간에 차이가 느껴지는 점이 같다. 연구 방법의 차이,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국어 단모음이 지닌 내재적 길이가 위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도 한다.

4.2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길이의 변화

3.1, 3.2절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국어 단모음의 길이는 음절 유형과 어절 내 음절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음절 유형에 따라서는 v유형, cv유형, vc유형, cvc유형 순으로 길이가 줄어들었다. 길이 차이는 v유형의 평균 길이를 100%로 보았을 때, cv유형이 79.0%, vc유형이 71.4%, cvc유형이 53.0%이다. 즉 모음의 길이는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때에 비하여 초성에 자음이 올 경우 21%, 종성에 자음이 올 경우 19%가 줄어들고, 초성과 종성에 각각 자음이 올 경우 평균적으로 47%가 줄어든다.²⁾

2) 구희산(1998)에서도 20대 중반 3명의 여성에게 v유형(이, 에, 애, 으, 어, 아, 우, 아), cv유형(비, 베, 배, 브, 버, 바, 부, 보), cvc유형(빅, 벅, 백, 북, 벽, 박, 북, 복)의 단어를 “이것은 _이다”라는 틀문장에 넣어 녹음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v유형에 비해서 cv유형은 79.3%, cvc유형은 38.5%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vc유형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구희산(1998)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cv유형은 약 79%라는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cvc 유형은 53%와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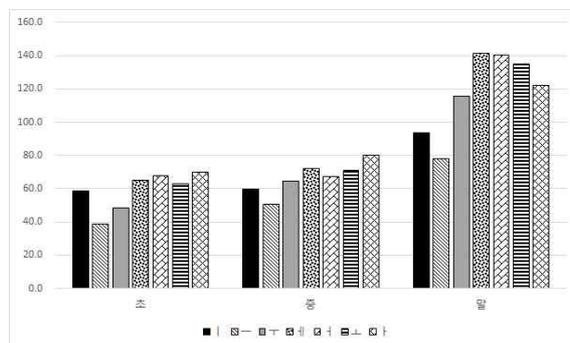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렇게 음절 유형에 따라서 모음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줄어들 때 개별적인 단모음 음의 변화는 어떠할지가 궁금하다. <그림 7>은 음절 유형별로 각 단모음의 평균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음절 환경별 단모음의 평균 길이

<그림 7>을 보면 v환경에서는 <그림 6>과 같이 고모음 /i/, u/와 중·저모음 /e/, a, ɔ, ɔ̃/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cv환경에서도 유지되는데, vc 환경과 cvc 환경에서는 고모음과 중·저모음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관찰된다. 즉 개음절(v 유형, cv 유형)과 폐음절(vc 유형, cvc 유형) 간에 내재적 길이의 변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개음절에서는 생리적 차이에 의한 모음의 내재적 길이가 유지되나, 폐음절에서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모음이 생리적 차이에 의한 내재적 길이로 변별되지 않고 중화되어 거의 비슷한 길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어절 내 음절의 위치에 따른 단모음의 평균 길이는 <그림 8>과 같은데 이를 <그림 7>과 비교해 보면 세 위치 모두 비교적 고모음과 중·저모음의 차이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어절 내 음절 위치에 따른 단모음의 길이는 어절 초와 어절 중간, 그리고 어절 말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고모음과 중·저모음의 내재적 길이 변별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그림 8> 어절 내 음절 위치에 따른 단모음의 평균 길이

약 14.5%의 차이를 보였다. cv유형은 그 결과가 거의 같지만, cvc 유형에서 14.5%라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5. 결론

이 연구는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코퍼스를 이용하여 발화 속도와 발화 길이의 편차를 제거한 후 180,614개의 단모음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단모음의 평균 길이, 음절 유형별, 어절 내 음절의 위치별 평균 길이를 제시하였다. 전체 단모음의 평균 길이는 고모음과 중·저모음의 길이가 변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음절 유형별로는 v유형, cv유형, vc유형, cvc유형으로 갈수록 그 길이가 줄어들었고, 어절 내 음절 위치별로는 어절 초, 어절 중간, 어절 말로 갈수록 그 길이가 늘어났다. 그러나 음절 유형에 따른 단모음의 길이 변화를 보면 개음절에서는 전체 단모음의 길이 차이 양상이 유지되고, 폐음절에서는 그 차이가 희석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어절 내 음절 위치별 단모음의 길이 변화에서는 전체적으로 단모음의 길이 차이가 유지되면서 평균 길이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 참고 문헌

- 구희산(1998), 모음 길이에 미치는 자음 환경의 영향. 『음성과학』 4-1. pp.7-17.
- 박희석(1998), 영어 모음길이에 대한 연구. 『Journal of Namseoul Univ.』 4. pp.293-304.
- 배재덕(2008), 영어모음의 길이와 질에 관한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9-1. pp.1-20.
- 정혜정, 윤규철(2015), 벅아이 코퍼스의 모음 길이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7-4. pp.103-110.
- 지민제(2003), 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 3-1. pp.39-57.
- 오은진(2002), 자음의 조음 위치와 인접 모음 길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음성과학』 9-3. pp.201-210.
- 오재혁(2015), 한국어 리듬의 등시성에 대하여. 『한국어학』 68. pp.91-115.
- 이숙향(1998), 한국어 운율구조와 관련한 모음 및 음절 길이. 『말소리』 35·36, pp.13-24.
- 황영순(1998), 모음 지속기간의 음성학적 대비. 『평택대학교 논문집』 11. pp.275-288.
- House, A. S. & Fairbanks, G. (1953), The influence of consonant environment upon the secondary acoustical characteristics of vowel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25, 105-113.
- Peterson, G. E. & Lehiste, I. (1960), Duration of syllable nuclei in English.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32, 693-703.
- Sharf, D. (1962), Duration of post-stress intervocalic stops and preceding vowels. *Language Speech* 5, 26-30.
- Lisker, Leigh. (1973), On explaining vowel duration variation. *The Winter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San Diego, California, U.S.A.

■ 토 론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이동석(한국교원대)

이 논문은 지민제(1993) 이후로 사실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에 대한 문제를 대용량의 음성 코퍼스를 이용하여 연구한 것으로서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연구 주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음성 코퍼스를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코퍼스의 성격과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서울 코퍼스는 10대~40대 남녀 각각 5명씩 총 40명의 자연 발화를 녹음하고 전사한 자료인데, 이 코퍼스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가 혹시 이러한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혹시 연령과 성별에 따른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는가?
2. 서울 코퍼스가 자연 발화라는 점에서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살피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제된 실험 상황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연 발화에서는 정의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내재적 길이와 상관없이 모음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분석 결과 고모음인 /—/의 길이가 가장 짧고 중모음인 /꺠/의 길이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음성학적으로 또는 음운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4. 단모음의 어절 내 음절의 위치별 길이를 보면 어절 초 음절에 위치한 단모음의 길이가 가장 짧고 어절 말 음절에 위치하는 단모음의 길이가 가장 길다. 이에 대해서도 음성학적 또는 음운론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혹시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말의 강세 및 억양의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가?
5.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서는 v유형에서의 단모음의 길이가 가장 길고 cvc유형에서의 단모음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선후행 자음의 존재가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v가 동일한 모음일 때 모음만 있는 v 음절의 길이와, 초성과 종성을 모두 갖춘 cvc 음절의 길이가 거의 같은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 즉, 동일 모음의 경우 음절 구조와 상관없이 해당 모음을 포함한 음절 전체의 길이에 큰 차이가 없는지 궁금하다.

제1부 <제2 분과 자유발표>

다층적 부사의 사용 양상 연구

- ‘다, 안’을 중심으로-

조민정(연세대)

< 차례 >

1. 머리말
2. 문법·어휘·화용적 측면에서 본 ‘다, 안’의 다층성
3. 언어 사용에서 ‘다, 안’의 기능 및 함축의 다층성
4. 맺음말

1. 머리말

“회원이 **다** 왔다. 회원이 **다 안** 왔다.”에서 ‘다’는 긍정을, ‘안’은 부정을 지시하는 관계로 둘은 서로 모순관계를 이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사용에서 ‘다’는 긍정과 부정, 그리고 그 중간치로 해석되는 등 정도성을 가진다. 또한 ‘다, 안’은 기본적으로 후행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 외에도 후행 서술어가 아닌 성분을 수식하거나 서술어가 의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의미적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 안’이 통사적으로 서술어의 의미상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필수 성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결합 제약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특정 시제 형태소나 특정 어미와 함께 다른 의미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갖는 것들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부사가 달리 해석되는 조건 및 그 처리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아, **다** 오셨군①. 생전 안 하던 전화를 **다** 하구 별일이네②.”에서 ‘다’는 서술어 앞에서 후행 서술어를 수식하지만,¹⁾ “날씨 예보를 들으니 우리 소풍은 **다** 갔다③. 말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④.”에서 ‘다’는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필수성분과(③), 파생어의 어근(④)으로 기능하는 면에서 품사로서의 여느 부사와 성격을 달리한다.

이와 더불어 ‘다’는 각기 다른 정도성 즉 ①에서 ‘다’는 “모두(전부)”라는 최대치로, ②에서 ‘다’는 ‘안’과 대립관계를 이루면서 “중간값”으로, ③에서 ‘다’는 부정적 함축(“소풍은 못 간다.”)으로 그리고 ④에서 ‘다하다’(“어떤 일을 위하여 힘, 마음 따위를 모두 들이다(『표준』)”)의 뜻으

1) 이들은 학교 문법에서 특정 성분을 수식한다 하여 성분부사로 분류되고 있다.

로 볼 때 ‘다’는 최대치로 해석된다.

더욱이 “(회원)이 다 오셨군.”에서 ‘다’는 수식과 동시에 주어에 대한 수적 명세(양화사적 쓰임, 3장 참조.)를 하고, “나야 뭐 다 끝난 인생인데.”에서 ‘다’는 ‘끝나다’와 함께 ‘인생’을 수식(서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부정적 입장 및 태도(평가)를 드러내고 있다.²⁾ 이처럼 ‘다’는 결합 제약을 포함한 문법적이고 어휘·화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 즉 다층성을 보인다.

부사 ‘안’ 역시 후행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면에서 ‘다’와 동일하나 “나는 택시를 안 탔다.”가 “택시를 탄 것은 내가 아니다①, 내가 탄 것은 택시가 아니다②”로 해석되는 경우 ‘안’이 꼭 후행서술어(‘타다’)만을 한정·수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주어(‘나’)나 목적어(‘택시’)를 부정하며 결과적으로 주어나 목적어를 한정·수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안’이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안’을 수의적 성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다, 안’이 수식어로서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되는 수의적 성분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본고는 긍정의 ‘다’와 부정의 ‘안’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말 품사 상 부사로써 수식기능만 갖는지, 통사적으로 생략되어도 되는 수의적 성분인지, 그리고 그들의 의미가 긍정 혹은 부정으로 단일하게 기술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이 구어 자료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고 했는데, 자료에서 이들의 출현 빈도를 보이면 <표 1>과 같다.³⁾

<표 1> 영역 말뭉치에서 ‘안, 다’의 출현 빈도, 배진영 외 (2013:143)

표제어	대화		소설		신문		학술	
	빈도	누적	빈도	누적	빈도	누적	빈도	누적
안	11377(1)	8.75	2333	28.3	749	25.28	669	32.79
다	4456(4)		7855		×		×	
잘	3412	51.25	1786	10.17	711	29.00	1083	11.45
못	2892	55.84	1498	15.80	469	35.64	×	

‘다’는 대화와 소설을 포함한 (준)구어에서만 출현하는 반면 ‘안’은 모든 영역의 자료에서 고르게 출현하여 ‘안’과 함께 부정부사로 분류되는 ‘못’은 문어 중 ‘학술’을 제외한 ‘신문’에서만 출현하는 것과 대비를 보인다.⁴⁾ ‘학술’에서 부정적인 내용(명제 내용)은 ‘잘’과 ‘안’으로 이루어

2) 이와 유사한 용법을 가진 ‘잘’도 ‘그는 자식을 모두 잘 키웠다’에서 ‘그가 키운 자식들이 모두 잘되었다’와 ‘그가 자식을 모두 키운 것은 잘한 일이다’의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후자에서 자식을 키운 그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평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잘’이 명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사가 수식 외에 양태적 기능을 갖는 것에 대해 최현배(1961:596), 서정수(2005:129-131), 김선희(2002:78)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최현배(1971)는 양태부사를 ‘말재어찌씨’라 하였으며, 말재어찌씨는 “말하는이의 뜻을 베푸는 태도에 관한 어찌씨이니: 그 풀이말의 베풀(진술)의 방법을 꾸미어서, 그 풀이말의 나타냄에 일정한 재(식, 방식, 양식)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양태부사는 말하는이가 문장의 내용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등 말하는이의 심리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본다(조민정, 2006:256, 2015년:192).

3) ‘안’은 <대학생 구어 총 어휘빈도표>에서 15위로 빈도수(1191)을, ‘다’는 35위로 빈도수(631)을 보이며, <국립국어원 총 어휘빈도표>에서 ‘안’은 44위 빈도수(2676)를 보이는 반면 ‘다’는 순위 5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10만 어절의 영어 문어와 구어 DB를 비교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목록 50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not’은 문어:구어(28위:35위), ‘all’은 문어:구어(38위:32위)를 보였다(McCarthy & Carter, 1997).

4)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어의 능력과 관련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못’의 의미로 인해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진 통사적 구성 혹은 ‘못’으로만 쓸 수 있는 “이 연필은 10cm 조금 못 된다고 합니다.” 같은 문장을 제외하면 주로 ‘-지 않-’의 장형부정으로 실현된다.⁵⁾ 반면 실시간으로 발화가 진행되는 대화에서 길이가 길고 통사구조가 복잡한 장형부정보다 길이가 짧고 통사구조가 간결한 ‘안, 못’을 활용한 단형부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6 참조).⁶⁾

요컨대, ‘다’는 (준)구어에서만 출현하고, ‘안’은 모든 영역의 자료에서 출현하지만 대화를 포함한 구어의 특성 즉 짧은부정문을 선호하는 이유로 인해 구어에서 높은 빈도로 쓰이는 공통점을 가진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다’의 품사 상, 통사적이고 의미적인 정도성은 구체적인 언어 사용 맥락에서 결정되는데, 그러한 맥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이 포함된 문장의 중의성은 그것의 수식 범위가 달라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수식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조건 역시 문맥에서 결정되는데, 그러한 문맥으로 무엇이 있는지 역시 기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다, 안’의 특성 즉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품사 분류와 통사구조에서의 분포 및 단어 사용이라는 화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단어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이 형태적 차원과 통사적 차원, 그리고 화용적 차원에서 고찰될 경우 전통문법의 품사 분류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단어에 대한 기술이 좀 더 정밀해 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문법·어휘·화용적 측면에서 본 ‘다, 안’의 다층성

2.1. 앞선 논의 및 연구의 필요성

전통문법에서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나도 너한테 할 만큼 했어.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에 대해 ‘본형 그대로’ 몸바꿈하는 것이라 하여 전성되는 즉 한 품사에서 다른 품사로 되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최현배, 1971:719-725). 또한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2)을 비롯한 사전류에서는 같은 표제어 아래 두 품사의 기능을 주거나 표제를 달리 하여 두 품사의 기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문법에서는 이에 대해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 ‘품사의 통용’이라고 지칭했으며 이는 사전에서의 처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⁷⁾

최근 주어진 단어의 품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김양진(1999), 이영제(2014)와 이숙의(2015)는 각각 다른 접근법을 보인다. 먼저, 김양진(1999:137)은 단어가 본래의 어휘 의미를 잃고 새로운 문법적 기능을 얻어 문법 기능 요소가 되는 현상에 대해 단어가 ‘형태 정보 상실의

목표로 하는 학술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1) ㄱ. 자리를 바꾸어 앉는 것에 대한 토론이 잘 되었나요? 토론이 잘 되지 않았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말하여 봅시다. ㄴ. 운동이 있는 뒤, 윤봉길이 학교에 가지 않은/못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각주의 예문 번호는 본문의 것과 달리 하였다.

6) ‘안, 못’이 쓰인 예로는, (2) ㄱ. A: 밥 안 모잘랐어요. B: 그 더 안 먹구 그것만 먹었어. ㄴ. 아 굴 예구 굴은 못 먹잖아, 이제~ 감기가 걸리면 차니까 ∴..

7) 한 단어가 두 가지 문법적 성질을 띠는 것을 품사전성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으름되는 품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전성의 절차를 형태론적으로 형식화하기가 또한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문법에서 ‘품사전성’대신 ‘품사통용’으로 지칭하였다(고영근·남기심, 1993:187).

과정'을 겪으면서 그 결과 단어가 어떠한 통사적 위치에 고정되어 쓰이는 것을 통사적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이영제(2014:9)는 '완전(완전의 경지)'은 조사나 '-이다'의 어기로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명사가 아닌 형태.통사적 단위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명사 상당어인 것으로 판단하면서,⁸⁾ 이러한 '완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명사의 지위에서 점차 멀어져서 분포가 제한된 관형사로, 더욱이 최근 "완전 멋있어/맛있어"에서 보듯이 부사로 쓰이는 등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반면 이숙의(2016:138)는 어근 '완전'이 본래 명사와 부사의 범주에 동시에 속하는 주변적인 것으로 "어휘 내적 속성 중 하나가 부각되어 그 속성이 대표하는 품사로 쓰이는 것 즉 단어가 문장 내 쓰임에 따라 명사성 혹은 부사성이 강화됨"에 따라 '부사성의 강화'에 의해 부사로 실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논의에 따르면 분포가 제한되고 고정적이 되는 것은 어휘적 기능 또는 자질의 일부가 사라지거나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⁹⁾ 이와 반대로 한 어휘가 통사적 분포에서도 정도성을 가지며, 각각의 경우에 통사.어휘적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단일한 품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이 혹은 통용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어떤 것으로 설명할 것인지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안'을 포함한 부정문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가 있는데, 그 중 임흥빈(1987), 구종남(2007), 장영준(2006) 등이 한국어 부정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not(=안)'과 every(=다, 전칭양화사), 그리고 some(몇몇, 존재양화사)의 해석과 관련하여 Quirk et al(1985:790), Kroch(1974:64-72), Jackendoff(1972:326)가 every는 부정의 범위 안과 밖에 있는 것이 가능한 반면 some이 주어에 포함되면 부정의 범위는 동사구에만 한정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¹⁰⁾ 이러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예를 통해 살펴보자.

- (1)ㄱ. A1: 진성 아줌마가 니네랑 거래 끊고 나랑 거래하고 싶댄다. B1: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마. A2: 다른 집 전부 다/∅ 그런다는 말이 아니구 진성, 하나. 그 아줌마가 나랑 거래 안 하면 정씨 아저씨 있지? B2: (보면) A3: 삼청 교육대에서 자기만 살아 남았다구 학질 걸리게 하는 아저씨 있잖아. B3: (무섭다) 그 아저씨 뭐? A4: 그 아저씨한테 물건을 받겠대.

- 양화사적인 용법

- ㄴ. A1: 석구야? B1: .왜? A2: 난 이 구로동이 싫어. 가난이 싫어. 못 배우 게 싫어. 근데 넌 다 /∅ 갖췄어. 못 배우고 가난하고 구로동에 살어. 재영이 만나지 마.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땐 진짜 가만히 안/∅ 있어!!! B2: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거야. (벌떡 일어나, 방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던지며)어떡할 거야, 이 새끼야!

8) (3)ㄱ. 이 기술은 모두 배우고 나면 완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ㄴ. 철분은 태아의 血液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인데 鐵粉의 보충이 부족하면 태아 발육의 완전을 바랄 수 없을 뿐 아니라...(생략) (동아일보, 1940. 6.7. 4면, 사회) (4ㄴ)에서 보듯이 '완전'이 해방 이전 시기에는 오늘날에 비해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등 자립적 용법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미루어 '완전'은 명사로 보인다.

9) 김양진(1999:184)에서 '분포의 제한'을 기능어의 특성 또는 기능요소적 특성과 관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분포의 제한'이 꼭 기능요소적 특성과 관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분포가 자유로워지면서 기능적인 요소로 되는 것들도 있다. 대화의 시작, 중간, 끝에 오면서 부사가 아닌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좀'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10) 술어논리에서 'x likes y'를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은 구체적인 이름을 채워 넣는 것과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양화(quantification)라고 한다. 양화에는 '적어도 하나가 있는 것'을 뜻하는 존재양화사와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의 전칭양화사가 있다. 존재양화사는 일상 언어의 '하나, 몇몇some'에, 전칭양화사는 '다all, 모두every'에 대응한다. 양화와 양화사 유형에 대한 것은 이익환(1995:345-346)과 크루즈(2000:73)를 참고하라.

위 (1)에서 부사 ‘다, 안’이 후행서술어를 수식하는 면에서 동일하지만, (1ㄱ)에서는 ‘다’가 생략되어도 문법적인 반면 (1ㄴ)에서는 ‘다, 안’이 생략되면 원래의 문장과 다른 의미가 되거나 적어도 문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 그렇다면 동일한 부사로 분류되는 ‘다, 안’이 생략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함께 ‘다’가 (1ㄱ, ㄴ)에서 다른 기능을 갖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2)ㄱ. "잘못된 일을 한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이며 잘못을 저지른 자를 고소하는 일이 경건한 일입니다."
 ㄴ. 아, (손님들이) **다/*∅** 오셨군. 고순아 뭘 우물우물 하나? 빨리 하자
 ㄷ. 그 분은 계획을 세울 뿐, 실천을 **안/*∅** 해요.

- (3)ㄱ. 내일 날씨 예보를 들으니 우리 소풍은 **다/*∅** 갔다.(=못 간다.)
 ㄴ. A1: 나 **안/*∅** 불쌍해? B1: 니가 뭐가 불쌍해?

‘다, 안’이 부사로서 후행서술어를 수식하는 면(2)과 서술어의 의미상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필수부사어로 기능한다는 면(3)에서 둘은 공통성을 갖는다.¹¹⁾ ‘다, 안’을 생략할 경우 비문이 되거나 의미적으로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내는 이유로 (3)의 ‘다, 안’은 문장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논항의 하나인 필수부사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합제약에서 ‘다, 안’은 차이를 보인다. 즉 필수부사어로서 ‘다’는 과거시제 어미와 함께 공기해야 하는 반면 ‘안’은 ‘-으면, -어서는 ~ 되다’와 결합제약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다’가 부정의 함축을 가질 때 그것은 ‘안’과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3). 그렇지만 ‘안’과 달리 ‘다’는 생략과 함축에서 정도성을 포함한 다층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앞선 논의에서 ‘다’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이면서 동시에 선행명사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선행명사와 함께 명사구를 이루는 즉 양화사적인 용법(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에 대한 것, ‘다, 안’이 포함된 문장의 함축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 다루지는 않았다. 문장 안에서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문장 안에서 일으키는 문법적인 행위의 양상)에 따라 나눈 것이 품사이고, 그것이 형태와 기능에 따른 형식적 분류(form class)라는 점에서 본다면 2.2.에서 보겠지만, ‘다, 안’의 문법적 성질을 단일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어 언어 사용자가 관련된 문법적 지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을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반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에게 문장 (10, 13)이 전하는 함축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다. 그러한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를 위해서도 ‘다, 안’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2. ‘다, 안’의 다층성

2.2.1. ‘다’의 문법적·통사적·의미적 다층성

11) 정도부사의 하나인 ‘훨씬’은 본래 수식어로 수의적 성분이나 그것이 문장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비교어가 명시되어 있는 문장(철수가 영수보다 훨씬 똑똑하다. 철수는 자장면보다 짬뽕을 훨씬 좋아한다.)이어야 한다. 이때 ‘영수보다, 자장면보다’는 ‘훨씬’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다. 수의적 성분이 필수 논항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도부사의 통사적 제약에 대해 자세한 것은 한길(2012:189)을 참고하라.

‘다’는 품사 분류에서 부사로 분류되지만, 통사구조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 (4)ㄱ. 다른 사람과는 달리 김동인은 시로가네 교정에서 중등부를 다 마치지 못 하고/ㄱ' \emptyset 마치지 못 하고 중퇴했지만
- ㄴ. 넌 다(모든 것을) 갖췄어.
 - ㄷ. 다(=손님들) 오셨군.
 - ㄹ. 회원이 [다 왔다]_{VP}. (= [[회원]_{NP} 다] 왔다. = [회원 다]_{NP}가 왔다.)

‘다’가 (4ㄱ)에서 수의적인 부사어로, (ㄴ)에서 필수적인 논항의 하나인 필수부사어로, (ㄷ)에서는 생략된 주어에 대한 내용을 대용하면서 주어로, 동시에 주어의 수(혹은 양)에 대한 서술을 담당하는 양화사로서 쓰인다. 이 경우 ‘다’가 한편으로 후행서술어에 대한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하여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즉 (4ㄷ, 5ㄱ)에서 ‘다’가 ‘왔다’를 수식하는 부사로서의 기능과 ‘회원 모두’를 서술한다는 면에서 명사로서의 기능(5ㄴ)이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 (5)ㄱ. 올 사람은 다 왔다.
- ㄱ' [올 사람 다]가 왔다. → [올 사람이 다이다] → 올 사람 ≙ 다
 - ㄴ.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이다. 『표준국어대사전』
 - ㄴ' 이것이 다이다. → 이것 ≙ 다

(5ㄱ)의 ‘다’는 후행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올 사람’의 수를 한정·서술하고 있다. 이때 ‘다’는 한편으로 서술어를 수식하여 부사적 기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어에 대한 양을 한정 서술하는 명사적 기능(5ㄴ)과 동일하다. (5ㄴ)에서 ‘다’는 주어 ‘이것’에 대한 서술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이것’의 양을 한정·서술하는 관계로 양화사(수사)적인 기능을 한다. 그렇지만 학교문법과 사전에서 ‘다’를 조사 결합 유·무와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맺는 관계(수식하는 성분)에 따라 각각 부사(5ㄱ)와 명사(5ㄴ)로 처리했지만,¹²⁾ (5)에서 ‘다’가 ‘올 사람, 이것’에 대한 양화사적인 서술 기능을 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¹³⁾ 이렇게 볼 때 부사 ‘다(5ㄱ)’는 후행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겠다.

또한 통사적 현상의 하나인 생략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 (6)ㄱ. 다른 사람과는 달리 김동인은 시로가네 교정에서 중등부를 다 마치지 못 하고/ㄱ' \emptyset 마치지 못 하고 중퇴했지만
- ㄴ. 나도 세간 백성들과 같은 일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수도 한답시고 경전에나 잡혀 있었으니 도대체 부처가 다 뉘란 말인가/ㄴ' * \emptyset 뉘란 말인가? 중생은 의지할 바 없고 믿을 곳이 없는데...

12) 이러한 것은 ‘하나’가 명사이면서 수사(즉 양화사)로 쓰이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때 ‘하나’를 수사가 아닌 명사의 하위 유형으로 처리하면서 그것이 수사로 양화사적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이익섭 2000:125).

13) 사전에서도 ‘다’를 한 표제어 아래 부사와 명사적 용법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5)ㄱ. 다03 ㉮ 1. 남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두. ㉮ 올 사람은 다 왔다. 2.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限度)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 ㉮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3. 일이 밖의 지경(地境)에 미침을 나타내는 말. 가벼운 놀람, 감탄, 비꼼 따위의 뜻을 나타낸다. ㉮ 내가 선물을 다 사 오다니, 이게 웬일이냐?/듣자 듣자 하니 별소리를 다 하네. 4. 실현할 수 없게 된 앞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말. ㉮ 비가 오니 소풍은 다 갔다. ㄴ. ㉮ 1. 남거나 빠짐없는 모든 것. ㉮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이다./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다는 아니다. 2.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것. ㉮ 인생에서 돈이 다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 1999』

ㄷ. 강 씨에게 꾸 준 돈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단념하세요...

먼저, (6ㄱ)과 ‘다’를 생략한 (6ㄱ')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고, 차이를 찾자면 (6ㄱ)이 ‘마치지 못한 것’을 강조하는 정도이다. 이와 달리 (6ㄴ')은 비문이거나 받아들인다 해도 이상한 문장이 된다. 더욱이 (6ㄷ')에서 ‘다’가 생략되면 뜻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된다. 이를 볼 때 ‘다’는 후행서술어를 수식하는 수의적 성분인 부사(6ㄱ)와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필수부사어(6ㄷ), 그리고 그 중간의 기능을 갖는(6ㄴ) 등 필수성에서 정도성을 보인다.

- (7) '부저음 울리는 수화기를 보다 내려놓으며, (혼잣말)생전 안 하던 전화를 다/∅ 하군 별일이네.'
- (8)ㄱ. 나야 뭐 다/∅ 끝난 인생인데 이제 무엇을 배운들 큰 해가 있을라구? 너 장가나 보낼 수 있으면...
- ㄴ. '사실 이제 우리집은 다 망했다. 다 망했어? '아치골 덕은 죽을상이 되어 울먹였다.'
- (9)ㄱ. 아, 다/모두/전부/∅ 오셨군. 고순아 뭘 우물우물 하나? 빨리 하자
- ㄴ. "네. 아, 다/∅ 아시다시피 작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에..." (화용론적 전제)

‘다’가 (7)에서는 ‘안 하다’와 반대되는 상황을 기술하면서, ‘뜻밖에’라는 뜻을 가지고, 이때 ‘다’는 생략될 수 있지만, (8ㄱ)에서 ‘다’가 생략될 수 없거나 생략되면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혹은 거의 받아들일 수 없고, 이때 항상 과거시제 어미와 함께 ‘사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모두 전부”라는 양화사적인 용법을 가진 (9)에서 ‘다’가 생략된 문장의 수용성에서 (9ㄱ)과 (9ㄴ)은 차이를 보인다. (9ㄱ)에서 ‘다’가 생략되면 비문이 되거나 원래의 문장과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것과 달리 참여자가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다’가 생략되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9ㄴ).

위에서 수식과 생략이라는 통사구조에서 ‘다’가 다층성을 보았다면, 아래에서는 의미(함축)에서도 다층적 정도성을 볼 수 있다.

- (10)ㄱ. 야심 많은 둘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온갖/ㄱ' ∅ 수단을 다/모두 썼다.
- ㄴ. 생일 선물이 다 뭐예요? 미역국도 못 먹었어요.
- ㄷ. 회원이 다 오지는 않았다. ≙ 회원 다가 온 것은 아니다.¹⁴⁾

위 (10ㄱ)에서 ‘모두’와 교체실험을 통해 ‘다’는 최대치인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모든 수단’이라는 의미가 ‘온갖’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온갖’을 생략한 (10ㄱ')이 여전히 ‘모든 수단’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때 ‘다’는 최대치(‘모든 수단’)로 해석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10ㄴ)에서 ‘다’는 생일선물이라는 최대치를 가정했으나 ‘미역국도 못 먹었음’을 통해 그것이 부정되어 최소한의 기대치를 의미하고, (10ㄷ)에서 ‘다’는 “회원 전부”와 “회원 0” 사이의 기대치 즉 중간값을 함축한다. 요컨대, (10)에서 ‘다’는 최대치와 최소한의 기대치를 포함한 정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정도성은 부정문, 반어법 같은 문장 유형과 화자의 판단과

14) ‘다’와 ‘안’이 함께 쓰인 “회원이 다 안 왔다.”는 적어도 두 가지 즉 “회원이 모두 안 왔다(문장 부정).”와 “회원 모두가 온 것은 아니다(동사구 부정).”로 해석될 수 있다. 회원의 수 즉 정도성과 관련해서 이 밖의 해석도 가능하다.

기대치를 포함한 맥락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자세한 것은 3.1 참조).

2.2.2. 작용역과 ‘안’의 다층성

‘안’이 문장에서 중의성을 갖는데, 그것은 ‘다’와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11)ㄱ. 나는 택시를 안 탔다.

ㄴ. 나는 택시를 타지(는) 않았다.

(12)ㄱ. 택시를 탄 것은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탔다.)

ㄴ. 내가 탄 것은 택시가 아니다. (다른 차를 탔다.)

ㄷ. 내가 택시를 탄 것이 아니라 세우기만 했을 뿐이다.(고영근 외, 2011:365 재인용)

긴 부정문인 (11ㄴ)은 내가 택시를 어떻게 하기는 했지만 탄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중의성을 갖지 않는다. 반면 짧은 부정문은 부사의 영향이 주어에 미칠 경우 (12ㄱ)으로, 동사구에 미치면 (12ㄴ), 서술어에 미칠 경우 (12ㄷ)으로 해석된다. 위 문장에서 부정의 ‘안’이 미치는 작용역(scope)이 달라지는 데서 문장의 다의성이 기인한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부사 ‘안’의 영향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의성은 ‘는’과 같은 보조사의 결합(11ㄴ) 혹은 문맥(전제, 선행문)에서 주어지는 정보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안’이 통사구조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가 동일한 것 같지는 않다.

(13)ㄱ. 생전 안 하던 전화를 다 하고 별일이네.

ㄴ. 어제는 기분이 좀 안 (많이) 좋았을 뿐입니다.

ㄷ.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건만 얼마 안 가서 그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였다.

ㄹ. 맹숙 (혼잣말처럼) 되든 안 되든 옷이나 무사히 돌아왔음 하는 바램이 있네.

(14)ㄱ. 이것이 모두 다 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조사와 함께 강조

ㄴ. 또 다른 예는 8 개의 여왕 말을 표준 체스 판에 배열하는데 어떤 한 여왕 말이 다른 여왕 말을 잡을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를 위해서는 같은 행이나 열 혹은 대각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여왕 말이 놓여져서는 안 된다.

ㄷ.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체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 겹과 함께 반어적 강조

‘안’이 (13ㄱ)에서는 후행서술어(‘하다’)만을, (13ㄴ)에서는 ‘좋았을 뿐이다’라는 동사구를 수식하지만, (13ㄷ)에서는 ‘얼마’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정도 수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선행어를 수식하고 있으며, (13ㄹ)에서는 선·후행어를 접속하고 있다. 서술어나 부사 수식이라는 부사의 본래적 기능에서 본다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13ㄱ)에서 ‘안’이 ‘다’와 교체될 수 있는 것을 통해 부사와 서술어의 결합 긴밀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빈번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일상 대화에서 쓰이고 있는) ‘많이’가 ‘안’과 서술어 사이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도 긴밀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3ㄷ)과 (14)에서 ‘안’은 다른 선·후행어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단일한 구성으로 쓰여 통사구조의 긴밀도에서 (13ㄱ-ㄷ)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성분간의 결합도가 높아지면 단일한 단어 즉

ㄷ. 0←-----→최대치

위에서 ‘다’가 가진 함축을 (16ㄷ)처럼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가 최소한의 기대치인 0부터 최대치인 “모든 것”까지 가짐을 의미한다. ‘다’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every’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데, 영어의 전칭양화사 ‘every’가 다양한 해석을 갖는데, 그러한 해석을 결정하는 것은 화자의 의도 및 태도를 포함한 맥락, 혹은 일반적 상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Bach, K., 1981:149; Huang, Y., 2009:17)¹⁷⁾ (16)에서 ‘다’는 최대치와 최소한의 기대치를 포함한 정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정도성은 화자의 판단과 기대치를 포함한 맥락에서 결정되는데 그러한 맥락으로는 ‘조사 결합, 부정 서술어, 반어적 후행문’과 같은 통사적 조건 등을 포함해 다양하다.

- (17)ㄱ. '그래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자식을 낳았소?, 법으로 만낸 계집이겠소?, 늙은 저 불쌍치.'
- ㄴ. 요즘 한 이틀째 꽤 따뜻해. 아지랑이가 다/∅ 끼군. 벌써 봄이야.

위에서 ‘다’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약간 달라지기는 해도 문법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는 “강조”의 함축을 가지는데, 이러한 ‘다’는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어의 의미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경우 그것은 생략되면 비문이 되는데, 이는 ‘다’가 서술어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파생하기 때문이다.¹⁸⁾

- (18)ㄱ.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울 뿐
입니다.' ‘망하다’
- ㄴ. '엄마 다/*∅ 와 가?' ‘도착하다’
- ㄷ.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군. ‘부정적 전망’

‘다’는 후행서술어 ‘끝났습니다, 와 가다, 잤다’와 함께 ‘망하다, 도착하다, 부정’ 등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있어, 이 경우 ‘다’와 후행서술어와의 긴밀도는 (17)의 ‘다’보다는 상대적으로 긴밀하다. 뿐만 아니라 ‘다’가 부정 극어가 아님에도 부정적 함축을 가지는데,¹⁹⁾ ‘생일 선물이 다 뭐예요?’가 부정 함축을 가지는 것을 수사의문문이라는 통사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지만,²⁰⁾ (18ㄷ)은 수사의문문이라는 조건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장이 전하는 부정 함축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판단’과 판단이라는 행위에서 전제되는 척도를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잘’을 포함한 부사는 후행서술어를 수식할 뿐만 아니라 대상(혹은 사태)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주체의 평가는 척도성(정도성)을 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척도의 양 극단과 중간에 위치하는 것들은 모두 부정의 논리 작용역에 포함

17) 또한 문맥이 중의적인 문장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데, Huang, Y.(2009:16-17)은 문맥을 ‘물리적 문맥, 언어학적 문맥, 일반지식 문맥’으로 나눈 바 있다. 물론 해석이 다양할 때 어떤 것이 먼저 해석되는가와 관련해 문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을 결정하는 것 중 하나는 선호되는 해석 규칙이 있다(Bach, K., 1981:147)

18) 학교문법에서 수의적 성분으로 다루었던 부사가 통사구조에서 필수적인 성분으로 보아야 하는 유형에 대한 논의는 조민정(2016:164)을 참고하라.

19) 이와 관련해서 임채운(2013:248-249)은 등급 반의어들이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대응쌍을 부정 함의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일종의 수사적 용법으로 기술한 바 있다.

20) 손근원(2004:9)에서는 부정 부사나 부정 서술어 등의 부정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을 명시적 부정어가 없는 환경이라고 지칭하며, 이에는 ‘싫-, 힘들-, 불가능하-’를 포함한 묵시적 부정어구문, 수사의문문, 반어적 서술문이 포함된다고 한다.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정을 함축하는 문장 형식이 아님에도 부정의 함축을 갖게 된 것으로 본다.²¹⁾

다른 한편 ‘다’와 완료의 ‘-었-’이 함께 부정 함축을 전할 수 있는데, 즉 최대치의 ‘다’와 ‘었’이 결합하여 발화 시점 현재에 해당 사태가 끝났음을 지시할 수 있다. 발화 시점 현재에 사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해당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정’ 함축이 만들어진 것이다.

(18ㄴ)에서 보듯이 문장 성분간의 결합도가 높아지면 단일한 단어 즉 합성어를 이루게 된다. ‘다’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쓰임과 뜻풀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9)ㄱ. 복만: 이거 무슨 소리야 프랑크. 국세청이라도 뜨면 다된 밥에 코 빠트릴수가 있어.
 ㄴ. 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ㄷ. 노의 도움 없이도 내쳐 한참을 저절로 미끄러지던 힘이 다하는 자리에서 뗏목은 비로소 멈췄다.

- (20)ㄱ. 다-다르다. ㉠【…에】「1」목적한 곳에 이른다. ㉡능득하다01. ㉢기나긴 항해 끝에 우리는 드디어 보물섬에 다다랐다. 「2」어떤 수준이나 한계에 미치다. ㉣선수들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다드르다<다돈다<석상><←다+돈->】
 ㄴ. 다-되다 ㉤「1」완전히 그르친 상태에 있다. ㉥다된 집안
 ㄷ. 다-죄다 ㉦【…을】다잡아 죄다. ㉧헐거운 나사를 다죄다
 ㄹ. 다-하다 ㉨【1】「1」어떤 것이 끝나거나 남아 있지 아니하다. ㉩그들은 적군의 군량이 다하기를 기다렸다. 「2」어떤 현상이 끝나다. ㉪겨울이 다하고 봄이 왔다./벌써 방학이 다해 간다. 【2】【(…을)】부여받은 수명 따위가 끝나거나 또는 일생을 마치다. ㉫할아버지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고향을 그리워하셨다. 【3】【…을】「1」어떤 일을 위하여 힘, 마음 따위를 모두 들이다. ㉬최선을 다하다/선수들은 전력을 다해서 싸웠다. 「2」어떤 일을 완수하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다/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늘 부끄럽다. 【<다하다<석상><←다+ㅎ->/다하다<석상>】

‘다다르다, 다되다, 다죄다, 다하다’는 부사 ‘다’와 서술어 ‘다르다, 되다, 죄다, 하다’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어원 정보에 따르면 ‘다다르다, 다하다’의 경우 ‘다+돈다, 하다’로 분석되며, 이때 ‘다’는 “모두, 온갖”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이로 보건대 수식하는 말과 서술어가 통사적으로 자주 결합하고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전하게 되면서 단일한 어휘 항목(표제어)이 되어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합성어와 긴밀한 구성을 이루는 것은 ‘다’의 기본 의미인 “모두, 온갖”이며, 사전에서 단일한 합성어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단일한 어휘 항목처럼 쓰이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2. ‘안’의 기능 및 함축의 다층성

문장에서 수의적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다’와 달리 ‘안’은 서술어, 동사구 혹은 다른 문장

21) 이은섭(2013)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정위치가 어디인지 당최 아득하기만 했다’와 같은 문장이 부정문이나 반어적 서술문, 그리고 수사 의문문과 같이 부정의 의미를 함축하는 문장 형식이 아님에도 부정 극성 성분과의 공기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주체의 평가’로 설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이은섭(2013:145)을 참고하라.

성분을 부정하는 관계로 생략되면 문장이 전하는 의미가 달라져 생략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필수부사어로 보아야 한다. 통사구조에서 필수적 성분 이외에 그것은 서술어, 동사구, (21c)에 서처럼 다른 성분 부정과 함께 접속 기능을 (21ㄷ)에서 볼 수 있다.

(21)ㄱ. 또 다른 예는 8 개의 여왕 말을 표준 체스 판에 배열하는데 어떤 한 여왕 말이 다른 여왕 말을잡을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를 위해서는 같은 행이나 열혹은 대각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여왕 말이 놓여져서는 안 된다.

ㄴ.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체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 부정을 통한 강조

ㄷ.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건만 얼마 안 가서 그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였다. 이 타락한 창조 질서를 구원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개혁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더불어 교회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강조'의 함축

ㄹ. 과거에는 양반 중인 등 지식층에게만 국한되었던 신앙의 씨가 신유 박해 후에는 무식 대중, 일반 서민, 가난한 농부, 상인, 관직을 가진 자 안 가진 자, 남녀의 구별 없이 널리 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반의적 명사구 접속

통사적으로 '안'이 부정, 접속의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후행어와 함께 혹은 반어적 의문문에서 '강조', 의문문에서 '허락을 위한 요청, 의향 질문, 권유, 완곡한 부정'의 함축을, 명령문에서 '명령'의 함축을 가짐을 (22)에서 볼 수 있다. 최근 구어에서 나이 많은 발화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동년배에게 '안+서술어의 명령형(안 와!!)'의 형태로 발화자2의 다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명령'을 전하기 위해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2)ㄱ. 이것이 모두 다 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특수한 서법과 공기

ㄴ. 여러 번 말했는데, 뜻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만큼 노력했는데, 일이 안 될 리가 있어요?

ㄷ. '내 말이 그 말 아니가. 그래 에미 꼬라지가 그러이 자식 앞 길 막고이자는 지도 진주서는 위 자리에 앉는 몸이니 남사스럽다 안 그카나?'

반어적 강조

ㄹ. '그 일이사 한참 전의 일이었제. 그래서 기성 할배가 몽둥이 들고 아들 직인다고 야단이 안 났더나?'

일어났다. 반어적 강조

(23)ㄱ. A1: 니가 정말 먼저 전화했어? B1: (고개 푹) A2:했어 안 했어?

ㄴ. A1(그런 재호를 부러운 눈으로 보며) 진짜 학생 같다. B1: (여전히 거울 보며) 그럼, 학생이 학생 같지, 양아치 같을까. A2:야, 나 니네 학교 놀러 가면 안 되냐? 소년원 갔다 온 후로 학교라곤 근처도 못 가봤다. 구경 시켜줄 거지?

허락의 요청기능

ㄷ. A1: (머뭇대는)저 아무래도 이 교수님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럼 안 되죠? 신형, 이상하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현수, 그런 신형 보다, B1: 언니, 지금 무슨 생각해?

- 의향 물음

ㄹ. A1: 넌 축구 안 해(≒ 하니)? B1: 전 축구 싫어해요. A2: 그럼 뭐 좋아해? 운동 중에서.

- 권유의 기능

ㅁ. A1: 어색하긴, 덕에 남편두 밖에 나가면 재밌게 놀 거 아뇨. B1: 서선배 남편 되시는 분은 안 그럴걸요? C1: (피식 웃으며 잔을 들고 세경을 본다) 아직 모르는구나?

- 완곡한 부정 함축

ㅂ. 옥림: (도망치며) 엄마 정말 나 아니라니깐. 나 아냐. 나 못믿어. 나 엄?마 딸 옥림이야! 엄마: (쫓아가며)일루 안 와!! 니가 했던 거 아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 명령형으로 주로 쓰임

‘안’의 다양한 함축은 기본적으로 선·후행어와 의문문, 명령문을 포함한 통사적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함축에 따라 문말 억양이 달라진다. 즉 ‘의향 물음’일 때 ‘안’에서 높았다가 하강한 후 다시 중간조의 문말억양으로 끝나고(23ㄷ), ‘부정’ 함축일 때 문말 억양이 내려가며(23ㄹ), ‘강한 명령’일 때 ‘안’에서 낮았다가 문말에서 상승조로 끝나는 특징을 보인다(23ㄴ).

3.3. ‘다, 안’의 품사 처리 및 사전적 기술 방향

서상규(2014:150-51)에 따르면, ‘다’는 부사가 192의 텍스트에서 1260번 출현하여 ‘다’의 전체 빈도에서 99.4%를 차지하였고, 명사로는 21개의 텍스트에서 45번, ‘이다’의 여기로는 5개의 텍스트에서 5번 출현하여 전체 빈도에서 3.6%를 차지하였다. 빈도 확인 작업의 정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다’는 주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4)ㄱ. [목숨 가진 것은 다]_{NP} 죽게 마련이다. (278회 22.1%)
 - ㄴ. [(모든 일) 다]_{NP} 잘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21회 1.7%)
 - ㄷ.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이들) 다]_{NP}들 그 사람을 싫어해. (21회 1.7%)²²⁾
 - ㄹ. 그게 [(운 몸) 다]_{NP} 아프질 않으니까 그래. (1회 0.1%)

- (25)ㄱ. 책에 있는 정도는 나도 다 알아. (465회 36.9%)
 - ㄴ. 시장하던 참이라 다라도 먹겠다. (45회 3.6%)

위 (24ㄱ-ㄹ)의 ‘다’를 다른 의미항목으로 구분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이 경우 ‘다’는 주어 명사와 함께 명사구를 형성하며, 그것은 주어를 한 단위로 묶는 기능을 하면서 그것의 숫적 명세를 하는 수사(양화사)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다.²³⁾

기능뿐만 아니라 활용과 분포에서 위 ‘다’는 부사(25ㄱ)와 명사(25ㄴ)의 중간적 상태를 보인다. 즉 (24)의 ‘다’는 한편으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 곡용을 하지 않는 측면에서 부사와 유사하나 그것이 명사 다음에 바로 인접하면서 선행어와 재구화되어 명사구를 이룬다는 측면, 그리고 “모든 존재나 일, 부분”을 지시하는 면에서 명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품사 분류에서 부사와 명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조사 결합 유무라면 수사(양화사)적인 용법의 ‘다’ 역시 부사적이고 명사적인 특징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사인가? 명사인가? 전체 말뭉치에서 ‘다’의 출현 빈도, 그것의 활용과 기능 및 의미의 동일성을 고려한다면 위 (ㄱ-ㄹ)의 ‘다’는 하나의 품사 즉 부사로 처리하면서, 단일한 의미 항목으로 기술하되, 그것이 갖는 함축 의미는 맥락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²⁴⁾

22)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다.”처럼 가산성의 명사라도 특정한 상황이 전제되지 않을 때는 ‘들’이 붙을 수 없다(고명근 외 2011:94-96). 부사는 본래 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들’이 결합할 수 없지만 위 (24ㄷ)에서 ‘다들’이 가능한 것은 그때 ‘들’이 특정한 상황에 쓰인 주어가 복수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들’이 주어가 복수인 것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들’이 ‘다’에 결합한 것을 볼 때 ‘다’가 주어에 대한 서술과 양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겠다.

23) 서상규(2014:150-151)에서 (24ㄱ-ㄹ)의 ‘다’를 다른 의미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김홍범 외(2001)에서 부사의 서술성으로 인한 조어법 상의 특성을 기술한 바 있다.

24) ‘대박, 완전’처럼 명사에서 부사로 그 쓰임(기능을 포함)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상당 기간 ‘대박, 완전’에 대한 쓰임의 고찰이 선결되어야 한다. ‘대박’의 출현 및 쓰임의 변화에 대한 것은 조민정(2016)의 다른 논의를 참고하라.

위와 같은 쓰임 외에도 ‘다’가 다른 단어와 함께 긴밀한 구성으로 쓰이는데, 그러한 예로는 ‘다 갔다, 다 그렇지 뭐, 다 끝나다, 다 되다, 다 마찬가지로, 다 마치지 못하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다 말아 먹다, 다 망했다, 다 같다= 다 매한가지다, 다 뭐야(뭘니까, 무어요, 뭤란 말입니까), 다 받았다(못 받는다), 다 소용없다, 다 썼다(수단을, 방법을), 말 다 했나?’ 등이 있다. 이때 ‘다’가 이루는 구성은 특정 시제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유형(‘다 갔다’)과 ‘다 뭐야’와 같은 특정 활용형이나 특정 서법(‘말 다 했나’는 의문형)으로 쓰이는 유형으로 나뉜다. 특정 사용역에서 고유한 활용형으로 쓰이면서 제한된 의미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쓰임이 가능한 이유는 ‘다’가 다양한 의미 영역을 포괄하여 화자가 대상에 대해 다양한 태도 및 함축을 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26)ㄱ.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는 36 회에 단 한 번씩 쌍육이 나온다는 법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것을 주사위가 하느님의 뜻에 의하여 구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주사위가 번번이 쌍육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ㄴ. "잘못된 일을 한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로이며 잘못을 저지른 자를 고소하는 일이 경건한 일입니다."
- ㄷ. "주인 양반이 아니고 부인이랍니다." 다 매한가지가 아니요. 명복을 빕니다."

다음으로 “무엇의 내부”라는 ‘안₁’과 “어떠한 생각이나 견해”의 ‘안₂’를 제외한 부정부사로서의 ‘안₃’은 188개의 텍스트에서 1946회 출현하여 전체 출현 빈도(2733회)에서 71.6%를 차지하였다. 이를 볼 때 ‘안’이 주로 부정부사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정의 ‘안’이 의문형과 명령형과 함께 ‘강조, 선택, 요청, 권유’ 등 다른 함축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이 다른 함축을 전하기 위해 의문형과 명령형에서 쓰이는 것은 ‘공손의 원리’와 화·청자의 변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다, 안’이 다양한 함축을 가지며, 그것이 해석되는 맥락에는 언어적 맥락 이외의 다양한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맥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를 통해 살펴보자.

- (27)ㄱ. '에미 꼬라지가 우때서요? 살림사는 지어미가 기생도 아니겄고, 핵교 선생님도 아니겄고 가 축 안 하믄 다 그렇지요.' 의미 파생
- ㄴ. A1: 아빠가 잘못하신 거예요-. B1: (힐끔) A2:나라면 그렇게 안했을 거예요.

위 (27)에서 ‘다 그렇지요, 그렇게 안 했을’의 내용은 위 발화가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과 화자의 판단과 기대치를 포함한 언어적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관계로 ‘다, 안’의 해석을 위한 맥락은 통사구조를 포함한 문법적 지식, 대화 상황 및 언어적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일반적 지식까지 포함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다’와 ‘안’은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이들이 포함된 문장의 중의성은 각기 다른 층위에서 즉 ‘다’가 가진 다층적인 성질과 ‘안’의 작용역(scope)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먼저, ‘다, 안-서술어’ 구성이 통사적으로 느슨한 자유결합부터 공고한 결합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 경우 ‘다, 안’이 수의적인 성분, 필수적인 성분, 그리고 합성어까지 다양한 구성을 이룸을 보았다. 그렇다면 필수적인 성분으로서 ‘다, 안’은 결합 제약에서 긴밀하여 생략이나 어순교체를 허용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의미변화를 보여 의미상 한 덩어리처럼 기능함을 살펴보았다.

■ 참고 문헌

- 강범모(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남기심(1985/2011),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구본관(2004), 중세국어 ‘X-하+-어’의 부사 형성,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105-134쪽.
- 구종남(2009), 화용론적 가정과 부정극어,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학회, 5-26쪽.
- 국립국어원(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
- 김선희(2002), 부정 양태 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 『한글』 256, 한글학회, 69-98쪽.
- 김영란(200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화용 정보 ‘무엇’,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9-72쪽.
- 김진해(2000), 『연어 연구』, 한국문화사.
- 김홍범·박동근(2001), 신문기사 제목에 쓰인 상징어의 분석, 『배달말』 29, 배달말학회, 53~70쪽.
- 김홍범·박동근(2013), 일상생활에서 명사로 쓰이는 상징어의 활용 양상, 『나라사랑』 122, 외솔회, 117-138쪽.
- 박종갑(1987), 『국어의문문의 의미기능 연구』, 흥문각.
- 서상규(2014), 『한국어기본어휘 의미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 손근원(2004), 한국어 부정대극표현의 유형에 대하여, 『언어연구』 19.3, 한국현대언어학회, 1-18쪽.
- 신서인(2010), 부사성 명사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191-234쪽.
- 이선웅(2014), 한국어 명사류어의 명사성 검증, 『어문연구』 42.1, 한국어문회, 37-62쪽.
- 이숙의(2016), 부사성의 강화와 부사화, 『부사의 의미론』, 제38차 한국어의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어의미학회, 132-143쪽.
- 이영제(2014), 명사류의 명사성 정도와 형태정보 상실의 과정, 『제21차 한국어문법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문법교육학회, 1-12쪽.
- 이은섭(2013), 의미의 대립 관계와 부정 극성 성분의 공기 현상에 대하여, 『제33차 한국어의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어 의미학회, 137-149쪽.

- 이익섭(1985/2000), 『국어학개설』, 학연사.
- 이익환(1995), 『의미론 개론』, 한신문화사
- 임소영.안주호(2003), 대학생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어휘 연구, 『한국어 구어 문법 기술을 위한 기초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3-22쪽.
- 임채운(2009), 반의관계와 문장의미 형성-형용사, 동사 반의관계 어휘의 공기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 의미학회, 231-256쪽.
- 임홍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국립국어원, 72-99쪽.
- 장영준(2006), 척도이론과 부정극어의 생성, 『부정과 부정어』, 한국문화사, 163-183쪽.
- 조민정 외(2006),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민정(2015나), 기능과 긴밀도에 따른 부사 처리 방안 모색, 『한말연구』 36, 한말연구학회, 191-219쪽.
- 조민정(2016가), 부사의 비대칭적 사용 양상 연구-‘막, 좀/이렇게, 그렇게’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2, 한국어 의미학회, 163-195쪽.
- 최형용(2009), 국어의 비접사 부사 형성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2.1, 한국정신문화연구소, 3-26쪽.
- 한 길(2012), 정도부사 ‘훨씬’, ‘가장’, ‘더/덜’의 용법, 『인문과학연구』 3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83-204쪽.
- 한정한(2008), 품사로서의 명사와 통사범주로서의 명사,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회, 427-451쪽.
- 한정한(2009),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 34.3, 한국언어학회, 761-788쪽.
- 한정한.도은희(2010), ‘조차’, ‘까지’, ‘마저’의 텍스트 의미, 『한글』 290, 한글학회, 231-290쪽.
- Bach, K.(1981), “Escaping the Speech Act Dilemma”, 『Analysis』41.3, JSTOR Archive, pp. 146-149.
- Cruse, A.(2000),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Garside, R., Leech, G., McEnery, T.(ed 1997), Corpus Annotation, London & New York: Longman.
- Huang, Y.(2007), Pragmatics, 이혜윤 옮김(2009),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Jackendoff, R.(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Kroch, A.S.(1974), The Semantics of scope in English, Cambridge MA: MIT Ph.D. Dissertation.
- Quirk et al(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토 론

“다층적 부사의 사용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황화상(서강대)

부사 ‘다, 안’의 다양한 쓰임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를 ‘다층성’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적절하게 기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 안’의 필수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예문의 분석 및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한 질의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다, 안’의 필수성과 관련하여

1) ‘다, 안’이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 문장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다, 안’의 필수적 쓰임과 관련하여 “생략되면 원래의 문장과 다른 의미가 된다.”, 혹은 “서술어의 의미상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기술은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필수성에 관계없이 생략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문장에 쓰이는 모든 성분들이 마찬가지이며, 의미를 보충하는 것은 모든 수식어가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달라지는 의미’의 질적 차이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몇몇 예들에서는 ‘다’가 필수적으로 쓰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를테면 (6ㄷ)에서 ‘다’는 필수적 부사어인가?

2) “‘안’은 ‘-으면, -어서는 ~ 되다’와 결합 제약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2ㄷ), (3ㄴ)에서 ‘안’은 이와는 다른 문맥에서 필수적으로 쓰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것과 아닌 것이 구별되는지 궁금하다. 구별된다면 다시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그 기준의 문제가 생긴다.

2. 예문의 분석 및 해석과 관련하여

1) (10ㄷ)에서 ‘다’가 중간값을 함축한다고 했는데 이때에도 ‘다’는 최대치(회원 전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0ㄷ)이 중간값을 나타내는 것은 ‘다’와 ‘않다’의 상호 작용에 따른 의미 해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2) (13ㄷ), (21ㄷ)에서 ‘안’이 선행행어를 접속한다고 했는데 접속되는 것은 각각 ‘되다’와 ‘안 되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아닌지?

3) (15ㄴ)에서 ‘안’은 ‘긍정의 함축’을 갖는지? ‘일이 될 리가 있어요?’는 ‘부정’을 함축하므로, ‘안’이 긍정을 함축한다면 결국 (15ㄴ)은 ‘부정’을 함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현황 및 분석

-한국어 교재의 관계절 출현을 중심으로-

박철웅(한국외대)

< 차례 >

1. 서론: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본론
 - 2.1. 태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
 - 2.2.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계절 기제
3. 태국 내 한국어 교육교재 현황과 분석
4. 결론

1. 서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계절은 서로 다른 어순에 의해서 태국인 학습자들이 복문을 구성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복문을 익히기 어려운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문 자체의 구조가 복잡하여 언어 발달의 단계에 있어서도 가장 나중에 습득이 되는 문장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문법 항목으로 학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되는 문장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실제 의사소통에서 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필영, 임유종(2003)에 의하면 유아의 언어발달은 체언 습득 및 구조화 시험기->용언 습득 및 단순문 구성기-> 어미 확장 및 복합문 출현기로 나눌 수 있고 대략 12개월 전후에 시작되어 22-23개월에 각 영역의 출현을 관찰 할 수 있다고 기술했고 그 중 내포문은 22개월 이후에 발견되는 복합문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달하는 문장형식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성지현(2010)에 의하면 모국어의 습득시 순서가 그대로 외국어 학습시에도 적용되어 복문은 가장 나중에 배울 수 있는 복잡한 문장 형식이라 기술한다.

둘째, 한국어 복문 학습의 어려움은 학습자와 모국어와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어순 차이로 인한 보편적 특성에 의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화자로 하여금 목표언어를 어렵게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관계절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연구로써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관계절 항목의 순서를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의 유효성 정도를 통해 나타나는

위계가 일치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에 태국어 관계절 기제와 한국어 관계절 기제에 대해 제시하고 한국어의 관계절과 태국어의 관계절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2. 본론

2.1. 태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10만7199명 중 23.3%(2만5021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2012년 부터 태국 중,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울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특히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2017년부터 태국 대학입시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 시험과목으로 채택이 되었고2011년부터 태국 전역60개의 공립 고등학교에 한국어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매년60명의 한국어 교원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대학교는 총7곳이다.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태국 남부 땃다니에 위치한 송끌라 대학교로1986년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초기 교육 과목으로 서울대학교 출판의 『한국어1, 한국어2, 한국어3』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후 촌부리에 위치한 부라파대학교가1995년에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했고2003년 썰라빠껌대학교가 한국어를 전공으로 개설하였다. 이후2005년 방콕 소재 시나카린위롯 대학교와 마하사라캄대학교, 2006년 북부의 라차팻 치앙마이대학, 2007년 나래쑤언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전공으로 개설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논문들이 최근 다양한 주제로 쓰여지고 있으며 국내의 태국인 한국어 연구자들 뿐 아니라 한국인 연구자들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다양한 목적에 의해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인이 많지만 특히 대학에서 수학하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급 표현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2.2.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계절 기제

한국어와 태국어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다른 언어로 분류가 되는데 한국어는SOV유형의 언어이며 핵어명사가 뒤에 위치하는 언어로 수식어에 해당하는 관계절이 핵어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태국어는SVO유형의 언어로 관계절의 핵어명사가 한국어와는 반대로 앞에 위치하며 관계절은 뒤에 위치한다.

다음 표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언어권별 관계절 특성을 나타낸다.

<표 1> 한국어와 태국어의 언어권별 관계절 특성

	한국어	태국어
어순	SOV	SVO
Rel N/N Rel	Rel N	N Rel
관계표지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계 대명사
격표지	조사	어순으로 결정

이를 문장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는 어제 태국 사람을 만났다. + 그 태국 사람은 아주 친절했다.

<나는 어제 태국 사람을 만난> 태국사람은 아주 친절했다.

<내가 어제----- 만난>+태국 사람은 아주 친절했다.

(2) เมื่อวัน ผม เจอ คนไทย + คนไทยนั้น เป็น ใจดี มาก

<어제 나 만나다 태국 사람> +< 태국 사람 그 이다(계사) 친절한 아주>

<เมื่อวัน ผม เจอ คนไทย> คนไทย ที่ เป็น ใจดี มาก

<어제 나 만나다 태국 사람> 태국사람 관계대명사 이다(계사) 친절한 아주

<เมื่อวัน ผม เจอ--->คนไทย ที่ เป็น ใจดี มา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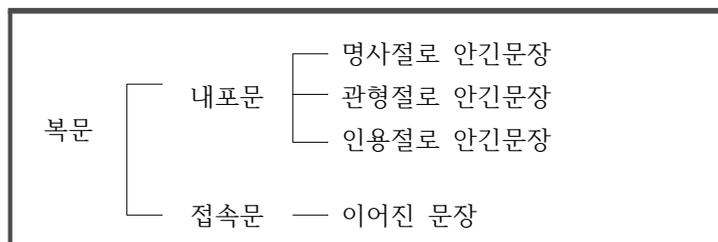
<어제 나 만나다--태국사람 관계대명사 이다 친절하 아주>

2.2.1. 한국어 관계절 기제 양상

한국어의 관계절은 복문의 한 종류로서 내포문에 해당하는 문법항목이다.

김지혜(2009)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에서의 복문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¹⁾

<표 2> 복문의 분류



본 고에서는 내포문 중 관형절로 안긴문장을 위주로 태국인 학습자가 관형절을 구성 할 때 모국어와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통해 교재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관형절로 안긴 문장은 문장의 서술어에 관형사형 어미'(으)ㄴ, -는, -(으)르, -던'을 취하여 구성이 되고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1) 김지혜(2009)에서는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내포문 분류를 나누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문장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를 구성하였다.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관계 관형절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한국어의 관계화는 핵어명사와 격조사가 함께 삭제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관계절과 모문의 동일한 핵어명사가 삭제된 후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인 'ㄴ, (으)ㄴ, 던, -(으)ㄹ'이 사용된다.

<표 3>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²⁾

구분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단순과거 완료	회상	추측	의지
동사	-는	-(으)ㄴ	-던	-(으)ㄹ	(으)ㄹ
형용사	-(으)ㄴ	--			--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 형용사가 결합하면서 시제와 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선행 용언이 형용사일 때 과거형에서 단순 과거나 완료를 나타내지 못하며 의지도 나타내지 못하는 결합 제약이 있다.

위의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는 한국어의 관계절 표지로서 자립성이 없는 문법 형태로 나타나며 관계절과 핵어 명사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계절의 표지는 시제와 상을 포함하며 한국어 관계절이 태국어의 관계절 표지와 분류되는 특징이다.

한국어의 핵어명사 관계화 가능 계층에 대해 Keenan & Comrie(1977)은 한국어가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소유격에 이르기까지 관계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견해에 따라 한국어 관계화의 가능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관계화의 가능 위치>

- 1) 주어
남자가 꽃을 사다 → <꽃을 산> 남자
- 2) 직접 목적어
내가 책을 읽었다. → <내가 읽은> 책
- 3) 간접 목적어
내가 아이에게 과자를 주었다. → <내가 과자를 준> 아이
- 4) 전치사의 목적어
우리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 <우리가 저녁을 먹은> 식당
- 5) 소유격
남자의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 → <아내가 사고를 당한> 남자

2.2.2 태국어 관계절 기제 양상

태국어의 관계절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관계절 내의 동일 명사구를 삭제하고 관계대명사 'ที่, ๗๓, ๗๓' 을 사용한다. 관계대명사는 관계절의 앞에 위치하고 관계절과 핵어명사를 이어 주는 기능만 담당한다. 여기서 태국어는 시제나 상을 표현하지 않는다.

2) 우형식(2012) 참조.

일반적으로 시제와 완료상까지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태국어는 시제, 상, 서법 등이 발달하지 않아 문맥에 의존해 시제를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태국어의 경우 핵어명사 삭제, 인칭대명사의 대응가능, 관계대명사, 사용 전략을 모두 따른다.

태국어의 핵어명사 관계화 가능계층에 대해 Gass(1980)는 간접 목적어 까지 핵어명사의 문법적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다. 예는 아래와 같다.

<태국어 관계화의 가능 위치>

<p>1) 주어 ผู้ชาย ซื้อ ดอกไม้ → ผู้ชาย ที่ ซื้อ ดอกไม้ 남자 사다 꽃 → 남자 관.대 사다 꽃</p> <p>2) 직접 목적어 ผม อ่าน หนังสือ → หนังสือ ที่ ผม อ่าน 나 읽다 책 → 책 관.대 나 읽다</p> <p>3) 간접 목적어 ผม ให้ ขนม เด็ก → เด็ก ที่ ผม ให้ ขนม 나 주다 과자 아이 → 아이 관.대 나 주다 과자</p>
--

태국어의 관계화 가능 계층은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로 한국어에 비해 기능이 적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관계 관형절을 구성 할 때 전치사의 목적어와 소유격 관계화의 구성을 어려워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는 명사구 접근가능성 위계(NPAH) Keenan&Comrie(1977)에 의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명사구 분포의 특성을 연구하여 접근가능성 계층을 제시함으로써 관계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들이 제시한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는 아래와 같다.

<Accessibility Hierarchy : AH(Keenan&Comrie, 1977,p. 66)>

<p>주어(SU) > 직접목적어(DO) > 간접 목적어(IO) > 전치사의 목적어(OBL) > 소유격(GEN) > 비교급의 목적어(OComp)</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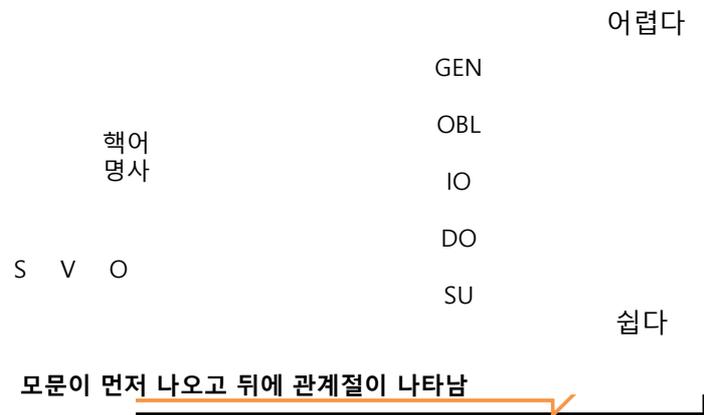
이러한 계층은 명사구에 따라 분류가 될 수 있으며 일정한 함축적(implicational)위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함축적 위계란 어떤 언어에 전치사의 목적어(IO)가 존재하면 그 언어는 위계상 주어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렵게 습득이 된다는 것으로 왼쪽이 무표적(unmarked)으로 습득이 용이하고 오른쪽이 유표적(marked)으로 학습자들이 습득이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관계절에서의 핵어명사를 처리할 때 더 단순한 과정을 따르게 되지만 관형사형 어미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계절 산출과 이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태국어의 핵어명사 관계화 가능 계층에 대해 Gass(1980)에 따르면 태국어는 간접 목적어 기능 아래에 위치하는 핵어명사의 문법적 기능의 관계화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태국어가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까지 관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 유형적 유표성과 관계절 습득 순서와 관련돼 무표적인 위치로의 접근이 더 용의할 가능성과 전치사의 목적어와 소유격의 관계화에서 태국인 학습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NPAH에 따른 태국어 관계화 순서와 난이도



위의 그림은 관계절이 주어일 때 가장 쉽게 학습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관계절이 목적어일 때 가장 어렵게 접근을 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한선경(2016)³⁾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인 학습자들은 직접 목적어가 관계절에서 나타날 때 주어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하거나 나타냈지만 주어 관계절과 직접 목적어 관계절의 오류 분포가 그리 크지 않고 자유 조어인 주어 관계절의 오류가 직접 목적어 관계절 보다 낮아 명사구 접근 위계에 크게 벗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표는 태국인 학습자가 선호하는 관계절의 순서에 부합할 수 있다.

3. 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의 관계절 분포

<태국 내 한국어 교재 분류>

대학명	교재명	급수		
		초급 (1,2학년)	중급 (3학년)	고급 (4학년)
마하사라캄 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1A-4B』	『서강한국어 1A-2B』	『서강한국어 3A-3B』	『서강한국어 4A-4B』
라차팻치앙마이 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한국어 문법』	『경희한국어 문법1-2』	『경희한국어 문법3』	『경희한국어 문법4』
시나카린위룻 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어1-3』	『서울대한국어 1-2』	『서울대한국어3』	-
송끌라 대학교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6』	『재미있는 한국어1-3』	『재미있는 한국어 3-4』	『재미있는 한국어 5-6』
부라파 대학교	여러 교재 사용			
쉴라빠껌 대학교	교사 자체 제작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내포문에 해당되는 관계 관형사절을 교육하는데 있어 그 체계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각 표현 항목들의 난이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제시하고 배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각의 의미와 사용을 고려하여 알맞은 주제와 기능에 따라 나누어 교육하고 있으며 각 형태소가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쓰이는 어휘 등과 결합시켜 표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의 한국어 교재의 관계절을 분석할 때 그 체계가 어떻게 잡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교재를 통해 관계절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을 어떤 순서로 학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교재는 서강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의 서강한국어1A에서 6B, 서울대학교 언어 교육원에서 출판한 서울대 한국어교재는 ‘한국어1, 2’권은 초급, ‘한국어3, 4’권은 중급, ‘한국어5’권은 고급에 해당하며 총5권으로 되어 있다.⁴⁾

고려대학교에서 출간한 한국어교재는 ‘재미있는 한국어 1,2’권은 초급, ‘재미있는 한국어 3,4’권은 중급, ‘재미있는 한국어 5,6’권은 고급에 해당하며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태국에서 시나카린 위룻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문진미디어

위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교재들 중 초급과 중급에 주로 속해 있는 문법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는 '(으)ㄴ, 는,(으)ㄴ, 던'으로 분석을 하려고 한다.⁵⁾

	형태	단계	단원	구조	제시단어 예
경희한국어 문법	(으)ㄴ	한국어 문법2	5과	상태동사 'ㄴ'	리사가 예쁜 모자를 썼어요. 호세가 재미있는 책을 읽어요.
	는	한국어 문법2	6과	동작동사 '는'	왕밍이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려요.
	(으)ㄴ	한국어 문법2	8과	동작동사 'ㄴ'	어제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으)ㄴ	한국어 문법2	9과	동작동사 'ㄴ'	내일 다음 학기에 공부 할 책을 살 거예요.
서울대	-(으)ㄴ	한국어2	3과	V-(으)ㄴ	친구에게 쓴 편지를 부치려고 해요. / 어제 본 영화는 재미있어요.
	-던	한국어3	20과	V-던N	많이 듣던 노래 / 우리가 살던 집
고려대	-는/(으)ㄴ	재미있는 한국어2	3과	V-는/(으)ㄴ	바람이 부는 날씨를 좋아해요.
	-(으)ㄴ	재미있는 한국어2	7과	V-(으)ㄴ	양복을 입은 사람이 영진씨예요.
	-던	재미있는 한국어3	9과	V.adj. 'N+이다'+던	유치원에 다니던 애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어요?

교재의 관형절 순서는 보통 주어 관계절이 먼저 제시된 후에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관계절이 함께 제시되고 일부 교재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도 함께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관형절을 학습 할 때 가장 용이하게 생각되는 주어 관계절을 시작으로 어려워하는 소유격 관계절까지 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듯 하지만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는 고급으로 갈수록 오류가 많이 일어난다.⁶⁾

이는 아래의 표에 나타나는 교재의 관계절 구성 비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조수현(2010)에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5)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재는 주로 초,중급 교재에서 제시된 교재를 사용했는데 이는 문법 항목으로 기재가 된 교재를 위주로 분석을 하기 위함이고 경희한국어 문법과 서울대, 고려대에서 출판한 교재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사용하는 자체교재는 다양한 교재에서 추출한 교재들과 자체제작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획득이 용이하지 않아 제외했다.

6) 한선경(2016)에 의하면 조사결과2학년의 경우 관형사형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3학년은 가장 적은 오류율이 나타났으며4학년의 경우3학년 보다 많은 관계절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고급으로 갈 수록 관계절 문법의 규칙을 잇기 때문이라 예상했다. 이 결과는2학년과3학년은 숙달도별 관계절 습득 위계는'목적어>주어>부사'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4학년은'목적어>부사어>주어'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7) 조수현(2010)에서 분석한 교재는 경희대 한국어 초급1, 2, 서울대 한국어1, 2, 3 연세 한국어1, 2이다.

<표 4>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 구성 역할

관계절의 구성역할	빈도수(어절)	비율(%)
주절	81	65.3
직접 목적절	27	21.8
간접 목적절	3	2.4
보어절	6	4.8
부사절	7	5.7
총합계	124	100

이에 한국어 관계절을 교수하는데 있어 언어 유형론적 유효성의 결과만으로 교재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드러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관계절을 학습하는 방법적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중심의 교수방안은 Vanpatr(1996)이 제안한 입력이 수용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양상과 관련되는데 입력처리 과정의 원칙은 인지적 양상과 문장 수준 양상으로 나뉜다. 인지적 양상과 관련한 입력처리 과정의 원칙은 학습자가 형태보다 의미를 먼저 입력처리 하기 위해서 문장의 주요한 의미를 이루는 문법이나 어휘를 먼저 처리한 후 의사소통 가치가 있는 문법 형태와 의미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 제안에 따라 태국인 학습자의 관계절 산출과정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태국인 학습자의 관계화 산출과정

(1) 중요한 내용어 탐색<- 핵어명사와 어순파악
(2) 어휘항목 탐색(동일한 단어 발견)<- 핵어명사처리
=>관계화 필요인식
(3) 의사소통 가치가 있는 문법 형태 탐색<- 관형사형 어미 결합
=>관계화 과정 수행

위 표에서 첫번째 단계는 핵어명사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계로 동일한 핵어명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학습자들이 핵어명사를 인식(발견) 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단계는 관계절 내 핵어명사는 삭제되고 비어 있다는 표시를 해 줌으로써 관계절 내에서는 핵어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에 모문의 핵어명사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어 모문의 핵어명사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관계절을 핵어명사 앞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의 가치가 있는 문장을 생성해 나가는 연습을 한다면 초급 뿐 아니라 고급 학습자들도 핵어명사의 문장 성분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최근 의사소통 중심, 과제중심 교수법을 통한 언어의 유창성을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정

확성의 부재로 인해 학습자로 하여금 고급 표현이나 정확한 한국어 사용의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 정확성을 배제한 교육은 아니기에 문법 교육과 문법 항목의 제시가 다시금 대두 될 수 있었고 한국어 교육 역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문법을 너무 강조하여 자칫 문법 번역식 교수가 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유창성과 정확성을 고려한 교재와 교수법의 발달은 다양한 특수 목적의 학습자들이 목적에 맞는 유창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명사구 접근가능성 위계(NPAH) Keenan&Comrie(1977)에 의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명사구 분포의 특성을 통해 태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계절 구조 위계인SU>DO>IO>OBL의 순서를 교재에 대입하여 교재의 관계절 항목 순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태국인어와 한국어의 유형적 차이로 인한 학습자의 모국어에 영향을 받은 핵어의 위치오류를 구조중심 교수방안에 넣어보았다. 관계절은 이러한 유형적 차이에 인한 오류 뿐 아니라 시제나 상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도 중요하게 발생하는데 이 연구는 차 후 연구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성수, 김선정(2010), 명사구 접근가능성 계층(NPAH)의 유효성 정도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 『한문연구』 63, pp.33-36.
- 김지혜(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내포문 연구, 『한국어 교육』 20-1, pp. 45-67.
-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민명숙(2010),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관계절 습득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길섭(2012), 『한영 대조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절 교수방안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 미(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대현(2008), 『입력강화를 통한 한국어 문법 형태 습득 및 본문 이해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선경(2014),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계절 습득 연구』, 부산외국어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raidi, S. M.(1999), The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Syntax, Arnold Publisher.(최숙희, 김양순역(2001), 『제2언어 통사론 습득』, 동인.)
- Prajuap Yinsen(2000), 『한국어와 태국어의 문장구조 대조분석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논문.

▣ 토 론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현황 및 분석”에 대한 토론문

정대현(협성대)

이 연구의 목적은 명사구 접근 가능성 이론을 바탕으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학습의 난점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는 데 관계절 학습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절 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논문을 잘 다듬고 발전시키면 태국인 학습자의 관계절 학습에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논문의 제목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현황 및 분석’인데 이 제목만 놓고 보면 태국인을 위한 전용 한국어 교재가 연구 자료로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제목을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현황 및 분석’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이 연구의 핵심은 한국어 관계절과 태국어 관계절의 관계화 정도에 차이로 인해서 태국인 학습자가 관계절 학습에 어려움이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전치사의 목적어, 소유격의 관계화가 가능하지만 태국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이 논문은 관계절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명사구 접근가능성 위계가 나오는 하단 부분에 ‘관형사형 어미의 특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관형사형 어미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계절 산출과 이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하고 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를 언급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연구와 관계절에 대한 연구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은 구별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연구하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표]가 보이지를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넷째, 한국어교육에서 보편적 교재를 만들 때 특정 언어를 고려하고 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VanPattern(1996)의 입력 처리 교수는 형태초점 교수의 한 방법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구조중심의 교수 방안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표 5>는 관계화 산출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입력과 산출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부 <30주년 기념 특강>

언어 연구의 두 관점,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권재일(서울대)

< 차 례 >

1. 언어 연구의 두 관점
2.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언어 연구
3. 20세기의 언어 연구
4. 한국어 연구와 언어 연구의 두 관점
5. 한국어 연구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1. 언어 연구의 두 관점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어진 현상에 대한 수집·관찰이 첫째 단계이며, 수집·관찰된 자료에 대한 분석·기술이 둘째 단계이다. 셋째는 그 현상에 대한 해석·설명 단계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언어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언어와 관련한 여러 현상들에 대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며, 이를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언어학이 지향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런데 언어를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자료를 검증하는 접근 방법이다. 전자를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의 접근 방법이라 하고, 후자를 이성주의(다른 용어로, 합리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의 접근 방법이라 한다.

서양 철학에서 경험주의란, 실증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지식의 기원을 경험에 두는, 경험적 인식을 절대시하는 사상을 말한다. 경험주의에 따르면, 개념의 의미는 그것이 실제적인 경험과 연결되었을 때만 파악될 수 있으며, 어떤 명제의 정당성은 반드시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 근대 경험주의 철학의 선구자는 17세기 영국의 베이컨(F. Bacon)과 로크(J. Locke) 등이다. 베이컨은 참다운 학문은 경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절대시하였다. 로크는 감각은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백지와 같이 아무 것도 없는 마음에 여러 가지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경험이라고 하였다. 그의 경험론적 철학체계는 버클리(G. Berkeley) 흄(D. Hume)에 영향을 주었으며 프랑스의 실증론, 유물론에도 영향을 끼쳤다. 교육학에 있어서는 코메니우스(J. Comenius) 루소(J. J. Rousseau) 페스탈로치(J. Pestalozzi) 등이

경험주의 관점에 서 있다.

이성주의란 이성이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가능한 한 자연 이성에 의해 인식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이성주의는 본능이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지니는 사고, 이성에 근거하여 논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논증적 지식을 중요시한다. 대표적인 이성주의 철학자는 프랑스의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이다. 감각적 경험주의를 경시하고 수학적 인식을 원형으로 하는 논증적 지식을 중시한다. 이러한 견해는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데카르트는 수학 추론을 모델로 하여 생득관념에서 논증된 지식만이 진리라고 하며, 이성적인 사고에 의한 인식만이 진리를 보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그 후 스피노자(B. De Spinoza), 라이프니츠(G. W. Leibniz), 볼프(C. Wolff) 등의 철학자로 이어졌다.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귀납적인 방법에 속한다. 이에 비해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언어 현상을 설명하고 언어의 본질, 언어능력을 밝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연역적인 방법에 속한다. 언어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이러한 두 연구 방법은 서로 순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언어 연구

2.1.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

고대 그리스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언어의 기원에 대한 문제, 언어의 본질에 대한 문제, 단어 및 문장 구조와 문법범주에 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언어학자들의 관심 분야는 어원론, 본질론, 문법론 등이었다.

그리스 시대 초기에는 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언어의 본질은 무엇이며, 언어의 문법 구조는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언어학의 연구 방법으로 본다면 이성주의에 입각한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행해지면서 경험주의에 입각한 방법론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언어의 본질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졌다. 언어의 본질이란 언어 기호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 요소인 개념과 형식, 즉 뜻과 말소리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이 두 요소가 맺어진 관계가 필연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의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20세기 구조주의 언어학자 소쉬르가 논의한, 바로 언어기호의 시니피에(개념)와 시니피양(청각영상)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언어 본질에 대한 논의는 이성주의에 입각한 연구였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는 그 이후 스토아학파(Stoic School,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학파(Alexandria School, 기원전 2~3세기)로 계승되었다. 이 두 학파는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를 계승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철학 사상과 문학 사상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알렉산드리아학파에 이르러서는 경험주의에 입각하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의 중심은 점차 문헌 언어를 정밀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예를 들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문헌학적으로 기술하려 하였다

2.2. 고대 로마 시대의 언어 연구

전반적으로 로마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답습하였다.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면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 접촉했던 초기부터 그리스인들의 우월성, 예술적 업적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로부터 문자도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 예술을 받아들였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의 언어 연구는 그리스의 언어 연구를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철학적인 사색에 의한 연구보다는 문헌 연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로마 시대 언어 연구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 문법을 라틴 문법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에 있었다.

로마 시대의 언어 연구는 앞 시대의 스토아학파와 알렉산드리아학파의 연구를 충실히 따랐다. 그래서 주로 문법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로마 시대의 문법 연구가 그리스의 문법 연구 대상과 방법을 따르게 된 것은 우선 비교적 두 언어의 구조가 비슷했고 또한 로마가 그리스 문명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로마 시대의 문법 연구는 규범적이고 교육적인 문법을 형식화하였다는 점이 그리스 시대의 문법 연구와는 다른 점이다. 로마 시대의 규범적이고 교육적인 문법은 중세 시대의 문법 교육과 연구의 표준이 되었고 나아가 오늘날 전통문법 및 규범문법의 기반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로마 시대의 언어 연구는 그리스의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 방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 방법으로 전환되었다고 하겠다.

2.3. 중세 시대의 언어 연구

유럽 역사에서 중세 시대란 통일된 문명과 막강한 행정력을 가진 로마제국이 무너진 시기로부터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전기 중세 시대는 12세기 이후의 후기 중세 시대와는 달리 암흑기라 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기 중세 시대에는 언어 연구 역시 발전이 없었으나, 후기 중세 시대에는 언어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

후기 중세 시대로 오면서 문법의 논리화가 논의되었다. 라틴어에 입각하여 보편문법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언어 요소의 결합에 논리 법칙을 반영하려 한 것이다. 스콜라 철학자는 언어 현상 속에 논리적 판단이 직접 반영되고 있음을 보였다. 언어 연구에서 이러한 논리적 방법론은 근대 르네상스 시대의 언어 연구, 특히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로 계승되었다.

2.4. 근대 시대의 언어 연구

서양의 16~18세기의 철학 사상은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대립이라는 특성을 보였고, 두 사상 속에서 언어 연구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경험주의는 부분적으로 중세 사상인 기존의 스콜라 철학 사상에 대항하면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철학 사상으로서의 경험주의는 특히 영국에서 발전하였다. 베이컨은 지식은 관찰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서 연역과 대립되는 귀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나아가서 로크, 버클리, 흄 등이 경험주의의 철학 사상을 완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근대 시기에 이르러서

모든 언어는 그 자체가 고유한 구조를 지닌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개별언어에 관심을 돌렸다. 로마 시대 이래 라틴 문법 하나를 표준으로 삼아 다른 모든 개별언어를 기술하여 왔으나, 이제는 개별언어를 직접 관찰하여 그 언어 고유의 문법을 기술하는 데에 이르렀다. 자연과학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언어 연구에서 문법은 자연과학에 대한 논문과 비견될 수 있다는 의식이 일어났다. 또한 영국을 중심으로 구어 자료에 관심을 가지면서 음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대립하는 철학 사상이 이성주의이다. 데카르트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성주의의 철학 사상을 펼쳤다. 이성주의자들은 지식의 확실성을 인간의 이성에서 찾았다. 인간의 감각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생득 관념에 관한 것이다. 로크, 버클리, 흄은 어떤 관념도 경험 이전에 인간의 정신 속에 심어져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데카르트를 비롯한 이성주의자들은 생득 관념을 우리 지식의 확실성의 기초로 간주하였다.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중세 스콜라 문법을 계승하였지만, 이성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데카르트이다. 그는 직접 언어 이론을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후대 언어 학자들에게 방법론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한 점에서 데카르트는 근대 시대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에 공헌한바 크다고 하겠다. 언어의 보편성과 보편문법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의 본성에 대한 연구로서 근대 시대의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프랑스의 포르루아얄(Port-Royal) 수도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였다. 포르루아얄수도원은 1637년에 세워진 종교교육기관으로서 1661년 정치적, 종교적 분쟁 때문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은 교육 사상에서 지속되었고 문법 분야에서 그들의 업적은 18세기 이성문법, 일반문법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창한 문법 이론을 포르루아얄 문법이라 한다. 문법학자 랑슬로(Claude Lancelot)와 철학자 아르노(Antoine Arnauld)가 1660년에 《일반이성문법》(Grammaire générale et raisonnée)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이는 데카르트 사상을 계승하여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보편문법을 확립한 문법서이다. 문법을 논리와 관련하여 연구하며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였다. 이 문법 이론은 18세기 이성문법 연구의 표준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대립 관점은 인간 정신이 외부적으로 지각되는 자료의 수동적인 수용자인가, 아니면 능동적인 참여자인가에 관한 것이다.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언어를 외부로부터 관찰된 사용법, 즉 유명한 작가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화자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것이라면,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인간의 천부적 재능으로서 그리고 이성의 발현으로서 내부로부터의 인간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2.5. 19세기의 언어 연구: 비교언어학, 훔볼트의 언어철학

19세기 언어 연구의 특징은 첫째는 연구 대상으로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연구 방법으로 비교방법이 발달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넷째는 심리주의 언어관에 입각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19세기의 언어학의 연구 대상의 특징은 구체적 언어 사실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18세기와는 달리 19세기 초에는 구체적인 언어 자료가 언어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었는데, 이렇듯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심과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19세기 언어학의 전반적인 특징이었다.

이 때문에 언어의 논리 구조를 보편적으로 추구하려 한 18세기의 학문적 전통은 단절되었다.

둘째, 19세기 언어학의 연구 방법의 특징은 비교방법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19세기 초부터 비교언어학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학자들은 주로 인도유럽어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언어학을 연구하였다. 우랄어족, 알타이어족 아시아아프리카어족 등에 대해서도 당시 알려져 있었으나, 그들 어족의 친근 관계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비교방법이 가장 발달한 것은 1870년대, 젊은이문법학파가 언어 연구를 주도했을 때였다.

셋째, 19세기 언어학은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19세기 초부터 언어 연구에 있어서 역사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로맨스언어 연구에서 출발한다. 로맨스언어들의 뿌리인 라틴어가 문헌 자료로 알려져 있었던 것은 역사적 연구를 하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부의 젊은이문법학과 활동 시기에는 역사주의가 언어학의 확고한 바탕이 되었다.

넷째, 19세기 언어학은 심리주의적인 언어관에 입각하였다. 18세기 언어학의 주류는 논리학적 언어관이었는데 19세기 언어학의 주류는 심리학적 기준을 도입하는 언어관이었다. 언어학에서의 심리주의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언어학의 기본 개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비교언어학이 경험주의에 입각하였다면,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의 일반언어학 및 언어철학은 이성주의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겠다. 언어의 창조적인 면에 대한 관심에서 훔볼트는 언어를 예르곤, 즉 문법학자의 고정되고 죽은 기술이 아니라, 에네르게이아, 즉 화자-청자의 언어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생각에서 각 언어의 음성 구조, 어휘 구조, 문법 구조를 결정하는 언어 형식의 개념, 즉 내부언어형식을 주장하였고, 또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와 같은 언어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언어는 개인과 민족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내적 완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 20세기의 언어 연구

3.1. 20세기 언어학의 성격

일반적으로 20세기 언어학을 구조주의 언어학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의 변형생성문법도 구조주의 이론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20세기 초기에서 변형생성문법 이전까지를 구조주의 언어학이라 한다. 20세기 언어학이 성립한 배경을 언어학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언어학적 배경으로, 19세기 언어학의 특징인 역사주의와 문헌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학적 배경에 따라 언어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통시적 연구와 함께 공시적 연구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언어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결과, 구조주의 언어학이 탄생하였다. 다양한 언어 구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유형론이 발전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었다.

둘째는 사상적 배경으로, 과학주의와 인식론의 발달에 힘입어 대상을 일반화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으로 언어 연구 방법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언어 연구 방법은 체계화의 방법, 추상화와 일반화의 방법, 언어 기술의 간결성, 엄밀성, 일관성을 강조하는 객관화의 방법, 인접과학과의 협동 연구의 방법을 추구하였다.

어떤 현상 안에서 특정 요소는, 각각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웃하는 다른 요소들과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전체를 형성한다. 이를 구조라 한다. 언어를 구조체로 파악하는 방법론을 구조주의 언어학이라 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성립되었다.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1916년)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20세기 학문과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언어란 체계이며, 체계로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언어란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 현상인데, 이것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를 명확하게 구별하였으며, 언어를 기호의 일종으로 보고 기호 자체에도 관심을 가졌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크게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나뉜다.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제네바학파, 프라하학파, 코펜하겐학파를 포함한다. 제네바학파는 언어의 정서적 요소에 대한 연구,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라하학파는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관심을 가진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현대 음운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코펜하겐학파는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호논리학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과는 별개로 발전하였는데, 기술언어학이라고도 한다.

3.2. 경험주의: 미국의 기술언어학

기술언어학은 경험주의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다. 기술언어학은 문화인류학 연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메리카 토착인 문화를 연구하는 데서 그 방법론이 확립되었다. 미국 인류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토착인들의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들 문화에 대한 연구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언어를 우선 관찰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를 분석하여 그 언어의 구조를 기술하는 방법이었다.

결과적으로 기술언어학 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낯선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기술하는 것이 중심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귀납적이고 철저히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에 언어의 음성부터 분석하여, 음운 체계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형태소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문장 구조를 기술하였다. 따라서 철저히 층위적인 연구 방법이 또한 성립되었다. 그 결과 음운론과 형태론 연구는 그 방법론이 확립되어 주요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으나 통사론에 대한 방법론은 거의 확립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연구 방법이 철저히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되거나 배제되었다. 연구 대상을 문법론에만 국한하여 보면 형태론 연구는 문법 연구의 중심 분야가 되었지만, 통사론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인 기술언어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언어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여 기술한 것은 언어학사에서 대단히 큰 성과라 평가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언어 연구의 대상이 근본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소리와 형식에 국한되어 음운론과 형태론 연구에 머물렀다. 따라서 통사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의미 연구는 배제되었다. 기술언어학은 과학으로서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개입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둘째, 언어 자료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강조한 결과 언어 현상에 대한 언어학적인 설명, 해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기술언어학의 연구는 물리적 자료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각 개별언어의 특유한 개별적 언어 구조의 기술이 중심이 되었다. 기술언어학은 개개의 언어 사실의 목록과 분포 양상을 제시하는 데에 그쳐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은 밝혀낼 수 없었다.

셋째, 낯선 언어를 연구할 경우, 그 언어의 역사를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술언어학에서는 공식적인 연구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통시적인 연구, 즉 언어사의 연구가 대단히 소홀히 되었다.

기술언어학의 가장 큰 이론적 한계는 언어의 객관적인 기술에 치우쳐 언어의 본성인 인간의 언어 능력을 해명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문장 구조와 문장의 의미 해석을 위한 이론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귀납적으로 자료의 분포 분석과 분류 방법으로는 이론적인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다다른 기술언어학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것이 촘스키(Avram Noam Chomsky)이다. 그는 스승 해리스(Zellig Sabbettai Harris)와 함께 언어의 기술 방법을 연구하고 점차 수학적 방법과 생성적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담하게 언어학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등장하였다.

3.3. 이성주의: 변형생성문법 이론

20세기 후반의 미국 언어학은 변형생성문법 이론으로 대표된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학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언어학계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다른 분야 학문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촘스키는 분포 분석 방법으로 언어를 기술하는 것과 언어를 음성 형식으로 보고 언어를 기술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분포 분석 방법을 더욱 정밀화하여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언어 이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것은 자료 중심에서 설명 중심으로의 태도의 변화였다. 언어의 표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문장의 형성 과정과 그 규칙을 해명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촘스키는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확립하여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기술언어학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기술언어학 이론과는 이론적인 배경,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모든 것이 대조적이다.

첫째,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목표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밝히기 위한, 즉 언어능력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 낼 능력이 있으며, 인간은 무한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유한한 규칙을 습득한다. 그러한 능력이 바로 언어능력이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비록 그 방법론의 변모를 여러 차례 거듭하여 왔지만, 이론의 이러한 목표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둘째,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통사론 중심의 이론이다. 기술언어학 이론은 방법론의 성격 때문에 통사론 이론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사론 중심의 언어인 영어의 문법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통사론 중심의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특징은 통사론 중심의 이론이 되었다.

셋째,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가설-검증적인 이론이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언어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논리의 방법이다. 따라서

더 나은 가설과 검증 방법이 제시된다면 이론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그간 수없이 변모해 온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수리-논리적인 방법론이다. 언어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수리-논리적인 방법이다. 논리가 대상을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다.

변형생성문의 가장 큰 의의는 현대 언어학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언어학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컴퓨터과학, 자연과학, 뇌과학 등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변형생성문법은 언어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스콜라 문법에서 시작하여 데카르트를 거쳐 포르루아알 문법학자들에게 이어진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19세기 비교언어학과 20세기 초 기술언어학에서는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에 밀려났다. 그러나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의 한계가 극에 달하면서, 즉 언어 연구가 언어의 본질 규명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던 시점에, 촘스키는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의 방법을 부활시켜 언어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로 시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가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생성문법 이론 역시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지나친 이론의 추상화도 문제가 되었으며, 통사론을 강조하여 언어능력의 주요한 부분인 의미론과 화용론에 대한 논의가 소홀히 된 점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촘스키의 언어능력에 관한 관점과 언어의 창조성에 관한 개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촘스키의 언어능력에 관한 개념은 문법에서 사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영역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언어능력이 사회언어학적 관점과 화용론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어의 창조성 역시 촘스키가 언어를 정신적인 것으로만 이해한 결과 사회적 현상이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4. 한국어 연구와 언어 연구의 두 관점

현대 한국어 연구에 직접, 간접 영향을 미친 외래의 언어 이론은 경험주의에 입각했던 기술언어학 이론과 이성주의에 입각했던 변형생성문법 이론이다. 이제 이 두 이론과 한국어 연구, 특히 한국어 문법 연구에 대해 살펴보자.

4.1. 기술언어학 이론과 경험주의

한국 언어학계는,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광복 이전에 일본의 언어학계를 통해 간접 수용하였다. 소쉬르의 언어학 이론이 한국 언어학계에 깊이 뿌리내린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광복 이전의 이러한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의 수용과는 달리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 즉 기술언어학 이론의 수용은 광복 이후 미국 문화의 수용과 함께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어 연구는 이론적으로 미국 언어학 이론에 치우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술언어학 이론에 의한 한국어 문법 연구의 남긴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론 중심의 문법 이론을 확립하여 한국어 문법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국어는 주로 문법형태에 의해 문법범주가 실현되기 때문에, 형태소의 정밀한 형태 분석을 토대로 형태소의 성격, 형태소의 결합 관계, 형태소의 문법기능 등을 밝혀 기술하려 한 기술언어학 이론에 입각한 연구는, 한국어 특성을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한국어 문법 연구를 이론문법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전통문법에 입각한 연구가 그 성격상 다분히 규범문법적이었는데 비하여, 기술언어학 이론은 이론문법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한국어 문법 연구도 규범문법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이론문법으로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셋째, 기술언어학 이론은 자료-중심적인 귀납적인 연구방법론에 힘입어 문법 자료를 정확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기술하게 되었다.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중요한 문법형태소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술언어학 이론의 수용을 통하여 자료에 대한 정확한 기술 태도를 확립한 것은 한국어 문법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기술언어학 이론이 한국어 문법 연구에 남긴 문제점은 이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 형태론 중심의 기계주의적인 분석에 연구가 머무르고 말았다. 따라서 통사론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언어 자료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강조한 결과 언어 현상에 대한 언어학적인 설명, 해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셋째, 공시적인 연구방법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문법의 통시적인 연구, 즉 문법사의 연구가 대단히 소홀히 되었다.

4.2. 변형생성문법 이론과 이성주의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수용은 한국어 문법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수용이 한국어 문법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 방법의 관점과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

먼저 연구 방법의 관점이다. 첫째,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설명 중심의 연구방법론을 확립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데 비하여,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수용하면서는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술한 언어 현상을 가지고 이론화하려는 연구방법을 확립하였다.

둘째, 언어보편성의 이해에 기여하였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언어의 보편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수용하면서 언어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아울러 언어 유형론도 함께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어 문법의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다음에는 연구대상의 관점이다. 첫째, 통사론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었던 통사론 연구에 관심을 높이고, 문장구조를 이론에 입각해서 기술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사 현상들을 발굴하여, 통사론 연구를 문법 연구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둘째, 통사론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통사 현상 가운데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했던 현상을 찾아 연구를 심화시켰다.

셋째, 의미론의 연구를 촉진시켰다. 형태소의 의미 기능이든, 문장의 의미든, 의미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의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수용에 따라 의미에 대

한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한국어 문법 연구에 남긴 문제점 역시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방법의 관점이다. 첫째, 변형생성문법 이론 자체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론의 맹목적 추구는 이론 자체의 결함까지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일일이 들지는 않겠지만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 그리고 대상론의 결함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를 남겼다.

둘째, 언어보편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언어보편성 이론이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각해서 한국어의 문법 특성이 소홀히 되는 연구가 만연되었으며, 보편성을 추구하다가 지나친 일반화의 방법론이 대두되었다.

셋째, 가설-검증적, 수리-논리적 방법론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론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서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피상적인 적용, 적용상의 오류가 있었다. 이론적 검토 없이 규칙과 원리를 설정하여, 문장구조와 의미구조를 설명하려 하였다.

다음에는 연구 대상의 관점이다. 첫째, 형태론이 경시되고, 통사론에 지나치게 치우친 연구가 되었다. 기술문법 이론에 힘입어 한국어 형태론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이 확립되고, 마침내 한국어 형태론의 연구가 막 꽃을 피우려는 시점에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바람이 불어 닦쳤다. 그 결과 한국어 형태론의 지위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을 통사론, 의미론, 음운론으로 삼았다. 그래서 형태론을 연구할 이론이 변형생성문법 틀 속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형태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자료에 대한 분석, 기술에 지나지 않고, 통사 현상에 대한 연구만이 문법 현상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분명히 형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사 현상으로 혼동하여, 형태 현상마저 모두 통사 현상으로 대상을 삼은 연구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문법형태소의 결합 제약을 연구하는 것조차 통사론 이름 아래 두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 생성형태론이 등장한 후부터 형태론은 주로 단어구성론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둘째, 특정 주제에 한정되어 연구하였다. 문법 전반의 체계가 고려되지 않고, 특정 과제에만 한정되어 연구되었다. 이것은 이론이 내적 요구에 의한 수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특정 과제에만 한정된 연구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셋째, 문법 변화의 연구가 위축되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수용되면서 통시적인 연구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자료의 문법성 판단을 직관에 의존하는데 문헌 자료는 직관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 물론 변형생성문법 이론 자체가 통시적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한국어 연구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20세기 언어학은 언어 구조에 대한 공시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기술언어학 이론과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거치면서 언어 구조에 대한 연구가 크게 발전하였다. 음운 구조, 의미 구조, 문법 구조(형태, 통사)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연구 방법이 혁신되었다. 기술언어학 이론은 경험주의의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였으며,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이성주의의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다시 경험주의에 입각한 연구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계량

적 방법에 바탕을 둔 사회언어학, 언어유형론이 그 예이고, 언어 구조를 연구하는 데에 말뭉치 언어학이 널리 활용되는 것도 그 예이다. 최근 들어 컴퓨터의 저장용량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말뭉치언어학은 경험주의의 언어 연구 경향과 빅 데이터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중요성과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언어능력보다는 언어수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보편문법 못지않게 언어의 개별 기술에 관심이 높아졌다.

인류가 언어에 관심을 가진 이래, 이렇듯 경험주의 연구관과 이성주의 연구관은 순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둘은 순환하거나 어느 한 가지를 지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공존하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언어 사실을 기술하는 경험주의의 관점도 존중되어야 하며, 언어능력을 해명하려는 이성주의의 관점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대한 연구는 언어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일에 기여하며, 새로운 이론은 언어 사실을 기술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어 연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법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한국어 연구가 외래 이론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연구 방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은 전통의 계승·발전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국어 연구 방법은, 외래 이론은 비판적 수용으로 극복하고, 우리 학문의 전통을 계승하고 창조하는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 방법론과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 방법론의 균형과 조화 가운데서 한국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범모(역)(2007), 언어학의 역사, 한국문화사. (Robins, R. 1997,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4th ed.), Longman, London).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권재일(근 간), 언어학사 강의, (주)박이정.
- 김방한(역)(1982), 언어학사, 형설출판사. (Ivic, M. 1965, Trends in Linguistics, Mouton & Co., The Hague).
- Allan, K.(2013),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제3부 <30주년 기념 학회사>

한말연구학회의 정신과 걸어온 길

조오현(건국대 명예교수)

< 차례 >

- I. 들어가기
- II. 창립, 재발족, 발전
- III. 외연 확대
- IV. 평가와 과제

I. 들어가기

한 교수의 한글 사랑 정신과 국어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교수의 유지를 이으려는 제자들의 노력, 그 제자들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노력이 결합되어 오늘의 한말연구학회를 이루었다. 한말연구학회의 걸어온 길을 보면 스승의 강의에 매료된 제자들이 스승의 사후에 강의노트를 깎고 더해 스승의 이름으로 <일반언어학 강의>를 출판함으로써 구조주의를 뿌리내렸던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제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II. 창립, 재발족, 발전

1. 창립과 창립 정신

창립은 1986년 4월 19일 고 김윤학 교수가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전공 학생들과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가운데 국어학을 좋아하던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의 성격이었다. 한말연구학회의 창립정신은 <한말연구> 1권에 실린 김승곤 회장의 -<한말연구>를 펴내면서-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한말연구모임은 1986년 4월 19일 고 김윤학 교수가 한글전용 운동을 적극 지지·추진함과 아울러 우리말·글 연구를 하기 위하여 뜻이 있는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 및 대학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립되었던 것인데...

창립할 때의 한말연구모임은 학회라기보다는 일종의 국어운동 모임이고 스터디 모임의 성격

을 띠고 있다. 아쉽게도 당시 기록은 없지만 초기의 모임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나뉘어서 월례발표회를 갖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윤학 교수께서 돌아가시고 “한말연구모임”은 수년간 휴면상태로 들어갔다.

2. 재발족

1992년 여름 방학에 김용경 교수(당시는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가 찾아와서 동료 교사가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얻었다면서 양평 중미산 아래에 있는 한화콘도(당시는 명성콘도)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으니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임이 한말연구학회를 다시 발족시킨 모임이 되었다.

<1차 모임>

- 때 : 1992년 여름
- 곳 : 양평 한화콘도(당시 명성콘도)
- 참석자 : 교수 - 김승곤, 권재일, 이근영, 전정예, 조오현
대학원생 - 김용경, 박동근, 장숙영, 김준희, 방운규, 서은아 등 17명
- 일정 :
제 1일 - 오후에 명성콘도에 모여 콘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발표회를 열다.
발표회를 마치고 뒤풀이를 하다.
제 2일 - 아침 식사 후에 회의를 열다.
- 결의 내용 :
1. 모임을 정례화 하는데 모임의 시기는 여름으로 한다.
1. 내년(1993년) 모임은 이근영 교수가 근무하는 대진대학교에서 개최한다.
1. 내년(1993)년 모임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있는 선배들도 모두 참석시킨다.

<2차 모임>

- 때 : 1993년 8월 14~15일
- 곳 : 대진대학교
- 참석자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 대부분 참석함.
- 일정 :
제 1일 - 오후에 대진대학교에 모여서 발표회 가짐, 발표회 끝나고 이근영 교수의 안내로 대진대학교 캠퍼스를 구경했다. 저녁에 산정호수에 있는 국민관광호텔(현 산정호수 가족호텔)로 옮겨서 숙박하다. 호텔 마당에서 소고기를 구워먹으며 회식하다.
제 2일 - 아침에 일어나 일부는 명성산에 올랐다가 내려왔고 아침 식사 뒤에 총회 열다.
- 결의 내용 :
1. 앞으로의 모임은 동문들이 교수로 있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갖는다.
1. 내년도 모임은 최윤현 교수가 근무하는 강원대학교에서 갖는다.

1. 학회를 개최하는 학교나 교수는 학회를 후원한다.
1. 모임의 정례화를 위해 회비를 징수하는데, 교수들은 10만원으로 하고 회원들은 2만원으로 한다.
1. 앞으로의 모임은 “한말연구모임”을 계승한다.
1. 임원회의를 구성하다. 회장 : 김승곤(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총무이사 : 권재일(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이사 : 최남희(동의대학교 교수), 재무이사 : 최윤현(강원대학교 교수), 홍보이사 : 이근영(대전대학교 교수) 일반이사 : 이석규(경원대학교 교수), 조오현(건국대학교 교수), 감사 : 김선호(대전산업대학교 교수), 정동환(협성대학교 교수)
1. 회의 연락 장소는 조오현 교수 연구실로 한다.
1. 실무는 조오현 교수가 맡는다.
1. 학회의 정체성은 한글전용에 두고 정인승 선생의 학풍을 잇는다.

<3차 모임>

- 때 : 1994년 8월 20~21일
- 곳 : 강원대학교
- 일정 :
제 1일 - 발표회, 저녁 식사 뒤에 춘천 호반에 있는 콘도에서 회식.
제 2일 - 총회
- 결의된 내용 :
1. 회의에서 일반 이사의 수를 늘리기로 하고 김형춘(창원대학교 교수), 구현정(상명대학교 교수)을 일반 이사로 위촉하다. 간사는 박동근 교수(당시 박사학위 과정)
- 1. 내년에 학회지 창간호를 발행한다.
- 1. 학회지의 이름은 <한말연구>로 한다.
- 1. 내년(1995년) 모임은 김선호 교수가 근무하는 대전에서 개최한다.

<4차 모임>

- 때 : 1995년 8월 11~12일
- 곳 : 대전 무궁화관광호텔
- 일정 :
제 1일 - 학술 발표, <한말연구> 1호 출판 기념 모임. 호텔에서 숙박하며 회식하다.
제 2일 - 총회
- 결의된 내용
1. 내년(1996년) 모임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개최한다.

<한말연구> 창간호의 인쇄한 날과 발행한 날은 다음과 같다.

인쇄 : 1995년 6월 25일
발행 : 1995년 6월 30일

<한말연구> 창간호에 실린 논문의 지은이의 이름과 직함은 다음과 같다.

권재일 : 서울대학교 교수
김승곤 :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준희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과정
김형배 : 서울교육대학교 조교
리의도 :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박동근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과정
방운규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과정
이강로 : 한글학회 이사
전정례 : 건국대학교 교수
정영주 : 전 대신대학교 교수
조오현 : 건국대학교 교수
최남희 : 동의대학교 교수
허원욱 : 대신대학교 강사

※ <한말연구> 발행에 있었던 일화

<한말연구>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나는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생으로 국어학 전문 서적을 출판하는 신생 출판사 “박이정”의 박찬익 사장을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리고 <한말연구>를 “박이정”에서 출판할 계획인데 인세를 달라고 요구했다. 요구를 들은 박찬익 사장은 학회지에 인세를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나는 학회지를 간행하면 출판사는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 당시 ‘탐출판사’는 국어학회와 관계를 맺고 <국어학>을 출판했고 그 영향이 컸던 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제안이었다. 이 제안에 박찬익 사장이 동의함으로써 <한말연구>는 인세를 받으면서 출판하게 되었다.

첫째, 1,000부를 발행하고 인세는 10%로 한다.

둘째, <한말연구> 30부는 저자 기증본으로 하고 별쇄본은 각각 20부를 준다.

셋째, 200부는 책값의 70% 가격으로 학회에서 사준다.

넷째, 박이정이 판권을 갖고 판매 부수에 대해서 학회는 관여하지 않는다.¹⁾

다섯째, 출판사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입력과 편집은 한말연구학회에서 해 준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로 워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적어서 원고지로 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이 많을 때였다. 그래서 들어온 원고는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박동근 교수, 서은아 교수, 김준희 교수가 나누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입력한 원고는 박동근 교수가 편집을 해서 저자 교정을 본 뒤에 박이정으로 넘겼다.²⁾ 이렇게 해서 <한말연구> 창간호가 나오게 되었고 한동안 인세를 받으면서 출판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이정이 인세를 주면서 <한말연구>를 출판함으로써 한말연구학회는 출판비의 걱정에서 벗어나 <한말연구>를 출판하며 발전할 수 있었고 신생출판사였던 박이정도 홍보효과를

1) 당시는 학회지를 구입해서 보던 시기였다.

2) 당시 ‘도서출판 박이정’에는 편집 직원이 1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언어 성장할 수 있었다. 한말연구학회와 박이정의 협력 관계는 학계와 출판계가 협조하여 상생의 효과를 거둔 좋은 본보기였다고 생각한다.

<5차 모임>

- 때 : 1996년 8월 16~17일
- 곳 :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현, 글로컬캠퍼스)
- 일정 :
제 1일 - 발표회, 수안보로 옮겨 숙박하며 회식
제 2일 - 총회
- 결의 내용
6차(1997년) 발표는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한다.

<6차 모임>

- 때 : 1997년 7월 16일~17일
- 곳 :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 일정 :
제 1일 - 발표회, 친목회
제 2일 - 총회
- 결의 내용
1997년 발표부터는 연 2회로 한다.
교통을 고려해서 여름 발표는 지방에서 하고 겨울 발표는 수도권에서 한다.
7차 발표회는 안양대학교에서 한다.

<7차 모임>

- 때 : 1997년 11월 21일
- 곳 : 안양대학교
- 일정 :
제 1일 - 발표회를 마치고 총회를 연 다음에 해산하다.
(해산한 뒤에 안양 시내에 있는 여관에 모여서 1박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8차 모임>

- 때 : 1998년 7월 17일~18일
- 곳 : 경상남도 의령 소재 청소년 수련관
- 일정 :
1일 - 청소년 수련관에서 발표회와 총회를 하고 김승곤 교수의 한빛재에서 자다.
2일 - 대절한 관광버스로 귀경한 뒤에 해산하다.

<9차 모임>

- 때 : 1999년 7월 17-18일
- 곳 : 춘천교육대학
- 일정 :

제 1일 - 춘천교육대학교에서 발표회를 마치고 강촌의 여관으로 이동하여 친목 행사를 하다.

제 2일 - 화천, 양구로 오면서 관광하다.

※ 10차 모임 이상은 생략함(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3. 발전을 위한 노력과 희생들

1) 재정

학회로서의 면모를 하나하나 밝아가고 있었으나 시급한 것은 재정이었다. 당시 회원들의 연회비는 2만원이었고 건국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된 사람들은 10만원의 찬조금을 내어 운영했지만 회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발표 자료 복사비와 교통비 기타 경비를 제하면 항상 부족했고 통장에는 잔고가 1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 학회이다 보니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학술연구재단)에서 주는 출판지원비나 학술대회 지원비는 아예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³⁾ 학회의 실무를 맡았던 나는 박동근 간사와 20만원의 기금만 있어도 좋겠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일이 자체 수익 사업이었고 학회로써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은 책을 만들어서 인세를 받는 일이었다. 그 첫 번째 기획물이 <우리말 연구> 총서였다.

㉠ <우리말 연구> 총서 5책 엮음

<우리말 연구> 총서는 <우리말 음운 연구>, <우리말 형태 연구>, <우리말 통어 연구>, <우리말 의미 연구>, <우리말 역사 연구> 등 5책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회원들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나 새로운 원고를 모아서 책을 엮었고 원고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인세를 받지 않고 모두 학회에 기증한다는 내용을 미리 단서로 달았다. 1996년 6월 19일 <우리말 형태 연구>, <우리말 음운 연구> 2책이 발행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월 10일 <우리말의 음운 연구>를 끝으로 5책이 완간되었다. 각 책 모두 1,000부씩 발행해서 받은 인세는 당시로서는 꽤 많은 4백 7십만 원이었다.

<우리말 연구> 총서 5책 발행은 학회의 기금을 마련해서 학회의 미래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 부수적으로는 회원들의 연구 업적을 늘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논문을 게재할 곳이 마땅치 않던 박사학위 과정에 있던 회원들은 <한말연구>를 통해 연구실적을 높일 수 있었다. 박사학위 과정에 있던 회원들이 이 책의 공동 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원고를 쓰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책은 학회의 기금을 모은 일보다 젊은 회원들에게 연구 의욕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더 큰 효과라 생각한다. <우리말 연구>

3) 실제로 몇 번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하고 2002년에야 비로소 전국 학술대회 개최 지원 대상 학회로 선정되었다.

총서 5책 간행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효과는 아직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말연구학회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점과 연구자들의 서재에 한말연구학회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책들이 꽃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㉞ <국어사강독선> 간행

<우리말 연구> 총서 다음으로 계획된 것이 <국어사강독선> 발행이었다. 마침 나는 1990년에 건국대학교에 부임해서 ‘국어학 연습’의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고가 연구: 양주동>, <이두사전: 장세경>을 요약하고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노걸대연해>, <박통사연해> 등 국어학 자료들을 시기별로 모아 해설을 붙이고 엮은 뒤에 복사하여 교재로 활용하고 있었다.

처음 강의 자료를 엮을 때의 계획은 몇 년간 강의를 하면서 깊고 더해서 개인으로 책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회의 기금도 필요했고 원생들에게 연구 의욕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학원생들을 모아 내가 해설한 자료를 나누어주고 나누어준 자료를 깊고 더해서 학회의 이름으로 책을 내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원생들이 좋아하며 참여했다. 뒤에 최남희 교수가 고대 국어 부분을 맡아서 새로 원고를 제출함으로 이 일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이 책의 발행으로 학회는 백 수십만 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국어강독선>의 발행은 학회의 기금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원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책을 내었다는 자부심도 심어주었다. 또 이 분야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던 시기에 학부생들에게 강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국어사강독선>이 발행된 이후 이와 비슷한 책들이 다른 학자들에 의해 많이 출간되었다.

㉟ <컴퓨터통신언어사전>

문화체육부의 모 간부가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다. 나는 흔쾌히 수락하고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한 동안 지나서 지방을 여행하고 있던 나에게 그 관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문화체육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 하나를 줄 테니 3,000만 원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였다. 나는 급히 박동근 교수(당시에는 글을 쓰는 이와 연구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에게 전화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다. 그 때 박동근 교수는 컴퓨터 통신언어 어휘집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 관리에게 전화했더니 지난해에 채택된 주제와 같아서 힘들다면서 다른 주제로 하면 어떠냐고 했지만 나는 통신언어는 매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집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설득했다. 그리하여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고 연구비를 받을 수 있었다.

연구를 마치고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하자 그 관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년도에는 몇 페이지의 결과물만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해서 문화체육부에서 모두 좋아한다고...” 나는 그러면 책으로 엮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국고의 지원으로 나온 연구 결과물은 모두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자료를 그냥 창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면서 인세는 책으로 받아 문화체육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리하여 인세의 일부는 책으로(100권으로 기억됨) 문화체육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인세는 한말연구학회의 기금으로 출연했다.

㊱ <토박이말 이름의 실태와 분석>

다음 해에 나는 그 관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구비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지난해에 주어서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다. 그러나 연구 계획서를 제출할 테니 심사나 해 달라고 부탁했다. 통상적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때 학교의 연구처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학회를 키우는 일이 더 급했던 나는 연구비를 학교를 통하지 않고 한말연구학회를 통해 신청했다. 그런데 발표를 보니 조오현, 김용경, 박동근 이름으로 신청한 연구 계획서가 또 채택되어 <토박이말의 가계이름, 땅이름>를 연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물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판했고, 인세를 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했다. 이 연구가 신문에 보도되자 일부 회원들은 개인연구단체를 결성했다느니, 학회의 연구비를 개인이 독식한다느니 하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학교의 연구처를 통해 연구비를 신청하면 학교의 평가에서도 유리하고 연구 간접경비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학회를 통해 신청했던 것은 그만큼 학회의 발전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또, 개인이 받아야 할 연구비를 기꺼이 한말연구학회에 제출해준 김용경 교수와 박동근 교수가 고마울 따름이다.

2) 학회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위한 사업

한말연구학회는 출발부터 한글전용을 추구하는 학회로 출발했다. 한말연구학회가 한글전용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은 ‘한말연구모임’이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학회를 창립한 김윤학 교수의 학문적 경향에서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건국대학교는 건재 정인승 박사께서 후학을 기르시던 배움터로 정인승 교수의 제자(이때 한말연구모임의 임원들은 모두 정인승 선생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고 김승곤 교수와 조오현은 정인승 교수의 지도 학생)이거나 제자의 제자들로 구성된 학회이다. 거기에 현재 한글학회 회장인 권재일 교수가 근무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런 학풍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글전용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전임 교수가 아닌 외래 강사 또한 한글전용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한글전용을 실천하는 분들이었다. 당시 외래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들은 허용, 김석득, 김계곤, 문효근 교수 등 모두 한글전용을 주창하시던 교수님들이었다.

건국대학교 국어학 전공의 문자관은 한글전용에 바탕을 두면서 정인승 선생의 학문에 주시경, 최현배, 허용의 학문적 이론이 배어난 곳이다. 이런 결과로 한말연구모임의 학풍도 자연스럽게 한글전용이라는 틀에 있었고 학문적 경향도 주시경, 정인승, 최현배, 허용의 학문적 이론을 바탕과 연결되어 있었다.

㉠ 건재 정인승 추모 학술대회 및 강연회(건국대학교)

1996년 10월은 건재 정인승선생께서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달이었다. 이에 우리 한말연구학회에서는 건재 선생을 추모하는 학술대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1996년 10월 18일 건국대학교에서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발표자와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구현정(상명대학교 교수) :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 연구

리의도(춘천교대 교수) : <의문·해설 한글 강화>의 내력과 그 내용
이강로(전 단국대 교수) : 사전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용기(국립국어원 연구관) : 건재 정인승 선생의 국어사랑 정신
조오현(건국대 교수) : 건재 선생의 생애와 사상

이 학술대회와 강연회는 한말연구모임이 최초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행사였고, 한말연구모임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치른 행사라는 의미를 지닌다.

㉠ <건재 정인승 전집> 출간

건재 정인승 선생은 1897년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나셨다. 1997년은 건재 선생께서 만 100세가 되는 해이고 정인승 선생 서거 11주년이 되는 해였다. 건재 선생은 기능주의 관점에서 학문을 연구하셨고 독자적인 이론을 많이 제창하신 분이다. 또한 건재 선생의 학문적 이론은 학교 문법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나라 국어문법교육에도 큰 족적을 남기신 석학이시다. 그러나 학문적 업적에 비해 평가는 빈약했다. 그것은 제자들에 의해 계승·발전되고 평가되던 학계에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건재 선생이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셨을 때 기자들마저도 취재할 곳을 몰라 한글학회를 찾은 다음에야 나한테 연락이 올 정도였다. 이제는 건재 선생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한말연구학회에서는 건재 정인승 선생의 유고를 모아 전집을 간행하기로 하고 문화체육부에 지원 신청을 했다.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이 되었지만 우리가 신청한 금액의 20%도 못 되는 280만원이 지원되었다.⁴⁾

지원은 받았으나 너무 적은 돈이 지원됨으로 인해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다. 신청 계획서에 조판을 새로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영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우선 가족을 대표해서 건재 선생의 손자이며 한말연구학회의 회원이기도 한 은광여자고등학교의 정진현 선생을 불러 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정진현 선생의 집에 가서 보관중이던 자료를 모두 가져왔고, 각종 일간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그래도 찾을 수 없는 자료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찾았다. 찾은 자료는 대학원생들에 실비를 지급하며 입력시켰고 영인할 자료는 정진현 선생과 함께 을지로에 가서 4도 분석으로 필름을 떼다. 출판사와의 계약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족을 대표하여 정진현 선생이 체결했다.

그런데 편집과 교정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던 마지막 단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3교가 끝나고 마지막 교정을 기다리던 중 출판사에서 그동안 작업한 파일이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는 다시 입력해야 했다. 문화체육부에 결과물을 제출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무리하게 출판했고 이 일로 인해 오타가 많이 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건재 정인승 전집>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1권 : 말본편1
- 2권 : 말본편2

4) <정인승 전집> 간행을 기획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원이 되면 학회의 기금에도 도움이 되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다.

- 3권 : 논문편
- 4권 : 물음과 대답
- 5권 : 옛글편
- 6권 : 국어운동사
- 7권 : 강의 노트

1998년 6월 29일 <건재정인승 전집> 완간을 맞춰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건재 정인승 전집>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에는 회원을 비롯해서 건재 선생의 유족과 한글학회 관련 인사들, 그리고 학과 교수들이 초청되었다. 많은 분이 축사를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허웅 한글학회 회장님의 축사다. 허웅 선생께서는 “정인승 선생은 글을 많이 안 쓴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7권의 전집이 나온 것을 보니 글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승이 돌아가신지 10년이나 되었고 세상에서 거의 잊혀져 가는데 그 스승을 위해 전집을 간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보통은 스승이 힘이 있을 때 잘 모시다가도 힘이 빠지면 찾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인심인데 이미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고 이제 세상에서 거의 잊혀져 가는 스승을 위해 전집을 간행한 점은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다.”

<건재 정인승 전집>은 우리 국어학계에 몇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어학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전집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제자들에 의해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 뒤에 일부 국어학자들의 전집이 간행되었지만 이는 모두 가족들이 간행한 책이고 제자들이 간행한 책은 아직도 없다.

㊤ <김윤학 교수 유고집> 출간

1996년 ‘한말연구모임’의 창설자인 김윤학 교수의 유고집 3권을 간행하였고, 그 인세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 석인 정태진 선생 추모 학술 강연회

1998년 석인 정태진 선생 추모 학술대회를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3) 기타 출판 기념회

한말연구학회는 한말연구모임을 모태로 발전한 학회다. 또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된 학회이다. 따라서 어느 학회보다 응집력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축하나 기념될 일이 생기면 꼭 챙겨주던 역사를 지녔다. 그 대강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 1992년 8월 30일 : 김승곤 교수 정년 기념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출판 및 봉정식
- 1996년 3월 22일 : 김승곤 교수 <현대 나라말본> 출판기념회
- 1996년 12월 20일 : 김승곤 교수 교회 기념 <한국어 토씨와 씨끝 연구사> 출판 및 봉정식
- 2002년 7월 20일 : 최남희·최윤현 교수 정년퇴임 기념 <우리말 은운 연구의 실제> 출판 및 봉정식

4) 한말연구학회가 빠른 기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한말연구학회는 역사에 비해 빠른 기간에 크게 성장한 학회다. 그 성장의 원동력을 추정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문들로 구성된 학회이기 때문에 참여율과 응집력이 강했다.

둘째, 학회가 출판한 기획출판물과 행사가 국어학계에 한말연구학회의 존재를 알렸다.

셋째, 기획출판물과 행사가 학회의 실적을 높여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홈페이지가 학회의 저변을 늘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한말연구학회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7년 4월 28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박동근 교수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학회의 소식(한말연구학회 뿐 아니라 다른 학회의 소식까지)은 물론 국어학 자료를 올렸다. 국어학 자료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국어학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한말연구학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다.

다섯째, 몇몇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박동근 교수, 서은아 교수, 김준희 교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고 2~3일 전부터 매일 나와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 뒤에는 윤재연 교수, 최영미 교수, 윤혜영 교수, 정수현 박사, 안신혜 박사 등이 이 일을 맡아서 했다.

Ⅲ. 외연 확대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스터디 모임으로 출발한 ‘한말연구모임’은 출발부터 학회의 성격보다 동문간의 친목 모임의 성격이 더 강했다. 이러한 출발 과정은 결속력과 친화력, 그리고 회원의 협조에서 다른 학회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회라는 성격으로 전국적 조직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학회의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전면에 등장한 것이 대학교 평가와 학술지 평가다. 대교협은 매년 대학을 평가해서 대학 지원을 차등화 하겠다고 나왔고 평가의 항목 가운데 교수 연구 실적과 교수 연구비 유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를 평가해 등재지, 등재후보지, 전국단위학술지, 일반학술지, 교내학술지 등으로 평가해서 연구실적을 차등화 하고 지원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대학에서도 연구실적물을 평가할 때 등재지와 등재학술지 중심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학교 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업적 평가에서 제외시키거나 포함시키더라도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제까지는 대학에서 <00대학 00연구소>, <00대학교 학술지>, <00어문학> 등으로 학술지 앞에 대학의 이름이 붙었으나 대학의 이름이 붙은 것은 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00모임”과 같은 학술 단체들도 학회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1) 학회 이름을 “한말연구모임”에서 “한말연구학회”로 바꾸다

이제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학회의 이름을 바꾸어야 했고 학회 회원들도 전국단위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임원들과 상의해서 창간할 때부터 사용하던 “한말연구모임”이란 이름을 1996년 10월부터 “한말연구학회”로 바꾸었다. 마침 이때 필자는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과장의 일을 보던 때였기 때문에 “건국어문학”도 “겨레어문학’으로 바꾸었다.

2) 회원 유치 활동

학술지 평가에는 정회원의 숫자(회비 납입한 숫자만 인정)와 전국 단위의 분포, 그리고 해외 회원의 수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등장했고, 학회 회장이나 임원의 연구실적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문제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동문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한말연구학회는 새로운 회원을 영입해서 회원의 수를 늘려야 했고 연구 실적이 높은 교수들을 학회 회원으로 영입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한말연구> 창간호가 나올 때 회원은 불과 60여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나 근무하는 대학도 다양화해야 했다. 그러나 회원을 영입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미 우리학회 회원이 교수로 있는 대학의 교수와 원생들을 상당히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했다. 최윤현 교수를 통해서 강원대학교, 최남희 교수를 통해서 동의대학교, 이근영 교수를 통해서 대전대학교, 구현정 교수를 통해서 상명대학교, 김택구 교수를 통해서 안양대학교, 이석규 교수를 통해서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의 교수, 강사, 대학원생들을 대거 영입했지만 그 이상은 한계가 있었다.

우선 저명한 교수들이 아직 평가를 받지 못한 조그만 학회에 회비를 내면서 가입하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한말연구학회는 건국대학교 대학원생들의 모임이라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타대학의 저명한 교수를 회원으로 영입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평생회원제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평생회원제란 기금이 부족한 학회가 기금 확보를 위해 미리 일정한 회비를 한 번 내면 회비를 더 내지 않고도 평생동안 회원의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회원 유치 방법으로 활용했다.

영입하고자 하는 외부 교수님들께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학교의 이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덧붙여서 회원이 되면 평생회비를 낸 것으로 하여 회비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저명한 연구활동이 활발한 교수들을 특강에 초대해서 특강을 시키고 회원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특강비를 평생회비로 내놓고 입회원서를 작성했다. 김차균, 박형익, 소강춘 교수 등이 대표적인 분이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 특히 최용기 회원의 역할이 컸다는 점도 밝힌다.

외국인 교수들은 한국에 교환교수로 온 교수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부탁드리고 회원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에 있는 교포 교수들은 적은 돈으로도 초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학회에서 초청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방법을 활용하기 쉬웠다.

3) 등재후보지, 등재지

IV. 평가와 과제

한말연구학회는 출발은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전공 동문회의 성격을 띠고 출발했고 한글 전용 운동이라는 학문 외적인 목적도 가지고 출발했다.

출발은 보잘 것 없었다. 아마도 한말연구학회가 오늘의 학회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되돌아보면 창립과 발전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열정과 희생 노력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평가

첫째, 발표의 장이 부족했던 시기에 젊은 학자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학자들이 성장하여 오늘날 중견 학자로 자라게 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한말연구>와 <겨레어문학>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

둘째, 젊은 학자들을 학회로 모아 국어학을 발전시키고 국어학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말연구학회는 한글학회, 국어학회, 국어국문학회와 달리 소장파 학자들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회이다. 따라서 학문의 경향도 새롭고 독창적이다.

셋째, 문자 정책의 혼란기에 한글전용을 실천함으로써 국가관과 민족의 정체성을 심는 데에 역할을 했다.

2) 과제

첫째, 개혁과 개방을 중시하는 환경 속에서 개방과 정체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조화롭게 살려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특징 없는 학회에서 무언가 새로운 사조를 지향해야 하는 학회로 방향을 잡아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3부 <30주년 기념 발표>

남북한 어문규범의 사잇소리 현상 발음법과 표기법에 대한 비교 연구

이관규(고려대)

< 차 례 >

1. 머리말: 문제 제기
2. 남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과 발음법 변천 양상
3. 북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과 발음법 변천 양상
4. 맺음말: 요약과 제언

1. 머리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남북한 한민족은 언제나 하나의 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할 존재로 각자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꽃’을 ‘꽃’이라고 함께 쓸 수 있는 동질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표기 가운데 사잇소리를 표기하는 사이시옷(ㅅ)을 남한에서는 사용하고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큰 차이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뒷문’라고 쓰든 ‘뒤문’이라고 쓰든 발음은 똑같이 [뒨문]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지만 사잇소리 발음은 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있지만 또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남북한 어문 규범에서 표기법과 발음법을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어문 규범, 그 중에서도 사잇소리 표기법과 발음법이 변천해 온 양상을 살피면서, 그 공통점을 찾아내고 또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동질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도록 한다. 지금은 둘이지만 하나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말이다.

2. 남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현상의 표기법과 발음법 변천 양상

2.1. 남한 어문 규범의 변천 양상

남한의 어문 규범, 그 중에서도 맞춤법은 1933년에 나온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광복 후 1946년에 나온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남한 전국적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각급학교는 물론이고 조선어학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남한의 문맹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조선어학회(이후 한글학회로 개명)의 맞춤법 통일안은 이후에도 몇

차례 약간씩 개정되어 나온다. 최종 학회 안은 ‘한글 맞춤법’(1980)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기본 내용은 1933년 것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1) 남한 어문 규범의 변천 양상

- ㄱ. 조선어학회(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¹⁾
조선어학회(1946), ‘한글 맞춤법 통일안(일부 개정)’
한글학회(1980), ‘한글 맞춤법’
- ㄴ. 문교부(1988), ‘한글 맞춤법’
문교부(1988),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국가 차원의 남한 맞춤법 규정은 1988년에야 나왔다. 그동안 한글학회라는 특정 학회 안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었었는데, 아무래도 대외적인 가치를 지닌 국가 차원의 어문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ㄴ)의 ‘한글 맞춤법’(1988)은 총 57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 지금도 남한의 공식적인 맞춤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²⁾

(2) 남한의 맞춤법 원칙들

순서	맞춤법	발표처	총칙	
ㄱ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조선어학회	一. 한글 맞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總論
ㄴ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6)	조선어학회	1.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총론
ㄷ	‘한글 맞춤법’(1980)	한글학회	1.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의 각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되, 그 원형을 밝힘을 원칙으로 한다.	총론
ㄹ	‘한글 맞춤법’(1988)	문교부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칙

결국 남한의 맞춤법은 1933년에 나온 조선어학회 안이 현행 1988년 ‘한글 맞춤법’으로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ㄱ,ㄹ)에서 보듯이 맞춤법 원칙을 1933년 것이나 1988년 것이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고 하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중간 단계인 (1ㄴ,ㄷ)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이다. 전자를 강조해서 한글 맞춤법 원칙이 음소주의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고, 후자를 강조해서 형태주의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전자는 위치 순서를 염두에 둔 것이고, 후자는 우리말에서 종속문은 후행절에 중요한 내용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연구자는 후자 입장, 즉 형태주의가 한글 맞춤법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태주의 입장이 훨씬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북한에서는 어문 규정에서 맞춤법의

1) 1933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나왔으나, 1940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2) 이승만 대통령 시절 국가 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글 풀어쓰기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공권력 차원에서 문교부 이름으로 ‘한글簡素化方案’(1954)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때 학계와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취소가 되었다. 이후 1971년에 국어국문학회에서 음소주의 원칙에 입각한 ‘國語正書法案’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는데, 역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다(이관규 2015 참조). 한글학회의 맞춤법 규정이 형태주의임에 비해서, ‘한글簡素化方案’(1954)이나 ‘國語正書法案’이나 모두 음소주의였다.

형태주의 원칙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어서,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렇다.

2.2. 남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 변천 양상

남한의 어문 규범에 나타난 사잇소리 표기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 기원한다. 이는 조선어학회의 본부가 경성(서울)에 있었고, 무엇보다 광복 후에 조선어학회 회원들 대부분이 남한에 머물러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남한의 ‘한글 맞춤법’(1988)이 바로 이 통일안(1933)을 거의 그대로 잇고 있기도 하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사잇소리 표기법에 있어서 1933년 것과 현행 1988년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잇소리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3)을 통해서 남한 어문 규범에 나타난 사잇소리 표기법의 변천 양상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3) 남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 변천 양상

순서	맞춤법	규정	비고
ㄱ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	第三〇項. 複合名詞 사이에서 나는 사이스은 홀소리 아래에서 날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스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例 홀소리 밑 뒷간 곳집 나룻배 담뱃대 잇몸 깃발 第三一項.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甲 乙 …… 甲 乙 좁쌀 조늬쌀 …… 찹쌀 차늬쌀 맷쌀 매늬쌀 …… 햅쌀 해늬쌀 수개 수ㅎ개 …… 암개 앵개	
ㄴ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40)	第三〇項. 複合名詞의 사이에서, 위스 말의 끝소리가 홀소리로 나거나 ㄴ, ㄹ, ㅁ, ㅇ 인 때에 “사이스” 소리가 나는것과, 아래스 말의 첫소리가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ㅁ蓋音化한 ㄴ이나 ㄹ소리가 나는것은 모두 中間에 “스”을 놓아 표한다. 例: (一) “사이스” 소리가 나는것 뒤스간(廁間) 문스간(門間) 코스날(鼻線) 코스등(鼻背) 손스등(手背) 이스몸(齒齦) 초스불(燭火) 등스불(燈火) 이스새(齒間) 발스새(趾間) 고스집(倉庫) 움스집(土幕) …… (二) “사이스” 소리와 다시 ㅁ蓋音化한 ㄴ이나 ㄹ소리가 나는것 채스열(鞭穗) 아래스이(下齒) 대스잎(竹葉) 베개스잇(枕衣) 갓스양(冠緣) 물스약(水藥) 잣스엇(栝飴) 콩스엇(豆飴) 담스요(모욕?) 늦스요강(鑰鑰器) 편스웃(便柵) 밤스웃(小柵) …… 第三一項. 複合名詞 사이에서 ㅂ소리나 ㅎ소리가 나는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例: (1) 甲 乙 丙 맷쌀(粳米) 매늬쌀 메쌀 찹쌀(糯米) 차늬쌀 차쌀 좁쌀(粟米) 조늬쌀 조쌀 햅쌀(新米) 해늬쌀 해쌀 (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2) 甲 乙 丙 머리카락 머리ㅎ가락 머릿가락 수개(牡犬) 수ㅎ개 숭개 암닭(牡雞) 암ㅎ닭 앵닭 안팎(內外) 안ㅎ밖 앵밖	

ㄷ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46)	<p>第三〇項. 複合 名詞나 또는 複合 名詞에 準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 소리가 나거나 또는 다시 口蓋音化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윗 말의 끝소리가 ㅎ소리인 경우는 ㅅ을 받치어 적고, 닿소리인 경우는 이를 表示하지 아니한다. 例:</p> <p>(一) 윗 말 끝이 ㅎ소리인 것</p> <p>① 냇가(川邊) 콧날(鼻線) 콧등(鼻背) 잇몸(齒齦) 촛불(燭火)</p> <p>② 잇과(理科) 갖법(加法) 홉수(戶數) 섯자(書字)</p> <p>③ 챗열(鞭穗) 아랫이(下齒) 베갯잇(枕衣)</p> <p>(二) 윗 말 끝이 닿소리인 것</p> <p>① 길가(路邊) 손등(手背) 등불(燈火) 발새(趾間) 움집(土幕) 들것(擔架) 굴대(轉軸) 들보(架) 짚손(把所) 길짐승(走獸)</p> <p>② 상과(商科) 감법(減法) 권수(卷數) 한자(漢字)</p> <p>③ 집일(家事) 물약(水藥) 쌀엿(米飴) 맹장염(盲腸炎) 관절염(關節炎)</p> <p>第四八項. ……</p> <p>但 俗音이 된소리인 것은 本音으로만 적는다. 例: 정가(定價) 발달(發達) 필시(必是) 결재(決裁)</p>
ㄹ	남한, '한글 맞춤법' (1988)	<p>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p> <p>국말이 꺾꽂이 꽃잎 골장 물난리 밀천 부역일 싫증 옷안 웃웃… [붙임 3]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8) 때에는 '니'로 적는다.</p> <p>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p> <p>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p> <p>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p> <p>(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꺾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댕가지 뒷갈망 댕돌 머릿기를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뱃가리 부싯돌 선짓국 섯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잣더미 조갯살 찻집 챗바퀴 킷값 핏대 햅별 햅바늘</p> <p>(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땃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땃머리 잇몸 꺾묵 냇물 빗물</p> <p>(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꺾열 땃웃 두렛일 땃일 땃입맛 베갯잇 윗잇 꺾잎 나뭇잎 땃잎</p> <p>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p> <p>(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꺾병 머릿방 땃병 붓독 사жат밥 섯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촛국 콧병 땃줄 텃세 핏기 햅수 햅가루 햅배</p> <p>(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꺾날 제삿날 햅날 텃마루 양치물</p> <p>(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햅일</p> <p>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꺾간(庫間) 섯방(賞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텃간(退間) 햅수(回數)</p>

첫째, 남한 사잇소리 표기 규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이시옷(ㅅ)을 적느냐 마느냐, 또 적으면 어디에 적느냐는 것이다. 1933년에는 (3ㄱ)에서 보듯이 섯행 모음 아래에 적었고 자음 뒤에는 적지 않았다. 그러다가 (3ㄴ) 1940년에 와서는 중간에 사잇소리가 날 경우 앞의 것이 모음이든 자음이든 상관없이 사이시옷(ㅅ)을 적었다. 이렇게 중간에다가 'ㅅ'을 넣는 것은 시각적으로 발음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서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글의 음절은 모아쓰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일종의 부호 차원으로 'ㅅ'을 적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광복 직후 한글 보급을 교육적으로 시급히 해야 하는 마당에 해당 항목을 수정하였다. 그것이 바로 (3ㄷ)이다. 모음 뒤에서만 'ㅅ'을 적고 자음 뒤에서는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현행 (3ㄹ) '한글 맞춤법'(1988)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사잇소리를 표기할 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유어가 들어 있는 합성어와 한자어 끼리 이루어진 합성어에서의 표기를 동일하게 다룰 것인가이다. (3) 전체에서 고유어가 들어가서 사잇소리 발음이 나는 것은 ‘ㅅ’ 표기를 하였다. 그런데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일 경우는 차이가 발견된다. (3ㄱ)에서는 고유어니 한자어니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예도 찾아볼 수 없다. (3ㄴ)에서는 한자어 언급은 따로 없으나 ‘문스간(門間)’ 예를 통하여 한자어 합성어에서도 ‘ㅅ’을 적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ㄷ)에서도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② 잇과(理科) 갖법(加法) 홑수(戶數) 셋자(書字)’와 같이 예를 제시해 두고 있다. 결국 (3ㄱ~ㄷ)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잇소리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던 것을 현행 (3ㄴ) ‘한글 맞춤법’(1988)에 와서는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라 하여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만이 사이시옷 표기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과, 외과’ 등 수많은 예외 용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사잇소리라 하면 사이시옷(ㅅ) 표기를 우선 떠올리지만 사실 ‘좁쌀, 안팎’ 같은 예에서 보듯이 ‘ㅂ, ㅎ’ 같은 것도 있다. ‘쌀(米), 안ㅎ(內)’처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흔적이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식적 차원에서 해당 발음을 인정을 하여 발음대로 표기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잇소리 표기에서 통시와 공시를 구분하는 이런 원칙은 1933년 이후 지금까지도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남한의 어문 규범에서 사잇소리를 표기하는 원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맞춤법, 그것도 헛갈리는 사이시옷(ㅅ) 표기를 자꾸 바꾸게 되면 문자살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자어 합성어에서 ‘ㅅ’ 표기를 여섯 개 단어로 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표기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한 사잇소리를 제대로 발음한다는 전제에서 사잇소리 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2.3. 남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발음법 양상

남한의 공식적인 발음법은 현행 1988년에 나온 ‘표준 발음법’이 유일무이하다. 특히 사잇소리를 표기하는 발음법은 사잇소리 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래 사잇소리는 [ㄷ], [ㄴ], [ㄱ](후두긴장음)이 설정되는 게 일반적이다.(이관규, 1998 참조) ‘좁쌀, 암탉’의 ‘ㅂ, ㅎ’ 같은 것은 역사적 유물일 뿐이어서 별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4) 남한의 사잇소리 발음법: ‘표준어 규정’(1988) 제2부 표준 발음법

ㄱ.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솜:니불] 흙-이불[흙:니불] 막-일[망닐] 샷-일[상닐] 맨-입[맨닙] 꽃-잎[꼇닙] 내복-약[내:봉낙]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캐널차] 녹막-염[능망념] 콩-엿[콩녘] 담-요[담:뇨] 눈-요기[눈노기] 영엽-용[영엄농] 식용-유[시공뉴] 국민-윤리[궁민놀리] 밤-웃[밤:눈]
.....

ㄴ.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넷가[내까/넛까] 셋길[새:낄/생:낄] 빨랫돌[빨래돌/빨랫돌] 콧등[코똥/콘똥] 깃발[기빨/길빨] 대팻밥[대:패밥/대:팬밥] 햇살[해살/헛살] 뱃속[배속/뱃속] 뱃전[배전/뱃전] 고갯짓[고개찢/고갯찢]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랫니→아랜니] 뒷마루[튀:마루→뒀:마루] 뱃머리[뱃머리→뱃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갯닐→베갯닐] 깻잎[깻닙→깻닙] 나뭇잎[나뭇닙→나뭇닙] 도리깻잎[도리깻닐→도리깻닐] 뒷웃[뒷:눈→뒷:눈]

ㄷ.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재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속] 술-잔[술잔] 바람-결[바람결] 그믐-달[그믐달] 아침-밥[아침밥]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달] 등-불[등뿔] 창-살[창살] 강-줄기[강줄기]

(4ㄱ)에 보면 [ㄴ] 사잇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나온다. ‘이, 야, 여, 요, 유’ 앞에서 ‘ㄴ’ 음을 첨가하는 것인데, 맞춤법에는 반영하지 않고 개별 단어로서 사전에 발음 표기가 들어갈 뿐이다.

(4ㄴ)의 ‘넷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냥 형태주의로 하면 ‘내가’로 표기할 텐데, 사잇소리 발음을 염두에 두어서 ‘넷가’로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표준 발음이 두 가지, 즉 [내:까]와 [넛:까]로 제시되어 있다. 본래 서울 방언은 [내:까]로 발음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럴 경우엔 사잇소리로 후두 긴장음 [ʔ]이 삽입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즉 ‘ʔ+ㄱ=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그렇다면 [넛:까]는 어떻게 해서 나온 발음인가? ‘내:가 > 넛:가 > [넛:까]’로 발음 형성 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결국 [내:까] 발음에는 후두 긴장음 사잇소리가 들어갔고, [넛:까]에는 사잇소리 [ㄷ]이 들어간 후에 경음화 규칙을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진짜 서울 발음은 어떤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일 것이다.

(4ㄷ)에 제시된 제28항에서는 비록 사이시옷 표기는 없지만 사잇소리 현상이 나는 합성어들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맞춤법은 ‘문고리’이지만 발음은 [문꼬리]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는 사잇소리인 후두 긴장음(ʔ)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된다. 즉 앞 받침인 ‘ㄴ’은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자동적 후두 긴장음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러 일정한 의도를 갖고 후두 긴장음(ʔ)을 그 사이에 넣어서 결국 ‘ʔ+ㄱ=ㄱ’에서처럼 뒤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만 들어주는 것이다.

사잇소리는 단어마다 발음이 다른 형태론적 현상에 속한다. 똑같이 ‘신고’라 하더라도 용언에서는 [신꼬]이고 체언에서는 [신고]이다. 결국 사잇소리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시옷(‘ㅅ’)으로 표기하곤 하지만 반드시 ‘ㅅ’으로 해야 할 당위성도 보이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ㅅ’ 발음이 아니라 [ㄷ] 발음이 사이에 들어가

3) 뒤에서 보겠지만 북한에서는 [내:까]만 올바른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긴 남한의 학교 문법 교과서(2002)에서도 [내:까]만 발음 표기되어 제시되어 있다.

는 게 맞기 때문이다.⁴⁾

3. 북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현상의 표기법과 발음법 변천 양상

3.1. 북한 어문 규범의 변천 양상

광복 직후에 남북한 공히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1933, 1946)을 어문 생활에서 사용하였다. ‘한글 맞춤법 해설 방안’(1947, 길용진)이 나와 북한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조선어학회가 1946년에 새로 펴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해설한 것이었다(고영근 1994:). 즉 북한의 독자적인 어문 규범인 ‘조선어 신철자법’(1948/1950)이 나오기까지 남북한 공히 동일한 맞춤법을 준수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5) 북한의 어문 규범 변천 양상⁵⁾

순서	어문 규범	연도	발간 주체	비고
ㄱ	朝鮮語 新綴字法	1948/1950	조선 어문 연구회	
ㄴ	조선어 철자법	1954/1955	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	
ㄷ	조선말규범집	1966	국어사정위원회	맞춤법/띄어쓰기/문장부호법/표준발음법
ㄹ	조선말규범집	1988	국어사정위원회	맞춤법/띄어쓰기/문장부호법/문화어발음법
ㅁ	조선말규범집	2010	국어사정위원회	맞춤법/ 띄어쓰기규정/문장부호법/문화어발음법

(5ㄱ) ‘조선어 신철자법’(1948/1950)은 북한의 과학원 산하 조선 어문 연구회라는 곳에서 냈다. 조선 어문 연구회 위원장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 대표이었던 리극로가 맡고 있었다.⁶⁾ 따라서 북한의 첫 번째 어문 규범은 기본적으로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형태주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었다. 물론 이때 신문자 여섯 자를 새로 만든 독특함이 있긴 하였다. 이것은 당시 주시경 선생의 수제자였던 김두봉의 문자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북한 어문 생활에서 별로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이 신철자법은 유아무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 김두봉이 숙청을 당한 이후 새로 (5ㄴ) ‘조선어 철자법’(1954/1955)이

4) 물론 표기의 역사성을 들어서 ‘ㅅ’ 표기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시적 발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ㄷ’으로 표기하고 [ㄷ]으로 발음하자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뒤에서 보겠지만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고 [ㄷ] 소리를 내고 있다.

5) ‘조선어 신철자법’은 1948년에 발표되었고 정식 책자로 나온 것은 1950년이다. 그리하여 ‘1948/1950’이라고 표시한 것이다. 아래 (5)에서 사선(/)으로 표시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선 앞이 발표 연도, 뒤가 간행 연도이다.

6) 광복이 되면서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왔고 국내외에서 독립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김두봉이 북한에 거주하면서 어문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어학회 대표를 지낸 이극로를 북한으로 초청하여 북한에서의 어문 정책을 이끌도록 하였다. 특히 과학원 산하에 조선 어문 연구회를 조직하여 거기에서 어문 정책을 이끌도록 하였다.

발표되었다. 이때에 신문자가 규범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김일성은 1964년과 1966년 두 차례 언어학자들과 가진 담화에서, 문자 개혁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 시행에 대해서는 향후 남한과 통일된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였다.⁷⁾

이후 북한에서는 ‘조선말규범집’이 1966년, 1988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난다(6ㄷ, ㄹ, ㅁ). 그동안 맞춤법 등 모든 내용이 ‘조선어 신철자법’, ‘조선어 철자법’ 어문 규범 속에 각각 향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조선말규범집’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혹은 문화어)발음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66년, 1988년, 2010년 판에서도 변화가 없다.

(6) 북한의 맞춤법 원칙들

순서	북한 맞춤법	총칙	
ㄱ	朝鮮語 新綴字法 (1948/1950)	1. 朝鮮語 綴字法은 現代 朝鮮 人民의 言語 意識 가운데에 共通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은 一定한 形態로 表記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2. 朝鮮語 綴字法은 그 表記에 있어 一般 語音學的 原理에 依據하되, 朝鮮 固有의 發音上의 諸規則을 尊重한다.	총론
ㄴ	조선어 철자법 (1954/1955)	1. 조선어 철자법은 단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동일한 형태로 표기하는 형태주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삼는다. 2. 조선어 철자법은 그 표기에 있어 일반 어음학적 원리에 의거하되, 조선어에 고유한 발음상의 제 규칙을 존중한다.	총칙
ㄷ	조선말규범집 (1966) ‘맞춤법’	1.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총칙
ㄹ	조선말규범집 (1987/1988) ‘맞춤법’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	총칙
ㅁ	조선어규범집 (2010) ‘맞춤법’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	총칙

다섯 차례에 걸친 북한의 어문 규범 맞춤법에서는 일관되게 전해온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형태주의 원칙이다. 광복 직후 남한과 공통으로 사용했던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6)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 하여 기본 원칙이 음소주의인지 형태주의인지 논란이 되어 왔다. 물론 맞춤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형태주의 원칙이 기본적인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총칙에 나타난 표현만으로 보면 어느 것이 기본 원칙인지 단언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것을 (6ㄱ)에서 “...共通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은 一定한

7)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제거가 되면 하루아침에 해당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진다. 조선 인민 위원회 회장까지 지냈던 김두봉이었지만 숙청된 이후에 그가 주도한 각종 개혁안들이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문자 개혁과 관련하여 김일성이 직접 말한 비판 내용을 아래에 제시해 본다.
“...어떤 사람들은 文字改革을 곧 하자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決定的으로 反對하였습니다. 우리가 文字改革論을 反對한 重要한 理由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言語問題를 民族問題와 結付시키지 않았읍니다. ... 둘째로 그들은 당장 文字改革을 하는 것이 科學과 文化의 發展에 큰 支障을 준다는 것을 考慮하지 않았읍니다. ... 셋째로 그들은 文字發展의 國際的인 方向도 考慮하지 않았읍니다. ...”
<김일성, 1964, ‘朝鮮語를 發展시키기 위한 몇가지 問題’에서>

形態로 表記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라고 형태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물론 총칙 두 번째에서 조선 고유의 발음상의 제 원칙을 존중한다고 하여 음소주의적 허용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6ㄴ)에서도 거의 그대로 보인다.

(6ㄷ)에서는 맞춤법의 형태주의 입장을 보다 확실히 제시하고 있다. “뜻을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때에 사잇소리를 표기해 온 소위 ‘사이표’(‘)를 없애게 된다. 사이표(‘)를 없애므로 해서 해당 의미 부분이 뚜렷이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에는 허용 규정 내용이 총칙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후 1988년, 2010년에 나온 ‘조선말규범집’의 ‘맞춤법’의 총칙에도 형태주의 표기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 일부 경우 소리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북한의 맞춤법 원칙은 형태주의이고 일부의 경우 음소주의가 허용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맞춤법 원칙은 남한과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더욱 많이 확인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3.2. 북한 사잇소리 표기법의 변천 양상

북한이 남한과 달리 맞춤법을 제정한 것은 ‘조선어 신철자법’(1948/1950)에서부터이다. 이때 북한 맞춤법에서는 두음법칙 부정, 새로운 여섯 자 적용, 사이시옷 소리 표기를 위한 절음부(絶音符(‘)) 사용 등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⁸⁾ 여기서는 사잇소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때 특이하게 절음부(‘)라는 부호를 사용한 것을 살펴보겠다.

(7ㄱ)에서 보듯이 ‘뒤’간, 이’몸’에서처럼 모음 뒤에서나 ‘손’등, 달’빛, 그믐’달, 등’불’에서 합성어 사이에 소위 절음부(‘)를 넣으며, ‘가’랑’이, 겹’이불, 논’일’에서도 사이에 일정한 소리가 덧날 때 절음부(‘)를 넣는다. 이런 고유어와 한자어로 결합된 단어 이외에 한자어와 한자어로 결합된 합성어에서도 중간에 사잇소리가 나면 ‘가’법, 경리’과’나 ‘관절’염, 맹장’염’에서처럼 절음부를 표시하고 있다. 요컨대 합성어에서 두 어근 사이에 일정한 소리가 들어가면 절음부(‘)를 넣어 표기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7ㄴ) ‘조선어 철자법’(1954)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절음부 대신에 ‘사이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7) 북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 변천 양상

순서	맞춤법	규정	비고
ㄱ	朝鮮語 新綴字法 (1948/ 1950)	第31項. 合成語의 사이에서 위’말의 末音이 母音이나 “ㄴ, ㄹ, ㅁ, ㅇ”일 때에 從來의 所謂 “사이ㅅ” 소리가 나는 것과 아래’말의 頭音이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口蓋音化한 “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中間에 絶音符 “’”로써 表한다. 例: (1) 所謂 “사이ㅅ” 소리가 나는 것 … 고’집(倉庫) 그믐’달(月) 달’빛(月色) 뒤’간(?間) 등’불(燈火)…… (2) 所謂 “사이ㅅ” 소리와 다시 口蓋音化한 “ㄴ”나 “ㄹ” 소리가 나는 것 가’랑’이(幼風) 갓’양(冠緣) 겹’이불(衾) 공’일(空事) 낫’일(晝事) 논’일(晝事)…… [附記] 漢字語로서 이에 準할 만한 境遇에도 絶音符로써 表할 수 있다. 例: (1) 가’법(加法) 가’수(加數) 경리’과(經理課) 기’수(奇數)…… (2) 관절’염(關節炎) 맹장’염(盲腸炎)	

8) 북한 어문 규범에 대한 연구는 김민수(1979)를 비롯하여 김민수 편(1989, 1991), 고영근 편(1989), 전수태·최호철(1989), 홍종선·최호철(1998), 최용기(2003), 전수태(2005) 등 여러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p>第32項. 複合 名詞 사이에서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다.)</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甲</td> <td style="text-align: center;">乙</td> </tr> <tr> <td>(1)</td> <td>몹쌀 좁쌀 찹쌀 햅쌀</td> <td>울미 수미 新米</td> </tr> <tr> <td>(2)</td> <td>수캐 암탉 안팎</td> <td>메벼쌀 조벼쌀 차벼쌀 해벼쌀 수ㅎ개 암ㅎ닭 안ㅎ밖</td> </tr> </table>		甲	乙	(1)	몹쌀 좁쌀 찹쌀 햅쌀	울미 수미 新米	(2)	수캐 암탉 안팎	메벼쌀 조벼쌀 차벼쌀 해벼쌀 수ㅎ개 암ㅎ닭 안ㅎ밖	
	甲	乙										
(1)	몹쌀 좁쌀 찹쌀 햅쌀	울미 수미 新米										
(2)	수캐 암탉 안팎	메벼쌀 조벼쌀 차벼쌀 해벼쌀 수ㅎ개 암ㅎ닭 안ㅎ밖										
ㄴ	조선어 철자법 (1954/ 1955)	<p>제19항. 합성어의 사이에 첫번째 어근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ㄴ>, <ㄹ>, <ㅇ>, <ㅁ>인 때에 아래의 소위 <사이 ㅅ> 소리가 나는 것과, 둘째 어근의 첫소리가 <ㅇ>, <ㅁ>, <ㅇ>, <ㅇ>인 때에 다시 그 중간에 <사이 표>를 둔다.</p> <p>1) 소위 <사이 ㅅ> 소리가 나는 것. 例: 그믐'달 기'발 길'집승 나룻'배 날'집승 낚시'대 내'물 담배'대 들'것 들'돌 들'보 들'숨 등'불 디달'방아 뒤'간 문'간 물'것 발'새 보리'짚 불'길 배'전 손'등 초'불 코'불 코'등 움'집 일'군</p> <p>2) 소위 <사이 ㅅ> 소리와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이 나는 것 例: 겹'이불 공'일 낮'일 눈'일 늦'요강 담'요 들'일 내'일 물'약 밤'이슬 발'이랑 버들'잎 부엌'일 베개'잇 속'잎 잣'잎 콩'잎 편'웃 흘'이불 꽃'잎 앞'이마 어금'이 옷'임자 이불'잇</p> <p>3) 한자어로서 이에 준할 만한 경우에도 <사이표>를 둘 수 있다. 例: 군'적(郡的) 도'적(道的) 대'가(代價) 리'과(理科) 수'자(數字) 호'수(號數)</p> <p>제20항. 합성어의 사이에서 [ㅂ]나 [ㅎ]가 보태진 것은 보태진 대로 다음과 같이 적는다. 例: 1) 몹쌀 좁쌀 찹쌀 햅쌀 2) 마파람 머리카락 살코기 수캐 수탉 휘파람 안팎 암개 암탉</p>										
ㄷ	조선말 규범집 (1966) '맞춤법'	<p>제15항. 합성어를 이룰적에 [ㅂ]가 덧나거나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어나는것은 덧나고 바뀌어나는대로 적는다. 例: 몹쌀, 좁쌀, 찹쌀 머리카락, 살코기, 안팎, 암탉</p> <p>제18항. 종전에 써오던 사이표(')는 발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앤다.</p>										
ㄹ	조선말 규범집 (1988) '맞춤법'	<p>제15항. 합친말을 이룰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어나는것은 덧나고 바뀌어나는대로 적는다. 例: 마파람, 살코기, 수캐, 수탉지, 좁쌀, 휘파람, 안팎</p> <p>[붙임]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例: 셋별 - 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비바람(비와 바람)</p> <p>제18항.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릴 적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例: - 갓풀, 덧신, 뒷일, 만누이, 선웃음, 참외, 햇가지, 아래집, 윗집, 옛말 - 빗보다, 싹혀영다, 짓밟다, 헛디디다</p>										
ㅁ	조선말 규범집 (2010) '맞춤법'	<p>제14항.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例1: 갓잡다, 낫보다, 눈웃음, 돌보다... 例2: 갓있다, 곁늬다, 멧날... <암, 수>와 결합되는 동물의 이름이나 대상은 거센소리로 적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는다. 例: 수돼지, 암돼지, 수개, 수기와, 암기와</p> <p>제18항.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例: - 갓풀, 덧신, 뒷일, 만누이, 선웃음, 참외, 햇가지, 아래집, 웃집, 옛말 - 빗보다, 싹혀영다, 짓밟다, 헛디디다</p>	'ㄹ'과 동일									

사잇소리 현상 환경에서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절음부 혹은 사이표(ˊ)를 사용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문자 아닌 부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된다. 한글 표기가 초성-중성-종성 문자를 사용하는 기본 원리에도 어긋난다. 특히 전산언어학이 발달한 현재에 비추어 보면 문자 이외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결국 김일성 교시 이후 제정된 (7ㄷ) ‘조선말규범집’의 ‘맞춤법’ 규정에서는 “제18항 종전에 써오던 사이표(ˊ)는 발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앤다.”라 하여 전격적으로 사이표(ˊ)를 없애 버렸다.

사잇소리 나는 합성어에서 사이표(ˊ)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후 (7ㄹ, ㄴ)의 ‘조선말규범집’(1987, 2010)에서는 아예 아무런 언급이 없다.⁹⁾ 즉 북한 맞춤법에서 사이표(ˊ) 사용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곧 사잇소리가 나는 합성어는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형태주의 원칙이 온전히 적용된 것이다.¹⁰⁾

합성어에서 나는 사잇소리로는 [ㄷ]뿐만이 아니라 [비]도 있다. (7ㄱ)의 ‘뽕쌀, 좁쌀, 찹쌀, 햅쌀’에서 보듯이 ‘ㅂ’을 받치어 적었다. 이런 입장은 (7ㄱ~ㄴ) 전체에서 나타난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지금도 동일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다. 한편 (7ㄱ)의 ‘수캐, 암탉, 안팎’ 표기는 1948, 1954, 1966, 1987년 모든 북한의 맞춤법 규정에서 등장하고 있다. 즉 15세기 때 ‘수ㅎ, 암ㅎ, 안ㅎ’과 같은 ㅎ종성어가 뒤에 ‘개, 닭, 밖’을 만나면 ‘수캐, 암탉, 안팎’처럼 거센소리 발음 나는 것을 표기에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 (7ㄴ)의 ‘조선말규범집’(2010)의 ‘맞춤법’ 제14항에서는 전격적으로 ‘수돼지, 암돼지, 수개, 암개, 수기와, 암기와’에서처럼 그마저 사잇소리 표기를 삭제해 버렸다. 즉 본래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주의를 좀 더 강화한 것이다.

요컨대 북한 맞춤법에서는 사잇소리 표기 방식인 [ㄷ], [ㄴ], [비], [기](후두 긴장음) 사잇소리를 겹으로 표시하지 않고 본래 어근 형태를 드러내 주는 형태주의 원칙을 지금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적 표기인 ‘ㅎ’까지도 음소주의가 아닌 형태주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3. 북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발음법 변천 양상

사잇소리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문제는 곧 표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는가 문제로 연결된다. 예컨대 현재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소리는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냥 표기대로 발음하는가 아니면 표기만 안 하고 발음은 그대로 사잇소리를 내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8ㄴ)에서 보듯이 ‘수소’[수쑤], ‘길가’[길까]로 발음하여 표기는 안 하지만 발음은 하고 있다. 즉 사잇소리 표기와 발음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초기 ‘조선어 신철자법’(1948), ‘조선어 철자법’(1954)에서는 발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조선말규범집’(1966)에 와서야 ‘표준발음법’이라 하여 따로 발음 규정을 만들었다. (8ㄷ)에 보면 ‘수여우’[순녀우], ‘가위밥’[가윽뻬], ‘손등’[손똥] 예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개별 단어별로 일정한 음운 변동 현상에 따라서 발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표기와 발음의 차이

9) 그렇다고 하여 사잇소리 발음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조선어대사전’을 보면 ‘낮일’[난닐], ‘등불’[등뽕]로 발음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맞춤법에 표기는 하지 않지만 발음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물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듯이 북한 규범집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7ㄹ)에서 보듯이, 의미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셋별’과 ‘새 별’, ‘빗바람’과 ‘비바람’에서처럼 사이시옷(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8ㄷ~ㄱ) 모든 발음법에서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조선어대사전’의 개별 표제어에 발음을 일일이 표시해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북한 어문규범의 사이소리 발음법의 변천

순서	맞춤법	내용	비고
ㄱ	朝鮮語 新綴字法 (1948)	없음	
ㄴ	조선어 철자법 (1954)	없음	
ㄷ	조선말 규범집 (1966) ‘표준발음법’	제32항. 합성어(또는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는 그사이에서 [ㄴ니]를 덧붙여 발음한다. 례: 바다일-[바단닐] 대일-[댄닐] 수여우-[순녀우] 제33항.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순한소리나 유향자음으로 시작한 합성어에서는 그 두 어근사이에서 받침소리 [ㄷ]를 덧붙이는것처럼 발음한다. 례: 배전-[뻬전→뻬쩨] 배머리-[뻬머리→뻬머리] 가위밥-[가위뻬]→가위뻬 제34항. 합성어의 앞 어근이 유향자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순한소리일 때는 그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그믐달-[그믐뻬] 손등-[손뻬]	
ㄹ	조선말 규범집 (1988) ‘문화어발음법’	제27항. 합친말(또는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유>로 시작될 때에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에 <ㄴ니>을 끼워서 발음하는것을 허용한다. 례: -나라일[나라일], 바다일[바다일], 배개잇[배개잇] -수여우[순녀우], 수영[순냥] 제28항. 앞말뿌리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말뿌리가 순한소리나 울림자음으로 시작된 합친말 또는 단어들의 결합에서는 적은대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에 <ㄷ>을 끼워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례: -개바닥[개바닥], 노래소리[노래소리], 사령부자리[사령부자리] -가위밥[가위뻬]→가위뻬, 배전[뻬전→뻬쩨], 쇠뿔[쇠뿔]→쇠뿔, 이몸[인몸→인뻬]	제9장 사이 소리 현상 과 관련 한 발음
ㄱ	조선어 규범집 (2010) ‘문화어발음법’	제25항 2) 앞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에 한하여 [ㄴ니]을 끼워 발음한다.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경우 례: 나라일, 바다일, 배개잇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 례: - 수여우[순녀우], 수영[순냥] -아래이[아래니] 제26항. <암, 수>가 들어가 만들어진 단어의 발음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뒤형태부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ㅈ>인 경우는 [ㅋ, ㅌ, ㅍ, ㅊ]의 거센소리로 발음한다. 례: - 암돼지[암뻬지], 수강아지[수강아지], 수병아리[수뻬아리] 2) 그밖의 경우 앞형태부가 <수>이면 사이소리를 끼워 발음한다. 례: - 수사자[순사자→수싸자], 수쇠[순쇠→수쑤] - 수나비[순나비→순나비], 수오리[순오리→수도리] 제27항. 고유어로 만들어지는 일부 합친말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끼여나는 경우에는 형태부들사이에 <ㄷ>을 끼워 발음한다. 례: - 강개[강ㄷ가→강까], 길개[길ㄷ가→길까] - 바다개[바달가→바다까], 수도개[수돌가→수도까] - 뉘문[뉘문→뉘문], 뉘사람[뉘사람→뉘싸람]	제9장. 소리 끼우 기현 상과 관련 한 발음

북한 사이소리 현상을 보이는 단어들의 발음을 설명하는 규정 측면에서 보면 시기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 있다. (8ㄷ) 제33항에 ‘배전[뵤전→뵤쩐]’이 나오는데 (8ㄹ) 제28항에는 ‘배전[뵤전→뵤쩐]’이 나온다. 결과로서의 발음은 [뵤쩐]과 [배쩐]으로 서로 차이가 난다. [ㄷ] 사잇소리가 들어갔다는 설명은 동일하지만 최종 발음은 차이가 있다. 이에 2010년에 나온 (8ㄹ)에 나오는 ‘수소[숏소→수쑤]’를 통해 볼 때, 북한에서는 [배쩐] 식으로 발음하는 것을 최종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것이리라. 남한의 표준 발음법에서는 [배쩐]/[뵤쩐] 두 가지 발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남북한 차이를 보인다.¹¹⁾

또한 시기별 규정에 따라서 표준 발음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다. (8ㄷ)에서 ‘바다일[바단닐]’이 나오는데, (8ㄹ)에서는 ‘바다일[바다일]’로 나온다. 아마도 회의를 통해서 평양 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 발음이 [바다일]이라 하여 수정된 것이리라. 이것도 역시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표준 발음은 [나란닐]이며 표기는 ‘나랏일’이어서 차이가 난다.

(8)에서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것이 있다. (8ㄷ, ㄹ, ㅁ) ‘조선어규범집’의 발음법에서 덧낸다거나 끼운다거나 하면서 사잇소리 [ㄷ]을 언급한 것이다. 사실 남한에서 사잇소리로 들어간 발음이 [ㄷ]인데, 마치 사이시옷 ‘ㅅ’이 들어간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형태 ‘ㅅ’을 넣는 게 아니라 소리 [ㄷ]을 넣는다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남한 어문 규범이나 학교 문법에서 간과하고 있다. 북한 규범집에서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은 남한의 표준 발음법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평양말 중심의 문화어 발음이 서울 중심의 표준어 발음과 동일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의 ‘표준 발음법’이 1966년 ‘조선말규범집’에서 처음 나타났고 남한의 ‘표준 발음법’이 1988년 ‘표준어 규정’이 나중에 나타났다. 이런 논리라면 평양말 중심의 문화어 발음을 남한의 표준어 발음에 그대로 전이되었다는 것이라는 말인지 의아하다. 사실 남한에는 비록 어문 규범으로서 ‘표준 발음법’이 늦게 제정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일찌감치 표준 발음에 대해서는 국어사전 등에서 제시되어 왔고 널리 알려져 왔다. 혹시 북한에서 이런 결과물들을 어문 규범 속에 넣어서 이용한 것은 아닐까? 사실 북한에서 1966년 어문 규범부터 사잇소리를 나타내는 사이표(‘) 표기를 하기 않았다. 이에 따라서 개별 단어들에 대한 발음을 따로 제시해야 했을 텐데, 그때 바로 ‘표준 발음법’(1966)을 ‘조선어규범집’(1966) 속에 제시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이 과연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요컨대 북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현상에 대해 발음 표시를 하는 법을 규정한 ‘문화어 발음법’은 남한의 것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사잇소리 표기를 포기함으로써 해서 표준 발음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실제 발음은 남한의 사잇소리 발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맺음말: 요약과 제언

11) 편의상 남한의 ‘표준어 규정’(1988) 제2부 표준 발음법에 나타난 해당 내용을 여기에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넋가[내까/넠까] 셋길[새길/쌔길] 빨랫돌[빨래똥/빨래똥] 콧등[코똥/콘똥] 깃발[기빨/긴빨]
대팻밥[대:패뵤/대:뵤뵤] 햇살[해쌀/햐쌀] 뱃속[배쑤/뵤쑤] 뱃전[배쩐/뵤쩐] 고갯짓[고개쩐/고개쩐]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의 어문 규범에 나타난 사잇소리 표기법과 발음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보였다. 공통점은 그대로 하나로 통합될 터이니 문제가 없고 차이점은 가능한 한 통합의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남한의 ‘한글 맞춤법’(1988)과 북한의 ‘조선어규범집’(2010)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자.

4.1. 요약: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공통점부터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남한이나 북한이나 맞춤법의 기본 원칙이 형태주의라는 점이다. 남한의 “어법에 맞도록”과 북한의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라는 표현은 일맥상통한다. 남한 것에서 “소리대로 적되”라는 기준은 종속절에 온 것으로 파악된다.¹²⁾

둘째, 남북한은 사이시옷 표기에 있어서 쓰고 안 쓰고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양쪽 모두 사잇소리 발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각각 서울말과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잇소리 발음을 보면 차이를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남북한은 사잇소리로서 [ㄷ], [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잇소리 표기인 [ㅂ]과 [ㅎ]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수사자[술사자→수싸자], 수양[순냥]’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좁쌀, 안팎’ 표기에서 [ㅂ]과 [ㅎ]도 인정하고 있음을 본다.¹³⁾ 물론 ‘암돼지[암태지]’(발음 26항)의 경우 표기는 단어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지만 발음은 사잇소리가 개재된 형국이다.

이제 차이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첫째, 남북한 사잇소리 표기법에서 가장 큰 차이는 사이시옷(ㅅ) 사용 여부이다. 남한에서는 복잡하지만 사잇소리 나는 곳에서 사이시옷(ㅅ)을 넣고 있음에 비해서 북한에서는 아예 빼 버렸다. 초창기에는 절음부 혹은 사이표(ˊ)라 하여 사잇소리 나는 곳에 여지없이 사이표 부호를 썼었다. 하긴 일제 때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0)에서도 ‘문시간’에서처럼 중간에 ‘ㅅ’을 적는 독특한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었다. 표기 방식도 그렇고 무엇보다 단어마다 의미에 따라 넣고 안 넣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북한의 ‘조선말규범집’(1966)에서부터 아예 없애 버린 것이다.

둘째, 남한은 ‘수개, 암돼지’에서처럼 발음대로 표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수개, 암돼지’로 표기하고 있다. 북한에서 형태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발음은 [수개], [암돼지]로 하고 있다.

셋째, 한자어에서 ‘ㅅ’ 표기를 하느냐 마느냐도 큰 차이다. 물론 북한에서는 하지 않는다. 문제는 남한이다. 사잇소리 나면 모두 하든지 아니면 나든 안 나든 모두 하지 않든지 해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횡수’만 하고 ‘내과, 외과’ 등 실제 발음은 나

12) 이런 의미에서 남한의 맞춤법 총칙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이것만 보아서도 형태주의를 기본으로 하는지 음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더구나 ‘표준어’라는 말도 ‘국어’로 바꾸든지 해야 할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정경일(2016) 참조.

13) 북한 ‘조선말규범집’(2010)의 ‘맞춤법’ 제1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5항. 합진말에서 오늘날 말뿌리가 뚜렷하지 않은것은 그 형태를 적지 않는다.
례: - 며칠, 부랴부랴, 오라버니, 이틀, 이태
- 마파람, 휘파람, 좁쌀, 안팎

나 ‘ㅅ’ 표기는 하지 않고 있다.

4.2. 제언

공통점은 그대로 하면 될 터이다. 그렇다면 차이점을 극복하여 통합하는 방안은 과연 없을까? 분명 사잇소리 발음이 나는 곳에 일정한 표지, 예컨대 ‘ㅅ’ 표기를 해 주면 발음을 정확히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음 뒤에서 표기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자음 뒤에서 표기해야 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형태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ㅅ’ 표기 자체도 형태를 흐트리는 것이라 판단한다면 아예 ‘ㅅ’을 적지 않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다. ‘ㅅ’을 안 적으면 과연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을지 따로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이다.

과연 발음과 표기 가운데 어느 것이 오류가 났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까? 사실 발음 문제는 개인에 따라 무척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남한에서는 ‘효과[효과]’로, 북한에서는 ‘효과[효과]’로 발음한다. 표기는 똑같은데 발음은 다르다. 전산언어학 차원에서 볼 때도 표기의 동일성이 더욱 중요하다.

언어가 보통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이라면 혼란스런 사이시옷(ㅅ)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약 똑같이 쓰면 의미를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백보를 양보해서 그럴 경우만 ‘ㅅ’을 넣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리 하면 한자어, 고유어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길벗.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1954/1955), 『조선어 철자법』. 과학원 출판사.
국어사정위원회(1966),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원출판사.
국어사정위원회(1987/1988), 『조선말규범집』(수정판). 사회과학원출판사.
국어사정위원회(2010),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원인쇄공장.
권재일(2008), 남북한 언어 통합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21세기 언어 환경.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3-18.
길용진(1947), 『한글 맞춤법 해설 방안』. 조선출판사.
김민수 편(1989), 『북한의 어학혁명』. 녹진.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연구사』 1~4. 녹진.
김민수(1985), 『북한의 국어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일성(1964),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8. 평양: 문화어학습 2. 1~7쪽 전재).

- 김일성(1966),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8. 평양: 문화어학습 3. 1~9쪽 전제).
- 김정현(2004),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연구 성과 고찰. 『한어문교육』 12. 107-136.
- 문교부(1988), 『한글 맞춤법』.
- 안배근(2002), 사이시옷의 표기 변천. 『국어문학』 37. 84-111.
- 양순임(2011), 사이시옷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에 대하여. 『한글』 293. 117-167.
- 이관규(1998), 된소리되기와 사이시옷 현상의 학교문법론적 접근. 『정광교수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이관규(2012), 한글 맞춤법의 성격과 원리. 『한말연구』 30. 137-158.
- 이관규(2015), 한글 맞춤법의 변천. 『문법교육』 21. 59~83.
- 이관규(2016), 남북한 어문 정책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 임흥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1-35.
- 전수태(2005),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비교』. 녹진.
- 정경일(2016), 국어 어문규범의 표기대상 -한글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의 경우. 『한국어학』 71. 107-132.
- 조선 어문 연구회(1950), 조선어 신철자법. 조선 어문 연구회.
- 조선어학회(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
- 조선어학회(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 조선어학회(1946), 한글 맞춤법 통일안.
-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편찬(2007), 『조선말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
- 채서영(2008), 한국어 사이시옷 표기 혼란과 표준어 정책의 방향. 『언어학』 52. 187-214.
-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정책 변천사 연구』. 박이정.
- 하치근(2002), 남북 맞춤법의 통일화 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논문집』 3. 95-124.
- 한글학회(1980), 한글 맞춤법.
- 한글학회(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한글학회.
-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토 론

“남북한 어문규범의 사잇소리 현상 발음법과 표기법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한 토론문

최용기(국립국어원)

본 발표문은 국어학 연구 논문의 진수를 보는 듯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발표자는 토론자와 비슷한 시기에 국어학 공부를 하였는데 이제는 국어학 연구 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듯해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 발표문을 읽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토론자가 본 발표문을 읽어 보니 막히는 부분도 전혀 없고 지적할 부분도 없으며 오히려 좋은 정보와 자료를 얻었다는 생각밖에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토론이 필요 없는 발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토론자에게도 주어진 임무가 있으므로, 제 경험담도 말씀드리고 발표자의 논문 중에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는 남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 변천 양상에서 ‘한글 맞춤법’(1988)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는 1988년 1월 14일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개정’을 확정 공포(관보 제10837호, 88. 1. 19.)하고 인문과학편수관은 ‘문교 행정’ 특집호(‘88.2월호)에 한글 맞춤법 개정의 의의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어문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 어문 역사상 초유의 사실이라는 점. (2) 학문적 측면: 개정 한글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정통을 유지하고 18년간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국어학계의 학문적 성과가 최대한 반영되었다는 점. (3) 교육적 측면: 언어 현실과 표기 규정의 괴리에서 오는 교육상의 혼란을 최소화한 점. 특히 표준 발음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발표자는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 정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표자는 현행 ‘표준 발음법’은 유일무이하다고 하면서 특히 사잇소리를 표기하는 발음법은 사잇소리 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표준 발음법을 집필한 집필 위원도 이것은 조속히 개정해야 할 규정이라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특히 사잇소리 발음법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표자는 북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발음법 변천 양상에서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과 남한의 표준 발음법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표기에서는 사잇소리를

쓰지 않는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과 사잇소리를 쓰는 남한의 표준 발음법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북한의 국어학자는 북한의 이런 개별 표제어 발음 표시 때문에 오히려 사잇소리 표기를 해야 발음이 정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발표자는 제언에서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하여 모음 뒤에서 표기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자음 뒤에서 표기해야 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자음 뒤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사이시옷 표기를 아예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신 발표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세국어 객체높임의 통어적 결합 제약 연구

허원욱(건국대)

< 차례 >

1. 머리말
2. 객체높임의 통어적 결합 제약
 - 2.1. 매김마디에서의 통어적 결합 제약
 - 2.2. 인용마디에서의 통어적 결합 제약
3.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은 중세국어(15, 16세기) 객체높임 ‘-습-’이 다른 문법범주와 상호 어떠한 통어적 결합 제약 관계를 갖는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객체높임이란 문장에서 객어로 등장하는 대상(일반적으로 사람)을 말할이가 높여주기 위해 결합하는 형태소이므로, 다른 문법범주와 아무런 결합 제약을 가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객체높임은 매김마디에서는 대상법 ‘-오-’나 주체높임 ‘-으시-’와 제약 관계를 가지며, 인용마디에서는 들을이높임 ‘-으이-’와 상호 제약 관계를 가진다.

매김마디에서 객체높임과 대상법 ‘-오-’와의 제약은 ‘객체’라는 범주가 ‘대상’이라는 범주와 통어적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객체높임과 주체높임과의 제약은 복잡한 높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인용마디에서 객체높임과 들을이높임 ‘-으이-’와의 제약은 인용마디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물론 매김마디에서의 제약과 인용마디에서의 제약은 그 성격이 다르다. 매김마디에서의 제약은 순수 통어론적인 제약이며, 인용마디에서의 제약은 엄밀히 말하면 화용론적인 제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한데 묶어 기술한 이유는, 화용론적인 제약도 크게 보면 통어론적 제약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며, 중세국어의 객체높임이 제약 관계를 갖는 곳이 이 두 군데뿐이기 때문이다.

2. 객체높임의 통어적 결합 제약

객체높임 ‘-습-’은 크게 두 군데에서 통어적 결합 제약을 일으킨다. 그 하나는 매김마디에서이며, 나머지 하나는 인용마디에서이다.

2.1. 매김마디에서의 통어적 결합 제약

매김마디는 ‘빠져나간 매김마디’와 ‘완전한 매김마디’로 하위분류되는데,¹⁾ 객체높임의 통어적 제약은 빠져나간 매김마디에서만 실현된다.

매김마디에서의 결합 제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상법 ‘-오-’와의 제약이며, 다른 하나는 주체높임 ‘-으시-’와의 제약이다.

2.1.1. 대상법 ‘-오-’와의 제약

- (1) ㄱ. 제 지순 罪 (석보 9 : 30) ← 『罪를 짓다』
ㄴ. 그 敎化 혼 사름미 (능엄 1 : 4) ← 『사름을 敎化하다』

중세국어에서 대상법 ‘-오-’는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머리말이²⁾ 매김마디 풀이말의 의미상의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해 들어간다. (1)의 머리말 ‘罪, 사름’은 매김마디 풀이말 ‘짓-, 敎化하-’의 의미상의 대상이다.

그러나 머리말이 매김마디 풀이말의 의미상의 대상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오-’가 연결되지 않는 예문들이 있다.

- (2) ㄱ. 閻浮提入 內에 밍꺄스븐 부텃 像 (월석 21 : 193)
ㄴ. 優填王이 밍꺄스븐 金像 (월석 21 : 203)

(2ㄱ) ‘부텃像’과 (2ㄴ) ‘金像’은 매김마디 풀이말 ‘밍꺄-’의 의미상의 대상이므로 대상법 ‘-오-’가 삽입되어 ‘밍꺄스븐(밍꺄+습+오+ㄴ)’으로 실현되어야 할 터인데, 실제로는 ‘-오-’가 삽입되지 않은 ‘밍꺄스븐’으로 실현되었다.

이처럼 대상법 ‘-오-’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ㄱ, ㄴ)의 매김마디 풀이말에는 모두 객체높임 ‘-습-’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습-’은 모두 머리말 ‘부텃像’, ‘金像’을 높여주고 있다. ‘-습-’은 머리말이 의미상의 부림말임을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오-’는 잉여적이 되어 탈락된다. ‘-오-’는 매김을 받는 머리말이 의미상의 부림말임을 표시해 주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인데 ‘-습-’이 이미 그것을 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곧 ‘-습-’과 ‘-오-’는 ‘통어적인 겹침’이 일어나, 통어적으로 더 중요한 ‘-습-’이 남고(우리말에서 높임법이 대상법보다 훨씬 더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힘이 약한 ‘-오-’는 탈락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에서 ‘-오-’는 모두 이와 같은 이유로 탈락되었다.

- (3) 長史 듣즈븐 마리 (용 65장)
魔下 듣즈븐 마리 (용 65장)
佛影은 그 窟애 사뭇 보습논 부텃 그르메라 (월석 7 : 55)
다시 듣좁논 法 (법화 6 :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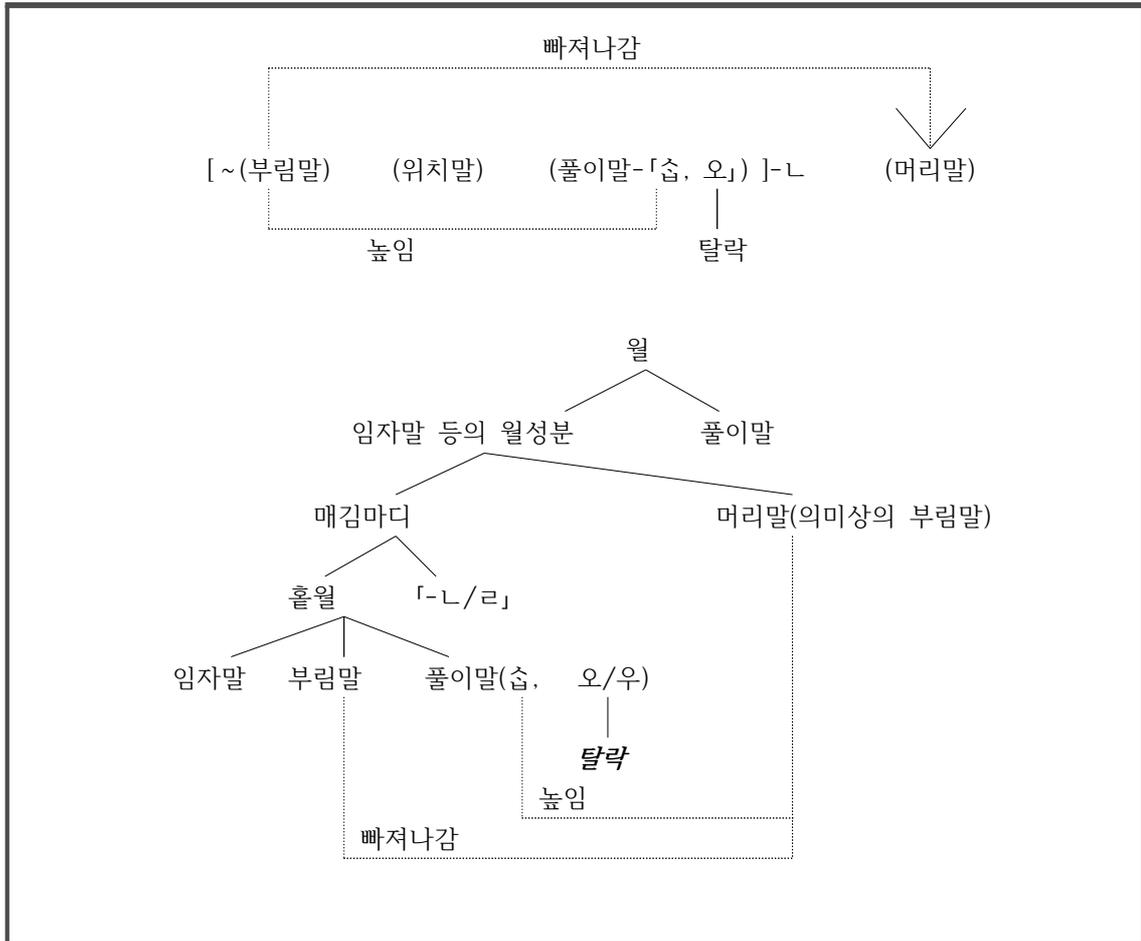
1) 허 응(1983), 273쪽.

2) 속구조에서 빠져나와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이름씨를 ‘머리말’이라 칭하겠다.

다시 들즈불 法 (월석 18 : 20)
 過去에 부테 거샤다...天人神龍의 모다 供養호습느니라시니 (법화 6 : 92) ← 『天人神龍이
 이(부터)를 공양호습는다』
 世間에 慧日이 업스샤 울워스복리 업거샤다 (석보 33 : 19) ← 『이(사롬)를 울워습다』

즉 부림말이 빠져나간 매김마디에 ‘-습-’이 연결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칙이 성립된다.

< 「-오/우-」 탈락 규칙 >



2.1.2. 주체높임 ‘-으시-’와의 제약

(4) 空王佛은 釋迦스 三僧祇劫中間에 만나산 부터시니라 (법화 4 : 58) ← 『釋迦 | 부터(空王佛)를 만나스복시다』

(4)에서 매김마디 풀이말 앞의 임자말(釋迦)과 머리말(부터)은 모두 높여야 할 대상인데, 매김말에 ‘-습-’과 ‘-으시-’가 동시에 연결되지 않고, 앞의 임자말을 높이는 ‘-으시-’만 연결되었다. 그리고 머리말은 뒤에서(안은마디의 풀이말에서) ‘-으시-’로 높여주고 있다.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이다.

(5) ㄱ. 本來 섬기시는 부터는 證_하산 果_를 表_하시니 (월석 18 : 66)(법화 7 : 5) ⇐ 『부터를 섬기스_복시다』

ㄴ. 스승 사_만산 부터 또 일후미 觀_音이라 訶_사문 因果이 서르 마즈시며 古_今이 訶 道 | 실씨라 (능엄 6 : 2) ⇐ 『부터를 스스로 사_만스_복시다』

부림말이 빠진 매김마디에서, 그 매김을 받는 의미상의 부림말을 ‘-습-’으로 높여야 하고, 동시에 임자말은 ‘-으시-’로 높여야 할 경우에는 매김말에 ‘-습-’과 ‘-으시-’는 함께 연결되지 않는다. 이때 ‘-오-’는 탈락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습-’이 이미 탈락되어 ‘-오-’는 잉여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의 편의상, 다음의 예를 들기로 한다.

우리 世_尊이…七_萬五_千佛을 만나스_복시니 (월석 2 : 9)

위의 월을 매김마디로 만들면 이론상 「*七_萬五_千佛을 만나스_복신 世_尊」, 「*世_尊이 만나스_복산 七_萬五_千佛」과 같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 매김을 받는 임자씨와 매김말 앞에 오는 임자말 혹은 부림말을 동시에 높이고자 할 때는 매김말에 ‘-습-’과 ‘-으시-’가 동시에 연결되지 않고, 매김말 앞의 월성분을 높이는 형태소만 연결된다. 즉 다음과 같이 된다.

七_萬五_千佛을 만나스_복 世_尊
世_尊이 만나산 七_萬五_千佛

일단 이렇게 된 후에, 매김을 받는 임자씨가 월 안에서 임자말로 기능하면 안은마디의 풀이말에 ‘-으시-’가 붙고, 부림말로 기능하면 ‘-습-’이 붙어 그 임자씨를 높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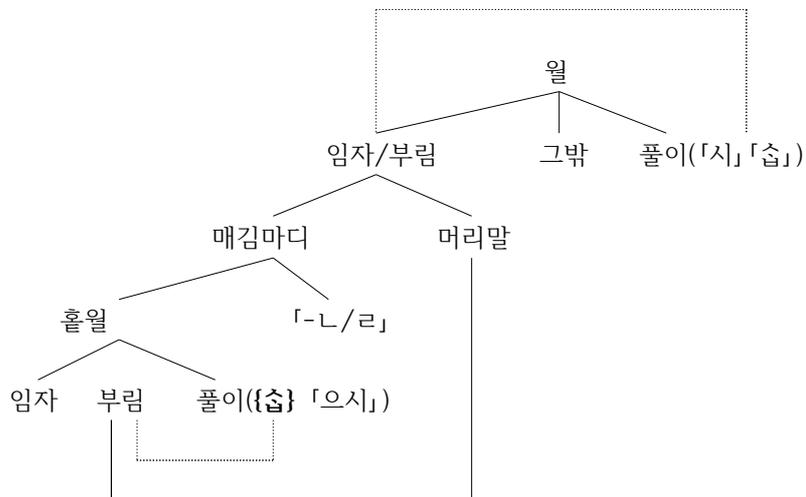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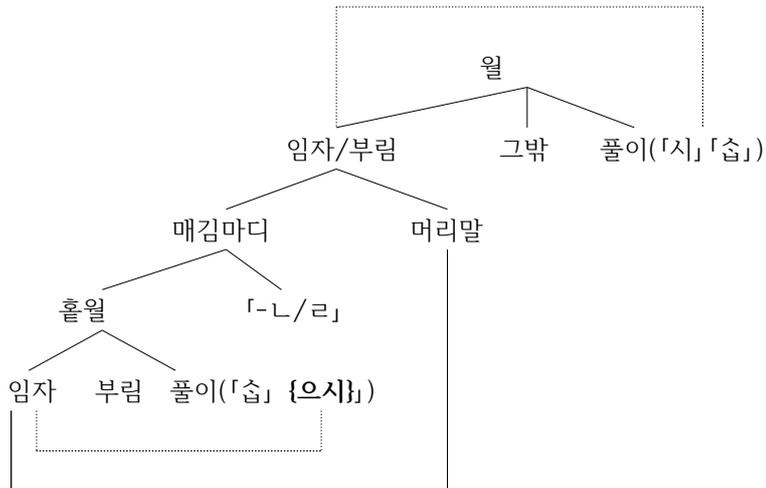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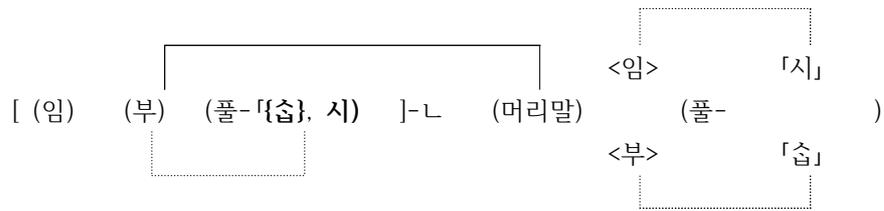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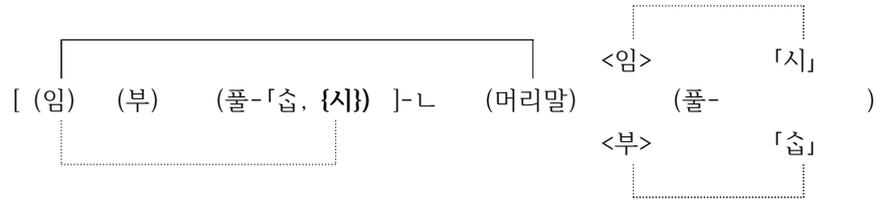
┌七_萬五_千佛을 만나스_복 世_尊이 … 「-으시-」…
└七_萬五_千佛을 만나스_복 世_尊을 … 「-습-」…
┌世_尊이 만나산 七_萬五_千佛이 … 「-으시-」…
└世_尊이 만나산 七_萬五_千佛을 … 「-습-」…

이렇게 ‘-습-’과 ‘-으시-’의 겹침을 매김마디에서 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매김을 받는 머리말(빠져나간 월성분)은 뒤에서 다시 높여 주므로 굳이 매김마디에서 미리 높여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즉 높임의 겹침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빠져나간 매김마디는 속구조에서의 월성분이 빠져나가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에 두 개의 높임 형태소를 연결하여, 그 중 하나는 매김마디의 풀이말 뒤의 머리말을 미리 예측하여 높여 주어야 한다면, 말할이나 들을이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매김마디가 아닌 월이나 완전한 매김마디에서는 ‘-습-’과 ‘-으시-’가 얼마든지 함께 연결된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잉여적인 높임 형태소 하나는 탈락된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탈락규칙이 성립된다.

<‘-으시-’, ‘-습-’ 탈락 규칙>

※ 점선은 높임, 실선은 빠져나감, { }은 탈락, <임>은 머리말이 임자말로 기능함을 표시.



2.2. 인용마디에서의 통어적 결합 제약

인용마디를 안은 마디의 풀이말에 ‘-습-’이 연결될 때, 안긴 인용마디의 들을이높임 ‘-으이-’와 상호 결합 제약이 일어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시 몇 가지로 나뉜다.

- ① 안은마디에 ‘-습-’이 연결되는 경우
- ② 안은마디에 ‘-습-’과 ‘-으시-’가 함께 연결되는 경우
- ③ 안은마디 풀이말 ‘듣-’에 ‘-습-’이 연결되는 경우

2.2.1. 안은마디에 ‘-습-’ 연결

(6) 有僧 | 趙州和尚^씩 問^ㅎ 스오디 [어니 이 祖師 西來^ㅎ 산 쓰디닛고] (선가 12)

(6)은 안은마디 풀이말 ‘問^ㅎ-’에 객체높임 ‘-습-’이 연결되어 위치말 객체(=들을이=趙州和尚)를 높인 예문이다. 이렇게 되면 안긴 인용마디에는 ‘-으이-’가 연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들을이(통어상의 위치말 객체)가 말할이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들은 안은마디 풀이말이 ‘습-’인 경우인데, 이는 ‘-습-’이 연결된 것과 동등한 통어적 가치를 가진다(습보다=말^ㅎ 스오디).

(7) 내 부터^씩 말쓰물 습보다 [내야 받즈보리이다] ^ㅎ스보이다 (석보 24 : 31)

大師 | 王^씩 습보다 [瞿曇이 弟子 | 두리여 묻 오^ㅎ이다] (석보 6 : 29)

目連이 습보다 [羅喉羅 | …涅槃 得호물 부터 ㄱ^ㅎ시^ㅎ ㅎ리이다] (석보 6 : 3~4)

이러한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말할이) B(들을이)에게 [C]라고 말씀을 드리다(ㅎ습-)’

‘말씀을 드리다(ㅎ습-)’는 위치말 객체(들을이)를 높여 주고 있다. 이는 들을이가 말할이보다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용마디에는 들을이 높임의 ‘-으이-’가 연결되는 것이다.

(8) 魔王이 世尊^씩 습보다 [瞿曇아 나^ㅎ 一切衆生이 다 부테 드외야 衆生이 업거사 菩提心을 得호리라] ^ㅎ더라 (석보 6 : 46)

(8)에서는 인용마디의 풀이말에 ‘-으이-’가 연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것을 말할 당시에는 말할이(魔王)가 들을이(世尊)보다 높은 위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마디를 이끄는 말에 들을이(통어상의 위치말: 世尊)를 높이는 ‘습-’만 오고, 말할이(통어상의 주체: 魔王)를 높이는 ‘-으시-’는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세존이 마왕보다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2. 안은마디에 ‘-습-’과 ‘-으시-’ 연결

(9) ㄱ. 文殊 | 維摩詰의 문조오샤디 [어느 不二法門이잇고] (남명 상 : 25)

ㄴ. 齊宣王이 문조와 고투샤디 [사름이 다 날드려 날오디 明堂을 毀홀꺼시라 허느니 毀허리잇가 말리잇가] (맹자 2 : 17)

(9ㄱ)은 안은마디의 풀이말에 ‘-습-’과 ‘-으시-’가 함께 연결되는 경우이다. 이때에도 안긴 인용마디의 풀이말에 ‘-으이-’가 연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말할이와 들을이를 함께 높여준 것인데, 말할이보다 들을이가(통어상으로는, 주체보다 객체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습-’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9ㄴ)의 ‘문조와 고투샤디’는 (9ㄱ)의 ‘문조오샤디’와 동등한 통어적 가치를 가진다.

(10) 摩耶 | 부텃기 솔복샤디 [죽사릿 어리에 解脫을 하마 證과이다] (월석 21 : 8)

摩耶夫人이 地藏菩薩의 다시 솔복샤디 [엇데 일후미 無間地獄이잇고] (월석 21 : 41)

(10)의 ‘솔복샤디’는 ‘-습+으시-’와 동등한 통어적 가치를 가지므로 안긴 인용마디에 모두 ‘-으이-’가 연결되었다.

2.2.3. 안은마디 풀이말 ‘듣-’에 ‘-습-’ 연결

(11) [釋迦牟尼佛이 法中에 便安흔 이리 만흐시고 설븐 일돌히 업스샤디] 듣좁노라 (월석 10 : 26)

← [내 法中에 便安흔 이리 만코 설븐 일돌히 없노라] 듣좁-

(11)은 안은마디 풀이말 ‘듣-’에 ‘-습-’이 연결된 경우이다. 이때는 인용마디에 ‘-으이-’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객체는 인용마디가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듣-’이 입음(피동)의 뜻을 가지기 때문이다.

‘A(들을이) B(말할이)에게서 [C]라는 말씀을 듣다(듣좁-)’

‘말씀을 듣다(듣좁-)’는 인용마디[C]를 높여 줌과 동시에, 그것을 말한 사람인 B를 높여 주고 있다(인용마디를 말한 사람 B는 높임의 대상이고, 듣는 사람 A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에서 들을이 높임의 ‘-으이-’는 들어가지 않았다.

(11)에서 간접높임으로 바뀔 때 ‘-으시-’가 들어간 이유는, 말할이 B가 인용마디 안에서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곧, 입힘의 뜻을 가진 말(‘ㅎ-’ 따위)이 인용마디를 이끄는 경우, 여기에 객체높임의 ‘-습-’이 연결되면, 인용마디에는 ‘-으이-’가 연결되고, 입힘의 뜻을 가진 말(‘듣-’)이 올 때는 ‘-으이-’가 연결되지 않는다.

(12) 네 僣이 夫子의 듣조오니 고투샤디 […小人이 道를 사랑하면 브림이 쉽다] 호이다 (논어 4 : 31)

前日에 虞 | 夫子의 듣조오니 고투샤디 […人을 尤티 아니한다] 호이다 (맹자 4 : 33~4)

(12)는 안은마디 풀이말이 ‘듣조오니 곶으샤디’인 경우인데, ‘듣좁-’은 ‘니르시-’ 혹은 ‘곶으시-’와 같은 통어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11)과 마찬가지로 인용마디에 ‘-으이-’가 연결되지 않는다.

(13) 나는 餽子씩 듣좁고 餽子는 夫子씩 듣조오시니 곶으샤디 […그 몸을 辱히디 아니하면 可히 올 오다 닐올디라] 하시니 (소학 4 : 18)

(13)은 ‘듣-’에 ‘-좁-’과 ‘-으시-’가 연결된 예문이다. 이때의 ‘-으시-’는 ‘나’가 ‘餽子’를 높여 주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인용마디의 들을이높임 제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3. 맺음말

이 논문은 중세국어 객체높임의 ‘-좁-’이 다른 문법범주와 어떠한 제약 관계를 갖는가를 살펴 보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객체높임 ‘-좁-’은 크게 두 군데에서 통어적 결합 제약을 일으킨다. 그 하나는 매김마디에서이며, 나머지 하나는 인용마디에서이다.

② 매김마디에서의 결합 제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상법 ‘-오-’와의 제약이며, 다른 하나는 주체높임 ‘-으시-’와의 제약이다.

③ 대상법 ‘-오-’와의 제약: 객체높임 ‘-좁-’이 머리말을 높여 주는 경우, 대상법 ‘-오-’는 잉여적이 되어 탈락된다. ‘-좁-’이 이미 빠져나간 머리말이 대상임을 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④ 주체높임 ‘-으시-’와의 제약: 부림말이 빠진 매김마디에서, 그 매김을 받는 의미상의 부림말을 ‘-좁-’으로 높여야 하고, 동시에 임자말은 ‘-으시-’로 높여야 할 경우에는 ‘-좁-’이 탈락한다. 이때 ‘-오-’는 탈락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좁-’이 이미 탈락되어 ‘-오-’는 잉여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인용마디를 안은마디의 풀이말에 ‘-좁-’ 혹은 ‘-좁+으시-’가 연결되는 경우, 안긴 인용마디 풀이말에는 ‘-으이-’가 연결된다.

⑥ 인용마디를 안은마디의 풀이말 ‘듣-’에 ‘-좁-’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안긴 인용마디 풀이말에 ‘-으이-’가 연결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9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집문당, 362 ~ 365쪽.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52 ~ 63쪽.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286 ~ 321쪽.
- 김봉모(1978), 매김말의 기능, 『한글』 162, 한글학회, 17 ~ 36쪽.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317 ~ 388쪽.
- 김영송(1971), 국어의 변형 구조, 연구보고서, 문교부.
-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160 ~ 191쪽.
- 김주원(1984), 통사 변화의 한 양상, 『언어학』 7, 한국언어학회.
- 김차균(1990), 『우리말 시제와 상의 연구』, 태학사, 7 ~ 78쪽.
- 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탐구 II』, 태학사, 623 ~ 629쪽.
- 서정수(1991),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 한국문화사, 163 ~ 220쪽.
- 하치근(1999), 『우리 말본의 이해』, 한국문화사, 257 ~ 270쪽.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330 ~ 359쪽.
- 허 응(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532 ~ 534쪽.
- 허원옥(1993), 『15세기 국어 통어론』, 샘문화사.

▣ 토 론

“중세국어 객체높임의 통어적 결합 제약 연구”에 대한 토론문

최대희(제주대)

이 논문은 중세국어(15, 16세기) 객체높임 ‘-습-’이 다른 문법범주와 상호 어떠한 통어적 결합 제약 관계를 갖는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서술하였듯이 객체높임은 다른 문법 범주와 아무런 결합 제약을 가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특정한 월에서는 통어적 결합 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 제약을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예문을 검토하여 규칙성을 발견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습-’의 결합 제약과 관련한 선행 연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는 여러 편의 논문에서 결합 제약의 양상과 원인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¹⁾ 이 논문에서도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약 양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법의 ‘-오-’와 객체 높임의 결합 제약을 ‘잉여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예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글을 읽었는데, 선생님의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학으로서, 규칙을 설명할 때 처리 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입니다. 규칙성을 설명할 때 전체의 예문에서 보편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이 있을 때, 보편적인 규칙만을 설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편적이지 않은 예외가 되는 부분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김마디에서 ‘-오-’와의 제약에 관한 부분과 ‘-으시-’와의 제약에 관한 부분에서, 전자는 대상법에서 ‘-습-’과 ‘-오-’는 잉여적인 자질 때문에 ‘-오-’가 탈락한다고 설명하였고, 후자는 ‘-으시-’와 ‘-습-’은 높임의 겹침과 구조의 복잡성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둘은 제약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예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입장에서 규칙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현 양상을 살펴보다 보면 예외가 종종 있습니다.²⁾ 이럴 때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월의 종류에 따라 제약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객체높임은 겹월의 매김마디와 인용마디에서만 제약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매김마디의 월과 인용마디의 월에서만 제약이 나타나고, 나머지 홑월이나 다른 겹월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1) 허원옥(1992, 1993, 2010ㄱ, 2010ㄴ)...

2) 받잡논 宮殿 (월석14:21, 24, 27)

十方佛 보스오시논 이틀 다시 飄호야 (법화5:75)

正히 문즈오산 條目을 ㄱ르치니라 (월각상2~3:5)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습-’과 ‘-으시-’ 대해 높임의 겹침과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제약된다고 하셨는데, 홀월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름마디나 어찌마디 등의 겹월도 구조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김마디의 월과는 다르게 제약이 되지 않아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학문이 부족하여 무지한 질문만 드린 것 같습니다. 좋은 논문을 읽을 기회를 주신 허원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부 <주제 토론>

『한말연구』에 실린 논문 성향 분석

윤혜영(한라대)

< 차례 >

1. 머리말
2. 『한말연구』분야별 게재 논문 분포
3. 『한말연구』분야별 게재 논문 성향
4. 맺음말

1. 머리말

본 학회는 199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학술지 『한말연구』에 지금까지 총 481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우리말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한말연구』는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¹⁾ 등재 후보지로 선정된 후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를 인정받아 곧이어 2007년에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한국어학의 전반적이고 우수한 논문을 수록하여 해당 학문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한말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성향을 분석하여 한말연구학회의 30년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말연구』제1호(1995) ~ 제39호(2016)까지 게재된 총 481편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학술지의 전반적인 성향을 고찰한 후, 분석된 분야별 특징을 기술하여 한말연구학회의 30년 연구 성과를 정리하기로 한다. 또한, 이어지는 발표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분야별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논문 성향을 개괄적으로만 살피고자 한다.

2. 『한말연구』 분야별 게재 논문 분포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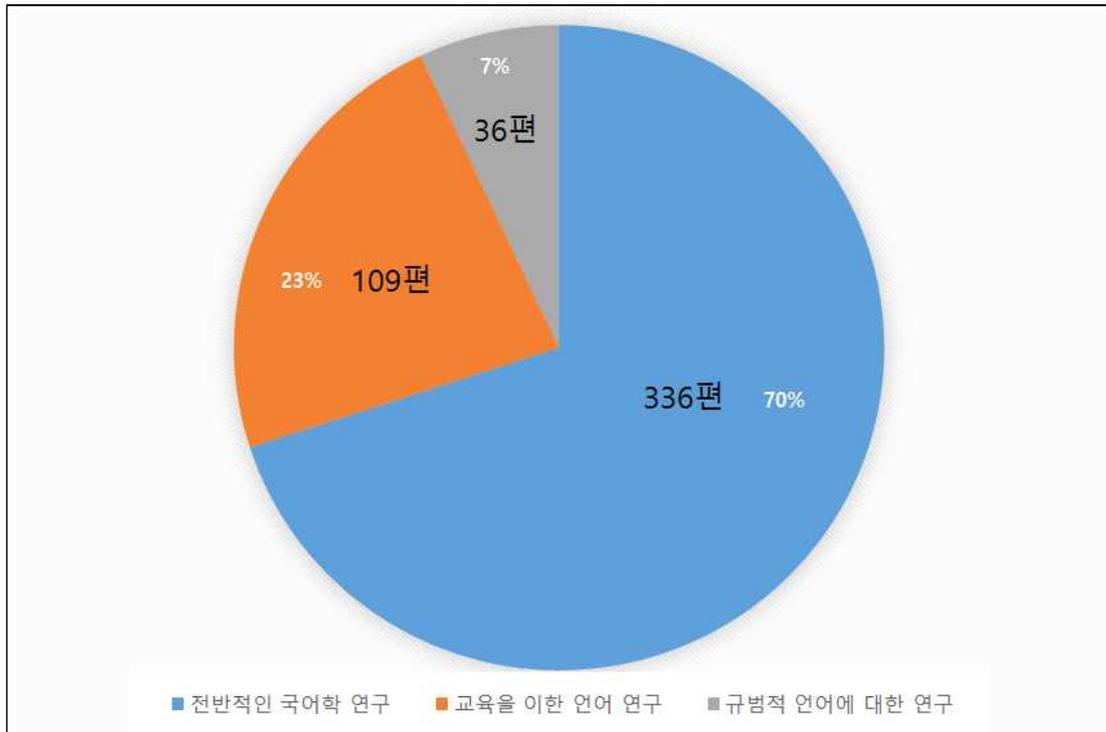
『한말연구』 창간호(1995년)부터 39호(2016년 3월)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481편이다.³⁾ 분석

1)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9년 '한국연구재단'이란 이름으로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함께 하나로 통합되었다.

2) 논문 분야를 나누는 기준점이 발표자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3) 논문의 총 편수는 분석 초기에 『한말연구』1호부터 39호까지 실린 논문을 대략적으로 도표에 정리하면서 반복 게재된 논문과, 『한말연구』에 실리지 않았으나 논문이라 보기 어려운 '알림'의 글을 제외한 총수이다.

초기에는 총 481편의 논문들을 대분류할 때에 ‘국어학 연구, 언어학 일반이론 연구, 국어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연구’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언어학 일반이론’으로 분류한 논문들이 대부분 응용국어학 분야에 속하여 대분류를 수정하게 되었다. 수정된 대분류는 크게 ‘전반적인 국어학 연구,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 교육을 위한 언어 연구’ 분야이며, ‘전반적인 국어학 연구’ 분야 논문은 336편,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 분야 논문은 36편, ‘교육을 위한 언어 연구’ 분야 논문은 109편이다. 대분류 분야별 연구 분포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잿말연구획분야별 연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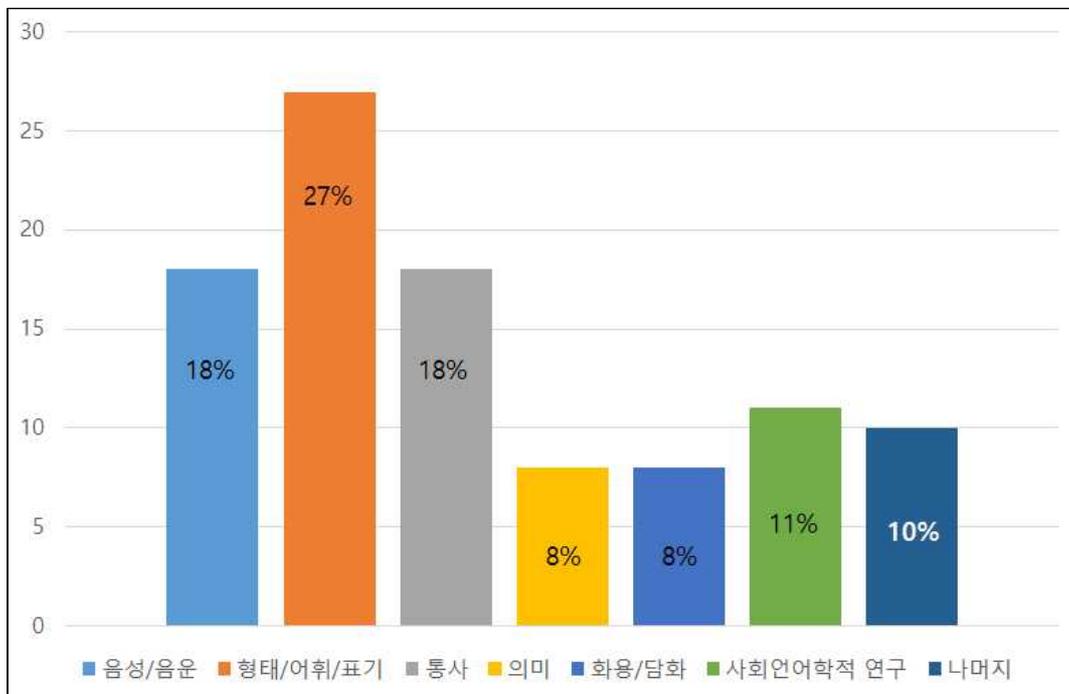
세부 분야는 연구 내용 및 방법론, 영역 등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최대한 주제와 연구목적에 무게를 두어 나누었으며, 그 세부 분야를 나누어 보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잿말연구획논문의 세부 분야 목록

대분류	세부 분야	논문 편수
전반적인 국어학 연구 (336편)	음성·음운 연구	61
	형태·어휘·표기 연구	90
	통사·문체 연구	59
	의미 연구	28
	화용·담화 연구	27
	사회언어학적 연구	36
	훈민정음 관련 연구	6
	연구사·문헌주해·국어학자 관련 연구	23
	언어에 대한 연구	4
	문학작품의 언어적 접근 연구	2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 (36편)	남·북한 언어 연구	7
	사전 연구	15
	표준어·맞춤법 연구	4
	전문용어 연구	2
	언어정책 연구	8
교육을 위한 언어 연구 (109편)	국어 교육 연구	56
	한국어 교육 연구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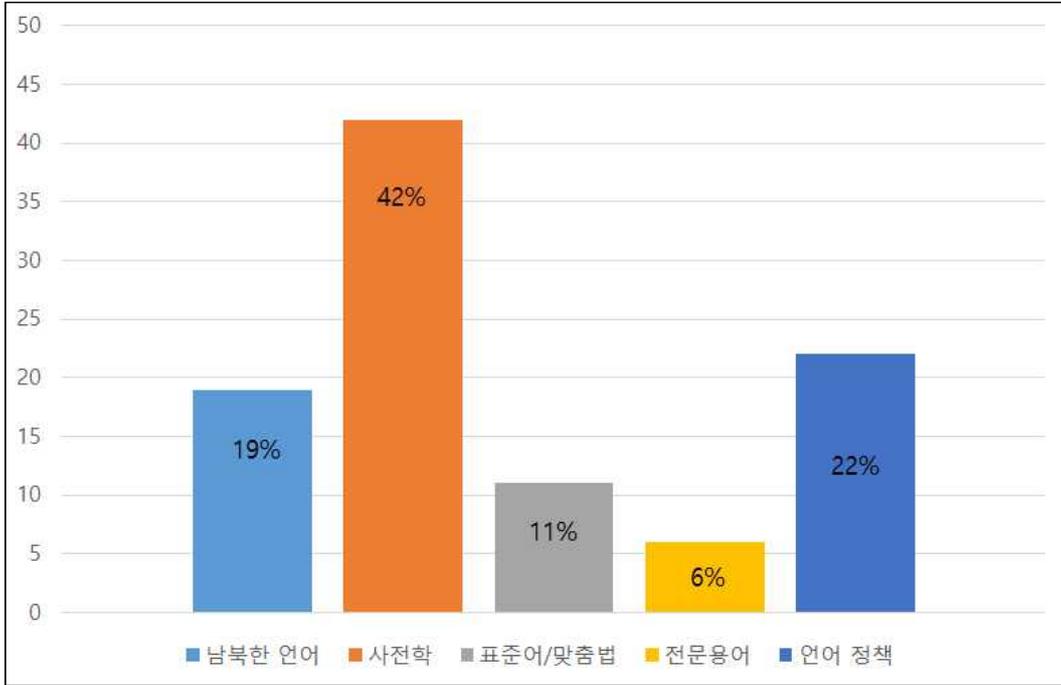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분류 중 ‘전반적인 국어학 연구’ 분야는 그 세부항목이 10가지에 이른다. 이 중에서 ‘훈민정음 관련 연구, 연구사 관련 연구, 언어에 대한 연구, 문학작품의 언어적 접근 연구’ 등은 한 영역에 편성하기 어려워 나누었으나, 그 비율이 낮아 ‘나머지’로 칭하여 분포를 보이기로 한다. ‘전반적인 국어학 연구’ 분야 분포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반적인 국어학 연구’ 분야 분포

<그림 2>에서 ‘나머지’로 지칭된 연구들의 분포는 각각 ‘훈민정음 관련 연구(1.8%), 연구사/문헌주해/국어학자 관련 연구(6.8%), 언어에 대한 연구(1.2%), 문학작품의 언어적 접근 연구(0.6%)’이다. 이를 토대로 그 분포를 보면 ‘전반적인 국어학 연구’ 분야에서 순수국어학적 연구가 8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분류 중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 분야의 분포를 보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 분야 분포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사전 연구'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전문용어 연구'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다.

대분류 중 마지막으로 '교육을 위한 언어 연구' 분야 분포를 보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교육을 위한 언어 연구' 분야 분포

'교육을 위한 언어 연구' 분야에 속하는 '국어 교육'(56편)과 '한국어 교육'(53편) 연구는 거의

비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젯말연구**획분야별 게재 논문의 분포를 토대로 각 분야의 연구 성향을 3장에서 개괄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3. 『한말연구』 분야별 게재 논문 성향

3.1. ‘전반적인 국어학 연구’ 분야의 논문 성향⁴⁾

<1> 음성·음운 연구

음운 연구 논문은 **젯말연구**획창간호부터 거의 모든 호에 게재되었으며, 총 61편에 이른다. 음운 연구 논문이 실리지 않은 호는 ‘10호(2002상), 31호(2012하), 36호(2015상), 39호(2016상)’가 전부인데, 2002년 상반기에 발간된 10호를 제외하면 모두 4년 이내 최근 발간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음운 연구 논문 게재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언 및 방언 성조와 관련된 논문은 총 17편으로 음운 연구 논문 중 28%를 차지하고 꾸준히 게재되고 있으며, 전체 61편의 논문 중에서 국어사 논문이 23편(38%)으로 현대국어 음운 연구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형태·어휘·표기 연구

형태 연구 논문은 **젯말연구**획창간호부터 39호까지 꾸준히 게재되어 총 90편에 이른다. 주제에 있어서는 품사 관련 논문이 32편으로 가장 많으며 품사 중에서는 조사 관련 연구가 16편으로 절반을 차지한다.⁵⁾ 그 다음으로 어미와 관련된 연구가 16편, 어휘에 대한 연구가 14편 게재되었으며, 어휘에 관련된 연구는 등재지 선정 후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되었다.⁶⁾ 그 외에도 ‘피·사동사, 접사, 조어법, 표기, 지명’ 등의 논문이 다양하게 실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90편의 논문 중에서 국어사 논문이 35편(42%)으로 현대국어 형태 연구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통사·문체 연구

통사 연구 논문 역시 창간호부터 꾸준히 게재되어 총 59편에 이른다.⁷⁾ 주제에 있어서는 겹문장(복문) 관련 논문이 2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겹문장 중에서는 안은문장(내포문) 관련 연구가 26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⁸⁾ 통사 구조 및 제약을 연구한 논문이 9편으로 다음으로 많이 게

4) 각 분야의 연구 성향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되, 주된 연구 분야를 간추려 성향을 기술하기로 한다.

5) 품사와 관련된 32개 연구는 다시 ‘조사(16편), 형용사(4편), 의존명사(3편), 합성명사(3편), 관형사(2편), 대명사(2편), 부사(1편), 감탄사(1편)’으로 정리할 수 있다.

6) **젯말연구**획가 등재지에 선정되기 이전까지 게재된 어휘와 관련된 논문은 5편이었으나, 등재지 선정 후 지금까지 9편이 더 실려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통사 연구 논문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단 여섯 번만 게재되지 않았으며, 실리지 않은 호는 ‘14호(2004), 19호(2006), 20호(2007), 24호(2009), 37호(2015), 39호(2016)’이다.

8) 안은문장 논문은 대부분 ‘부사절(7편), 명사절(6편), 관형절(5편), 인용절(5편)’을 연구하였으며, ‘주격중출문(2

재되었으며, 문장성분과 관련된 논문은 등재지 선정 후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되었다.⁹⁾ 이밖에도 ‘높임법, 사동법, 어순, 문체론’ 등의 논문이 다양하게 실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사 연구 논문 59편 중에서 국어사 논문이 32편(54%)이 실려 현대국어 통사 연구 논문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의미 연구 및 화용·담화 연구

의미 연구 논문은 1호부터 39호 중 50%의 비율로 게재되어 총 28편에 불과하다. 이 분야의 논문은 특히 형태·통사와 연결된 연구가 많아, 형태 연구와 연결된 논문이 16편, 통사 연구와 연결된 논문이 5편에 이른다. 또한 국어사 연구는 5편(18%) 실려 옛말 의미 연구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게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용 연구 논문은 5호부터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1호부터 39호 중 54%의 비율로 실려 총 27편에 불과하다. 또한, 게재된 화용 연구 논문들 중에는 동일 연구자의 논문이 다수인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적 연구 논문은 ‘통신언어, 광고언어, 모바일 소셜미디어 언어’ 등과 같은 언어를 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연구한 것으로, 2003년 12호부터 거의 꾸준히 게재되어 총 36편에 이른다. 최근 30호부터 현재 39호까지는 모든 호에 다양한 연구자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논문이 실린 바 있다.

<6> 연구사·문헌주해·국어학자 관련 연구

연구사 및 국어학자 관련 연구는 총 23편에 이른다. 이는 국어학자와 연구사에 관련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젯한말연구학에 게재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3.2.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 분야의 논문 성향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는 총 36편이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분야는 ‘사전 연구’이다. ‘상징어 사전, 국어 발음 사전, 한국어 용법 사전, 초등 국어 사전’ 등 다양한 사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물들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게재되었다.

‘남북한 언어 연구’ 논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만 젯한말연구학에 게재되어 한시적 성향을 보이는 반면, ‘언어 정책’ 연구 결과물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게재되었다.

편)과 ‘분열문(1편)’ 연구도 게재되었다.

9) 문장성분과 관련된 논문이 등재지 선정 이전에는 ‘주어’와 관련된 논문 1편이었으나, 이후 ‘주어, 서술어, 보어’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어 지금까지 젯한말연구학에 실린 문장성분 관련 논문은 5편에 이른다.

3.3. ‘교육을 위한 언어 연구’ 분야의 논문 성향

교육을 위한 언어 연구는 총 109편으로, ‘국어 교육’ 분야 논문은 56편이다.¹⁰⁾ ‘국어 교육’ 연구 논문은 6호(2000년)부터 꾸준히 게재되었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국어교육 관련 연구가 39편(70%)에 이르는 데 반해, 유아 교육 관련 논문은 6편(11%)에 그친다. 또한, 대학생 대상 국어 교육 관련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8편(14%)이 실렸으며, 전체 연령 내지는 성인 대상 국어교육 관련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3편(5%)이 게재되었다.¹¹⁾

‘한국어 교육’ 분야 논문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게재되어 총 53편에 이른다. 2000년부터 다섯 호를 제외하고 꾸준히 실린 ‘한국어 교육’ 연구들은 **젯한말연구**기획등재지 선정 이후인 2007년부터는 더욱 활성화되어 26호 한 호를 제외한 모든 호에 게재되었다. 논문 편수를 보더라도 2007년 이전에는 15편(28%)이 실렸으나, 이후에는 38편(72%)으로 대폭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젯한말연구**제1호(1995) ~ 제39호(2016)까지 게재된 총 481편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학술지의 전반적인 성향을 고찰한 후, 논문 성향을 개괄적으로만 기술하였다.

대분류는 ‘전반적인 국어학 연구’,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 ‘교육을 위한 언어 연구’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세부 분야는 연구 내용 및 방법론, 영역 등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최대한 주제와 연구목적에 무게를 두어 나누었다.

창간호부터 꾸준히 게재된 논문 분야는 ‘음운 연구’, ‘형태 연구’, ‘통사 연구’였으며, ‘통사 연구’는 옛말 연구 논문이 조금 더 많이 실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미 연구’와 ‘화용 연구’는 1호부터 39호 중 절반 정도의 호에만 게재되어 ‘음운, 형태, 통사 연구’의 논문보다 낮은 분포를 보인다.

규범적 언어에 대한 연구는 총 36편이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분야는 ‘사전 연구’이다. ‘상징어 사전, 국어 발음 사전, 한국어 용법 사전, 초등 국어 사전’ 등 다양한 사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물들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게재되었다.

‘국어 교육’ 연구 논문은 6호(2000년)부터 꾸준히 게재되었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국어교육 관련 연구가 39편(70%)에 이르는 데 반해, 유아 교육 관련 논문은 6편(11%)에 그친다. ‘한국어 교육’ 분야 논문 역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게재되어 총 53편에 이르며, 2007년 이전에는 15편(28%)이 실렸으나, 이후에는 38편(72%)으로 대폭 늘어나 ‘한국어 교육’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문헌

10) 분석 초기 데이터 정리에서는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이 58편으로 집계되었으나, 내용을 살핀 결과 그 중에서 2편의 논문은 각각 ‘문체론’ 연구와 ‘통사론’ 연구로 판단하여 56편으로 재정리하였다.

11) ‘전체 연령 내지 성인 대상’이란 ‘치유적 글쓰기’와 같이 반드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님을 뜻한다.

국어학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박동근(대진대)

< 차례 >

1. 머리말
2. 국어학 전문 학술지로서의 젯말연구의 정체성과 지향성
3. 투고 논문의 분석
4. 젯말연구 국어학 분야의 특징 및 문제 분석과 제언

1. 머리말

이 글은 1993년 6월 30일에 발간된 젯말연구 창간호(제1호)부터 제39호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 (순수) 국어학 분야의 논문 실적과 특징들을 양적 방법론을 주로 하여 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국어학 분야란 국어 연구의 분석 층위에 따른 기본 영역인 ‘음운(음성), 형태, 통사, 의미, 담화(텍스트), 어휘’와 이들 각각을 통시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국어사 분야를 말한다. 국어 자체가 연구 대상이 아닌 ‘국어학사’나 ‘국어 정책’과 일반 언어학 영역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기획 발표를 위해 연구부에서 1차로 분류하여 배부한 자료에서 방언을 ‘음운’ 영역을 분류하였으나 방언은 언어 층위에 따른 영역이 아니므로, 방언의 연구 층위에 따라 영역을 다시 분류하였다. 기타 일반 언어학 분야로 분류한 논문 가운데에도 연구의 핵심이 음운, 형태, 통사,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분야로 분류하는 등 일부를 조정을 하였다.¹⁾

이 글은 목적이나 내용으로 볼 때 국어학사의 성격을 갖는다. 국어학에 대한 사적 기술이나 평가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모두 고려되어 하며, 학문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어학 전반에 대한 사적 논의가 아니라 젯말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분석의 내용이 곧 일반적인 국어학의 연구 동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초점은 국어학 전문 학술지로서 젯말연구의 정체성 및 지향성에 대해 거시적으로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주목하며 개별 논문의 질적 평가는 하지 않는다.²⁾

1) 앞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국어학’ 논문은 위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논문을 말한다.

2) 몇몇 역사가 깊은 학회지들은 이와 유사한 주제로 특집호를 꾸민 사례가 있다.

권인한(2010), 젯<국어학>, 50년-총론적 고찰회 국어학회.

남기탁(2012), 젯국어학 연구 60년의 회고와 전망회 국어국문학회.

염은열(2012), 젯국어학연구 중심으로 본 국어교육 연구의 흐름과 과제회 국어국문학회.

2. 국어학 전문 학술지로서의 『한말연구』의 정체성과 지향성

2.1. 정체성 문제

『한말연구』는 창간호부터 ‘국어학’ 전문 학술지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수록하는 논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한말연구』 제2호 발간을 협의한 이사회(1995년 11월 4일)에서이다.

“논문의 내용: 국어학 관계 논문, 서평, 국어학 자료 발굴 및 소개 등 자유 주제”
(1995년 11월 8일 이사회 결과 안내문)

이후, 『한말연구』 제3호의 휘보(1997년 6월)에 실린 『한말연구』 제4호 원고 모집 안내에서 “국어학 및 언어 일반에 관한 연구, 자료 발굴 및 소개, 서평 등”으로 ‘언어 일반’ 영역을 추가하였고, 2000년 2월 16일 『한말연구』 제6호 원고 모집 안내문에서는 투고 범위를 ‘국어학, 국어 교육, 언어 일반에 관한 연구, 자료 발굴 및 소개 서평 등’으로 하여 ‘국어교육’ 분야가 새로 추가되었다.³⁾ 『한말연구』 제8호(2001년 6월)에 처음으로 “학회지 출판·투고·심사 규정”이 마련되어 부록으로 수록하는데 이때까지 『한말연구』 공식적인 투고 분야는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분야로 한정된다.

- (1) 학회지 출판·투고·심사 규정(『한말연구』 제4호 부록)
제5조 (내용) ① 국어학 및 언어학 논문.
② 국어 교육학 논문.
③ 위 ①②와 관련된 자료 및 소개.
④ 위 ①②와 관련된 서평 등.

또 개정된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31호부터(2012년 12월 31일 발행) ‘한국어 교육 논문’이 추가되게 되었으며 2015년 7월 15일에 개정된 투고규정에서는 새로 ‘글쓰기’ 분야를 추가하여 ‘38호’부터 글쓰기 분야 논문의 수록을 공식화하였다.

(2) 명문화된 『한말연구』 투고 범위의 확대 양상

1호 (1995)	4호 (1998)	8호 (2001)	31호 (2012)	38호 (2015)
국어학	국어학 언어학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글쓰기

이러한 『한말연구』의 투고 범위의 확대 양상은 학계 및 교육 현장에서 각 분야의 활성화와 유

3) 『한말연구』 부록의 안내문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모집 분야에 ‘국어교육’이 빠져있으나 실제 논문은 계속 접수하였다.

관하며 **젯한말연구학**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꾸준히 외연을 확대해 왔다고 할 수 있다.⁴⁾ 물론 그 중심에는 ‘국어학’이 있다. 하지만 이런 외연 확대 과정에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글쓰기’ 분야에서 국어학과 무관한 주제의 논문들이 걸러지지 않고 수록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어학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지의 정체성 문제가 내부적으로 지적되었다. 실제 **젯한말연구학** 투고 안내문에는 꾸준히 어학 관련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해오고 있지만, 투고자들이 주의하지 않거나 편집자 또한 이를 민감하게 처리하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학회지 투고 규정에는 **젯한말연구학**의 투고 범위가 ‘어학 관련 논문’에 한정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학회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학회지 투고 규정(**젯한말연구학**제38호 부록)

제2조 (원고 내용)

- ① 국어학 및 언어학 이론 및 현상에 대한 연구
- ② 국어 교육학 및 한국어 교육 논문
- ③ 글쓰기 등 기타 국어 관련논문
- ④ 위 ②이나 ③은 어학 관련 논문이어야 함.

이런 학회지의 정체성의 혼란은 **젯한말연구학** 국어학의 특정 영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합 국어학 학술지⁵⁾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국어학 이외의 분야가 걸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록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2 『한말연구』의 지향점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서구의 학회와 달리 국내의 국어학 관련 학회들은 학교(대학)를 중심으로 한 ‘학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지 심사 제도를 둔 이후 많은 학회들이 외연적으로 대학 기반의 색채를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게 마련이다. 학맥을 기반으로 한 대학 중심의 학회들은 결속력을 위해 굳이 학문적 입장이나 태도 등을 명문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그 결과 지향점이 뚜렷하지 못하고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발한 한말연구학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학회 초기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공감이나 학회 이름이나 학회 이름에 대한 소개에서 학회의 지향점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한말’은 ‘우리 겨레, 곧 한겨레의 말’이란 뜻으로 쓴 것입니다. 일찍이 주시경 선생이 이른 바 있는 ‘한나라말’을 줄인 셈이며, 우리 겨레의 문자를 ‘한글’이라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4) 실제 관련 분야의 논문들은 명문화 또는 수록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젯한말연구학**에 수록었다. 학술지 투고 규정이 학회지 운영의 현실을 쫓아간 것이다.

5) ‘종합 국어학 학술지’란 ‘형태론’, ‘한국어 의미학’, ‘구결연구’, ‘문법교육’처럼 특정 분야의 국어학 영역에 특화되지 않고,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국어학 전 영역의 논문을 수록하는 학술지를 의미함.

또한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저자의 문법 용어 사용은 학회지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젯한말연구회**에 수록된 투고자들의 문법 용어 사용이 여타 학술지에 비해 고유어 용어 사용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심사에 반영하는 등 공식화한 적은 없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학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종합 국어학 학술지를 표방하는 학회지 간에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이다.

3. 투고 논문의 분석

3.0 전체 국어학 논문의 계량적 분석

<표 1> **젯한말연구회**1~39호 국어학 분야별 수록 논문

	음운 (음성)	문법		의미	담화 (텍스트)	어휘	합계
		형태	통사				
현대	30 (17.1%)	48 (27.4%)	23 (16.7%)	22 (12.6)	40 (22.9%)	10 (5.7%)	173 (66.0%)
사적 연구	28 (32.2%)	25 (28.7%)	28 (31.4%)	5 (5.7%)		3 (3.4%)	89 (34.%)
모두	58 (22.1%)	73 (27.9%)	51 (19.5%)	27 (10.3%)	40 (15.7%)	13 (4.7%)	262 (100%)

젯한말연구회 1~39호에 수록된 국어학 분야 논문은 모두 262편으로 총 수록논문 483⁶⁾편의 54%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형태론이 27.9%로 가장 높으며 어휘론 분야가 13%로 가장 낮다. 현대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6.8%로 사적 연구인 33.2%보다 높다. 어휘를 제외하면 음운, 문법, 의미, 화용 전분야의 논문들이 두루 수록되어 종합 국어학 학술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수치상 특징적인 것은 현대어와 달리 사적 연구 분야에서는 ‘음운’ 연구가 32.2%로 가장 높고, 통사 분야의 연구는 사적인 연구가 28편으로 현대어를 대상으로 23편보다 많다.

발간 호수에 따른 분야별 논문 수록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젯한말연구회**1~39호 호수별 수록 논문

연도	호수	음운 (음성)	문법		의미	화용 (텍스트)	어휘	국어학 논문 총수	수록 논문 총수	국어사 ⁷⁾
			형태	통사						
1995	1	2	4	4				10	14	1
1996	2	1	4	1	1			7	12	2
1997	3	3	3	1	2			9	14	4

6) 편수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7) 국어사 분야의 숫자는 앞의 ‘음운, 문법, 의미, 화용’과 별개의 논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적인 논문의 수를

1998	4	2	5	2	2		1	12	16	5
1999	5	1	1	2	2	1	1	8	11	2
2000	6	1	1	1			1	4	12	1
2000	7	2	2	2	1	2		9	12	2
2001	8	2	1	1	3			7	10	2
2001	9	2		1	3	2		8	9	2
2002	10		1	1	3	2		7	9	1
2002	11	1		1		1		3	14	2
2003	12	3	1	2		1		7	9	2
2003	13	2	1	1	1	3		8	11	2
2004	14	3	2			1	1	7	11	1
2004	15	2	2	2		1	1	8	13	4
2005	16	3	2	1				6	11	3
2005	17	2		2		1		5	13	3
2006	18	2	2				1	5	12	3
2006	19		4	1	1	1	1	8	15	3
2007	20	1	2	3	1	3		10	13	1
2007	21		1			1	1	3	15	2
2008	22	1	4	1				6	15	3
2008	23	1	2	3		3	1	10	16	4
2009	24	2	1		1			4	12	2
2009	25	2	2	2		1		7	13	2
2010	26	1	3	1		1		6	11	2
2010	27	1	3	2		1		7	16	4
2011	28	2	2	1			1	6	15	3
2011	29	1		3		2	2	8	15	3
2012	30	3	2		1	1		7	13	3
2012	31		1	2	1	4		8	14	1
2013	32	1	2	2	1	1	1	8	13	2
2013	33	2	1	1	1	1		6	14	1
2014	34	1	2	1	1			5	11	4
2014	35	3		1		1		5	13	1
2015	36		2	1		1		4	8	2
2015	37	1	1	1				3	11	1
2015	38	1	4		1	1		7	9	1
2016	39		2			2		4	8	2
									483	

발간 호수에 따른(시기에 따른) 논문 수록 분야의 뚜렷한 변화 양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창간 호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각 분야의 국어학 논문들이 고루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저한말연구~~기획각 호에 수록된 논문의 총수 대비 국어학 논문의 수를 보면 1995년 창간 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어학 논문의 비중이 뚜렷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편의상 5년 단위로 묶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시한 것이다.

<표 3> **젯한말연구** 1~39호 호수별 수록 논문

호수	수록논문총수		국어학논문수		합
1~5	67	59.2	46	40.8	113
6~10	52	59.8	35	40.2	87
11~15	58	63.7	33	36.3	91
16~20	64	64.0	34	34.0	100
21~25	71	70.3	30	29.7	101
26~30	70	67.0	34	33.0	103
31~35	64	66.7	32	33.3	96
36~39	36	66.7	18	33.3	54

1호부터 5호에 투고된 논문의 총 수는 67편으로 그 가운데 46편이 국어학 논문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게재된 논문수의 40.8%에 해당하는 수다. 10호까지 40%선을 지키던 국어학 논문의 비중은 2002년 이후인 11호~15호에서 30%대로 떨어지고 21호~25호에서는 20%후반까지 낮아진다. 최근의 세 기간 동안은 3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국어학계에서 응용 국어학 분야가 대두되고, 특히,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글쓰기 등의 논문이 학회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젯한말연구**에서 국어학 분야의 논문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3.1 음운(음성 분야)

젯한말연구에 수록된 음운 분야의 연구는 58편이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이중 28편이 사적 연구로 현대어 연구와 사적 연구가 거의 비슷한 정도이다. 사적 연구에서는 특히 고대국어음운에 대한 연구로 최남희의 일련의 연구와 이근영의 변동규칙에 대한 사적 연구에 주목할 만하다.

최남희	고대국어 표기 자료 「지」의 소릿값	1997/3호
최남희	신라 인명에 반영된 신라 한자음 형성에 관한 연구	1998/4호
최남희	고대국어 표기 자료 「시」의 소릿값	1999/5호
최남희	고구려어의 흡소리 연구	2005/16호
최남희	고대국어흡소리「ㄹ(e)」의 존재에 관한 연구	2005/17호

이근영	“명의록언해”에 나타난 변동규칙 연구	1996/2호
이근영	18세기국어의 변동규칙	1998/4호
이근영	첩해몽어(捷解蒙語)의 음운론적 연구	2003/13호
이근영	여사서언해(女四書諺解)의 음운론적 연구	2004/15호
이근영	<무예도보통지언해(武藝圖譜通志諺解)>의 음운론적 연구	2009/24호
이근영	<정속언해(正俗諺解)>의 변동규칙 연구	2010/26호
이근영	<스민필지(士民必知)>의 음운론적 연구	2011/28호

연재 형태의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가 **저한말연구**를 통해 집대성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저한말연구에 수록된 음운론 분야 연구의 큰 축은 ‘성조’ 연구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로는 최영미의 논문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김차균	우리말 성조 방언에서 반평성과 반거성	2003/13호
강흥구	울진 방언 가사문학 작품의 성조 연구	2006/19호
강흥구	광양 방언의 성조 연구	2009/25호
최영미	어중 된소리되기과 운율 구조	2001/9호
최영미	정선방언"가,다"류동사의성조형의변화	2010/27호
최영미	<여씨향약언해>화산본의성조연구-<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의 성조와 비교를 중심으로-	2012/30호
최영미	정선방언의 비음절화와 성조의 변동	2013/33호
최영미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연구	2014/35호
최영미	강원방언"가,다"류동사의성조변화	2015/38호

음운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전통적 또는 구조주의적인 방법에서 연구되었으며, 생성음운론의 측면에서 접근한 논의는 없다. 또한 국어학계는 2000년대를 전후해서 그간 변방에 있던 음성학이 전면에서 등장하는 데 반해, 성조 연구를 제외하면 음성학적 접근을 한 논문은 거의 없다.

3.2 문법 분야

문법 분야의 논문은 형태 73편 통사 51편을 더하면 124편으로 전체 국어학 논문 262편 가운데 47.4%로 절반을 차지한다.

문법 범주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피사동법이다. 특히 사동법 분야에서 김형배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김형배	"-시키다"에의한합성적 사동법연구	1995/1호
김형배	20세기국어의사동사파생에관한연구	1996/2호
김형배	국어 사동사 파생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97/3호
김형배	16세기초기국어의사동사파생과사동사의변화-「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를중심으로-	1998/4호
김형배	16,17세기국어의사동사의변화	1999/5호
조용준	서술성 명사의 피동화에 대한 고찰	1996/2호
이정택	두 가지 유형의 {시키}	2005/16호
조일규	현대국어의 하임 풀이씨 뒷가지와 그 파생 양상	2006/18호

사적인 연구로는 특히 통사론 분야에 허원욱, 윤혜영 등의 일련의 연재 연구가 집중적으로 발표되어 **저한말연구**를 통해 집대성하는 장이 되었다.

허원옥	16세기국어의매김마디연구	1997/3호
허원옥	16세기임자말로기능하는이름마디	1998/4호
허원옥	15세기국어이음마디때매김법제약	2002/10호
허원옥	16세기국어이음마디때매김법제약	2002/11호
허원옥	16세기어찌마디의통어론적연구	2003/12호
허원옥	17세기이름마디의통어론적연구-임자말로기능-	2004/15호
허원옥	17세기국어매김마디의통어론적연구	2005/17호
허원옥	중세국어 말풀이 인용구조 연구	2008/23호
허원옥	17세기"-기"이름마디의통어적연구-부림말로기능-	2009/25호
허원옥	18세기국어매김마디의통어론적연구	2014/35호
윤혜영	17세기국어인용마디의통어적연구-"닐다"류중심으로-	2007/21호
윤혜영	"너기다"류에나타난어찌마디연구-15,16세기중심으로-	2008/23호
윤혜영	"너기다"류에나타난어찌마디연구-17·18세기중심으로-	2010/27호
윤혜영	조선시대 운음 언해본에 나타난 인용구조 연구	2011/29호
윤혜영	18세기전기외국어학습서에나타난인용구조연구	2015/36호

형태 연구는 미시적으로 특정 형태소의 결합양상이나 생성에 대한 논의나 거시적으로 어미 또는 접사 전반의 체계에 대해 논의한 것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회지로서의 특이성을 찾기는 어렵다. 32한말연구 1~39호가 발표될 즈음, 특히 초기는 70년대 한국어의 통사론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생성문법이 세력을 잃고 90년대 활발히 논의되었던 생성형태론이 부각되던 시기이나 한말연구에 수록된 연구들은 주로 전통적인 방법이나 기능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들이 많았다.

3.3 의미·담화(텍스트)·어휘 분야

32한말연구에서 의미 분야의 논문은 10.3%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27편의 의미 연구 가운데 18편은 어휘 의미, 9편은 문장의미에 대한 연구로 어휘 의미 연구의 비중이 높다. 어휘 의미 가운데 '의성어·의태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편으로 가장 많다. 김홍범·이영주의 연구는 연재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의미 연구는 대부분 현대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27편의 연구 가운데 5편만이 사적 연구이다.

김진해	상징부사의 의미 기술 연구 -"딱"을 중심으로-	2001/9호
김홍범, 이영주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 (1) -소리 상징어를 중심으로-	2009/24호
김홍범, 이영주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3)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중심으로-	2012/31호
임지선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방안	2015/38호

국어학에서 담화·화용(텍스트)은 의미론의 변방에 있던 연구 분야이나 90년대 후반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분야이다. 『한말연구』 4호(1999) 이후 꾸준히 화용(텍스트) 분야의 연구가 수록되었다.

주제별로는 ‘광고’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발표가 가장 많았다.

서은아	신문광고 표제에 사용된 대화의 기제	2003/12호
윤재연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텍스트성 고찰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야기가 차용된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2010/26호
윤재연	정책 광고의 텍스트성 연구 -이명박 정부 시기의 정책 광고를 중심으로-	2015/36호
윤재연	TV 식품 광고 변천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2016/39호
전정미	공익광고에 나타난 설득 전략 연구	2012/31호
전정미	공익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지시화행의 실현 양상 연구	2013/33호
전정미	인쇄 공익광고의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 실현 양상	2014/35호
정윤희	TV공익광고의 시대 변천 연구 -주제와 문장유형을 중심으로-	2013/32호

담화(텍스트) 분야는 모두 현대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 분야 중 유일하게 사적 연구가 없다.

어휘 분야의 연구는 비중이 가장 낮아 13편으로 전체 국어학 연구 분야의 4.7%에 불과하다. 이는 어휘 관련 연구가 구조적인 부분은 형태 분야에서, 어휘 의미에 관한 내용은 의미 분야에서 다루어지며, 많은 부분들은 사전 편찬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휘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순수한 어휘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이 어휘 사용 양상, 조사 방법 정도에 국한된다.

김택구	안양 지역 가게 이름(상호)의 고찰 -상호의 언어 계통별 경향 분석-	1998/4호
최용기	광고 언어 조사 연구 - 고유어와 한자어를 중심으로 -	1999/5호
김한샘	국어 어휘 분석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2004/14호
박동근	구어 흉내말의 계량적 연구	2004/15호
박동근	동시 텍스트의 흉내말 사용 양상 연구	2011/29호
김일환	공기어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 -<가족>과 <친구>를 중심으로-	2011/29호

4. 『한말연구』 국어학 분야의 특징 및 문제 분석과 제언

이 연구는 『한말연구』 4호(1999) 이후 2016년 39호까지 총 18호에 수록된 국어학 분야 논문들의 양상을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한말연구』에 수록된 국어학 논문의 양상을 살피는 데는 『한말연구』 창간된 1995년 이후 특히 2000을 전후한 국어학계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법과 구조주의 생성문법에 이르기까지 이론 중심의 국어 연구 기반은 **젯한말연구학** 창간할 즈음인 90년 대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큰 흐름은 한 마디로 ‘구조에서 기능으로’라고 할 수 있다.

① 연구 분야	음성학(음향 음성학), 담화화용론(+텍스트 언어학), 국어학사, 사전편찬학, 국어교육/한국어교육, (글쓰기)
② 연구 대상	(남)북한 언어, 구어, 통신언어, 관용어(언어), 구결, 신어, 국어정책(어문규범), 흉내말(의성어·의태어)
③ 연구 방법	생성 형태론, 계량언어학(국어 정보학, 전산언어학, 말뭉치 언어학), 인지언어학(의미론), 사회언어학 ⁸⁾

<그림 1> 1990년대 이후 한국어 연구에서 대두된 요소들(박동근, 2015)

우선 연구 분야로 순수 이론 국어학 연구가 주춤하고 기능 교육이 중시되는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의 분야가 대두하였으며, 이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대학 작문’이 폐지되고 ‘글쓰기’로 대체되면서 주로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젊은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또는 본의 아니게 글쓰기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들을 학회지에 투고하기 시작하였다. 기능 연구의 대두는 기존의 연구 대상이나 방법을 ‘구어에서 문어로’, ‘음운에서 음성으로’, ‘어휘·문장에서 텍스트로’, ‘질적 연구에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연구로’ 전환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암묵적으로 순수 국어학 학술지를 지향했던 **젯한말연구학** 논문 구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KCI에서 제공하는 **젯한말연구학** 주요 키워드 목록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말연구 KCI 키워드 Cloud(www.kci.go.kr)

<p>말뭉치, 구어, 표준어, 성조, 한국어+교육, 빈도, 교육과정, 어휘, 문어, 변동규칙, 한국어, 인용 마디, 상고음, 표기, 어휘력, 문법, 문화, 문법화, 형용사, 언어+정책, 성조형, 화행, 의사소통, 구어+말뭉치, 공익광고, 의미, 흉내말, 표제, 텍스트,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어사전, 기능, 느낌+그림씨, 본문, 접사, 의성어, 생략, 통합적인+언어+프로그램, 부사격조사, 글쓰기, 상징어, 간접인용, 직접인용, 연결어미, 품사, 표준+발음, 어찌마디, 표기법, 주어</p>

종합 국어학 학술지로서 **젯한말연구학**가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기능 중심의 실용적인 연구 주제를 수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과정에서 국어학과 무관한 연구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나 한국어 문화교육, 일반 글쓰기 등이 걸러지지 못한 것은 학회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젯한말연구학**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한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단지

8) ‘생성형태론’, ‘인지언어학’ 등을 ‘언어 이론’으로 구분할 여지가 있으나, 언어 이론 역시 방법론의 하나라는 점에서 하나로 묶었다.

순수 국어학 연구에 비중을 두는 것만으로는 여타 종합 국어학 학술지와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학회지의 존재 이유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연구재단의 등재지 심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향후 학술지들의 경쟁 구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회지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한말연구학** 취해야 할 명확한 지향점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⁹⁾

좋은 학술지는 좋은 논문으로 평가 받으며 이는 곧 뛰어난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자의 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응용 분야에 비해 이론 및 순수 국어학 분야의 연구는 연구자의 연구 역량이 논문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지금까지 **저한말연구학**는 창간호부터 젊은 학자에게 문호를 넓히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저한말연구학** 가져야 할 기본 입장이라 생각하지만 좀 더 높은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자의 투고 또한 꾸준히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저한말연구학** 극복해야 할 점은 투고자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회가 소규모 모임에서 출발하였으며, 여전히 충성심(?) 높은 초기 구성원들이 학회의 주축이 되어 운영되다 보니 투고자가 한정된 경향이 있다. 학회지의 정체성을 지키고 집중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저한말연구학** 기존 연 2회 출판에서 올해부터 연 4회 출판으로 게재 논문의 수가 많아지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 기반 학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인 연구 후속 인력의 꾸준한 수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회지 투고만을 위해 가입하는 철새 회원들이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한말연구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았지만, **저한말연구학**은 겨우 21살을 넘어선 여전히 젊은 학회지이다. 그간 **저한말연구학**을 통해서 적지 않은 연구실적들이 나왔고 상위권에 속하는 인용지수를 통해 학회지의 위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말연구학**에 수록된 국어학 논문들의 성향은 다소 보수적이며 도전적이지 못하다. 아쉽지만 학계에 큰 쟁점을 만들어 내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런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9) 학회지의 지향점이 정해지면 논문 투고 범위를 제한하거나 심사 규정이나 심사 항목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국어교육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신 호 철(청주대)

< 차례 >

1. 머리말
2. 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3. 국어교육 연구 향후 과제
4. 맺음말

1. 머리말

본 학회 창립 이후 30년이 지났고, 젯한말연구회를 발간하기 시작한 지는 2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1995년 젯한말연구회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39호의 세월을 거치며 수많은 연구자가 본 학회와의 인연을 맺고 그 인연으로 학문의 세계로 점입(點入)하여 자신의 학문의 여정(旅程)을 펼쳐가고 있다.

본 학회는 본래의 목적이 우리말글에 대한 연구와 탐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국어교육 분야의 연구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말글에 대한 연구나 탐구는 우리말글 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탐색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는 우리말글 연구 지평의 확장의 길이고 학회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문은 젯한말연구회 학회지에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곧 한말학회의 지난 30년간 연구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학회지 젯한말연구회에 실린 국어교육 분야의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연구 양상과 동향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한말학회의 정체성과 병합하면서 국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 활동을 개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젯한말연구회 제1호(1995) ~ 제39호(2016)까지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 연구 논문 58편에 대한 양적 동향 분석을 수행한다. 곧 교과내용 영역과 교과교육 영역으로 이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게재 논문들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연도별 척도를 세워 연도별 연구 동향도 분석하고, 게재 논문의 연구자별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다. 이러한 양적 동향 분석을 토대로 그동안 본 학회지에 실린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동향 분석과 함께 앞으로 국어교육(특히 문법 교육) 분야의 과제와 이에 대한 학회 차원의 과제에 대한 발표자 개인의 소견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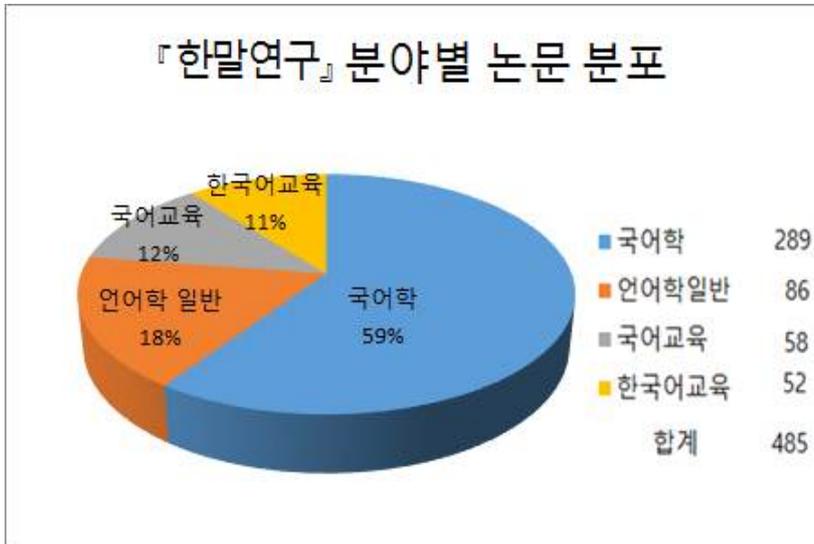
2. 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2.1. 학회지 게재 논문 전체 개요

『한말연구』 1호(1995)부터 39호(2016)까지 게재된 논문 총 수는 485편이다. 이를 국어학, 언어학 일반,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분야 등 크게 4개로 대분류하였을 때, 국어학 분야의 논문 수는 총 289편, 언어학 일반 분야의 논문 수는 86편, 국어교육 분야 논문 수는 58편, 한국어교육 분야 논문 수는 52편이 게재되어 학회지 한 호당 평균 12.4편 정도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 게재 분포 비율을 환산해 보면, 국어학 분야가 59%, 언어학 일반 분야가 18%, 국어교육 분야가 12%, 한국어교육 분야가 11%를 차지하고 있어, 국어학 분야의 분포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한말연구』분야별 게재 논문 분포도



(1)의 분포도에서 언어학 일반 분야의 연구 내용을 보면, 우리말·글에 대한 사전학, 남북 언어, 어문규범, 사회 언어학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어학과 일반 언어학 두 분야를 합산하면 학회지 전체의 77%에 달하는 논문이 우리말·글에 대한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한말연구』의 본래 창간 취지인 ‘우리말·글 연구를 하기 위한’¹⁾ 학술지의 성격과 목적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2.2. 국어교육 분야의 영역별 게재 논문 분석

국어교육 분야에 게재된 논문 수는 총 58편이다.²⁾ 게재된 논문 모두가 1편(編) 1색(色)의 특

1) 『한말연구』 1호에 김승곤 선생님이 쓰신 ‘『한말연구』를 펴내면서’ 중에서 따옴.

2) 학회 연구부에서 주신 자료에는 59편으로 되어 있는데, 『한말연구』 36호에 게재된 정대현 선생님의 ‘처리 교수에서 정의적 활동과 참조적 활동의 교수 효과 비교 연구’가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분야에 중복되어 있

성과 개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결실들이다. 국어교육 분야가 응용 분야이다 보니 논문 연구 주제가 다양하기로는 비할 바가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어교육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교과내용 영역과 교과교육 영역으로 양분하였다. 이렇게 양분한 것은 국어교육 분야의 연구 논문을 보면, 해당 교과내용 영역의 연구라 하더라도 교과교육 영역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곧 교과내용 영역과 교과교육 영역이 통합적으로 묶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대분류를 교과내용 영역과 교과교육 영역으로 양분한다.

그리고 교과내용 영역은 ‘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기타’의 6개의 분야로 하위 분류하였다. 이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분류한 5개 영역을 기본으로 하고, 국어교육 전반에 걸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들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것을 ‘국어’로 분류하고, 이상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것들을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로 분류되는 교과내용 영역의 연구 논문으로는 주로 어휘 교육에 대한 논문이나, 매체에 대한 논문, 유아교육에 대한 논문 등이 있다.

교과교육 영역은 ‘성격·목표, 내용, 방법, 평가, 교재, 교육과정, 그 외’의 7개 분야로 하위 분류하였다. ‘성격·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교육의 과정(process)을 담고 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고, 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재, 교육과정’ 영역을 설정하여 분류한 것이다. ‘그 외’는 교과교육 영역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것들을 위해 설정하였다. 이렇게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2)와 같고, 이를 영역별로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제시한 그래프가 (3)~(5)이다.

(2) 국어교육 영역별 논문 분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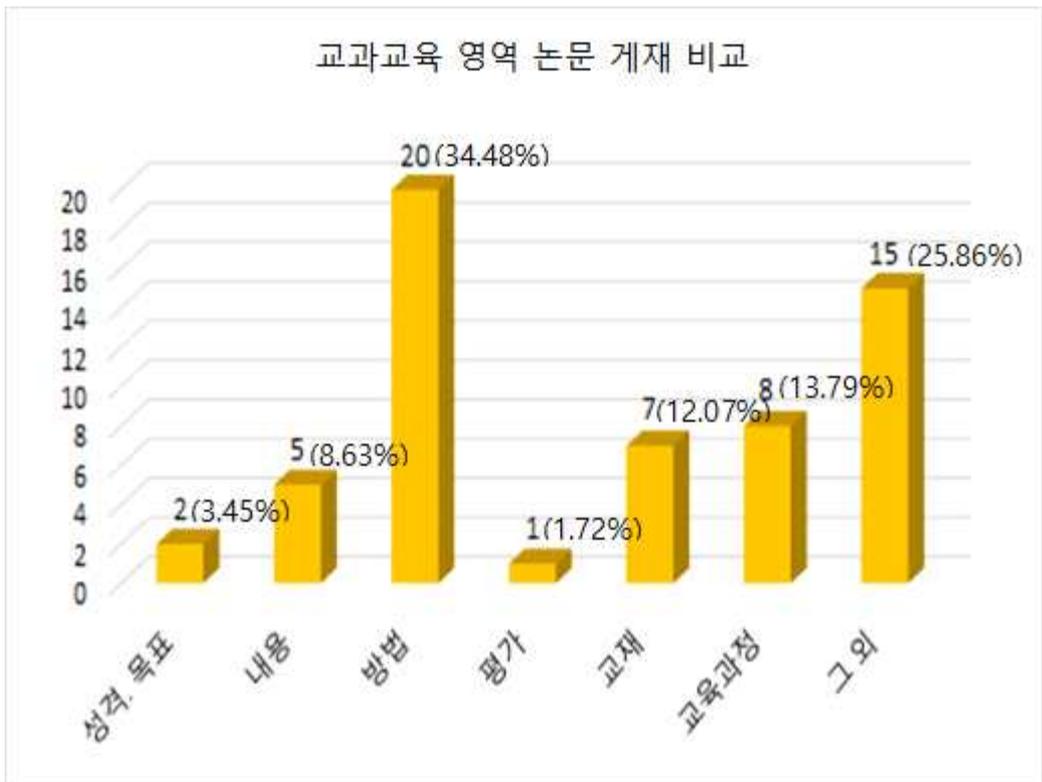
교과내용 영역 교과교육 영역	교과내용 영역							계(백분율 %)	
	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기타			
성격·목표	1	1					2	3.45	
내용					5		5	8.63	
방법	1	1	7	7	4		20	34.48	
평가				1			1	1.72	
교재	1		1	3	3		7	12.07	
교육과정	3		1	1	3		8	13.79	
그 외		1		3	4	6	15	25.86	
계 (백분율 %)	6	3	9	15	19	6	58	100	
	10.34	5.18	15.52	25.86	32.76	10.34	100		

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어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논문으로 판단하고, 이 한 편을 제외하고 총 58편의 국어교육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교과내용 영역 논문 게재 비교 그래프



(4) 교과교육 영역 논문 게재 비교 그래프



(5) 국어교육 영역별 논문 비교 그래프



(2)는 국어교육 분야의 게재된 논문을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그 수치를 제시한 도표이다. (3)은 교과내용 영역의 논문 수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고, (4)는 교과교육 영역의 논문 수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5)는 (2) 도표의 교과내용 영역과 교과교육 영역을 합쳐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3)을 보면 교과내용 영역 중 문법 영역의 논문 수가 19편으로 국어교육 분야의 전체 32.76%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쓰기 영역으로 15편(25.86%), 그 다음으로 읽기 영역 9편(15.52%), 국어 영역과 기타가 각각 6편(10.34%), 듣기·말하기 영역이 3편(5.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법 영역의 논문 게재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학회지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비중이 32.76%라는 것은 학회지의 국어교육 분야는 학회지의 성격이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를 보면 교과교육 영역 중 방법 영역의 논문 수가 20편(34.48%)으로 가장 게재 수가 많다. 다음으로는 그 외가 15편(25.86%), 교육과정 영역이 8편(13.79%), 교재 영역이 7편(12.07%), 내용 영역이 5편(8.63%), 성격·목표 영역이 2편(3.45%), 평가 영역이 1편(1.72%) 순으로 나타났다. 국어교육 분야의 특성상 교육 내용(곧 국어학적 지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 지식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국어교육 연구자들이 국어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5)에서는 교과내용 영역과 교과교육 영역을 통합한 범주로 게재 논문의 수를 표시한 것인데, 국어교육 분야 중 가장 많은 통합 영역의 논문 수는 읽기와 쓰기의 방법 영역이다. 각각 7편씩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오히려 문법 영역의 내용 영역의 게재 논문 수는 5편으로 이들보다 적은

을 알 수 있다. 본 학회지가 우리말·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국어교육 분야의 게재 논문은 문법 영역이 아닌 읽기나 쓰기 영역의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 되었음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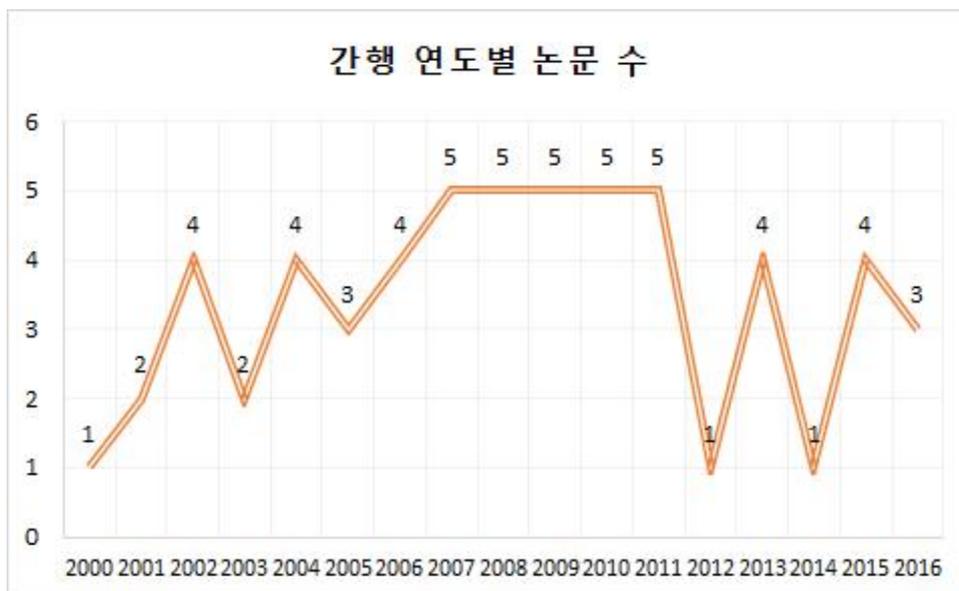
2.3. 국어교육 분야의 간행 연도별 게재 논문 분석

본 절에서는 **저한말연구학회**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을 간행 연도별로 분석해 본다. 우선 국어교육 분야 58편의 논문을 간행 연도별로 분류하면 다음 (6)과 같다.

(6) 국어교육 분야의 간행 연도별 논문 수

간행 연도	논문 수	간행 연도	논문 수
2000	1	2009	5
2001	2	2010	5
2002	4	2011	5
2003	2	2012	1
2004	4	2013	4
2005	3	2014	1
2006	4	2015	4
2007	5	2016	3
2008	5		

(7) 국어교육 분야의 간행 연도별 논문 수 그래프



젯한말연구학술지에 처음으로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은 2000년 제6호에 게재된 강혜진 선생님의 ‘읽기 지도에서 학년간/동료 교수 학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이후 매년 꾸준히 현재까지 학회지에 게재되고 있다. (7)의 그래프를 보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매년 5편의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국어교육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이 10년 동안 사용해오던 7차 교육과정에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국어교육 분야에 정책적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과 2014년에는 게재 논문 수가 각각 1편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2015년에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올 상반기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 수가 3편임을 감안할 때 그 수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

2.4. 국어교육 분야의 연구자별 게재 논문 분석

본 절에서는 젯한말연구학회에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의 저자에 따른 분석을 시도한다. 국어교육 분야에 게재된 논문 연구자의 총 수는 39명이다.³⁾ 논문 수가 58편임에 비해 연구자 수는 이에 비해 적은 편이다. 연구자별로 게재 논문 수를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국어교육 분야의 연구자별 논문 수

논문 수	8편	6편	5편	4편	3편	2편	1편	계
저자 수	1	1	1	1	3	2	30	39

(8)을 보면 전체 39명의 저자 중에 77%에 해당하는 30명의 연구자가 학회지에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가 9명(23%)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8편을 게재한 연구자와 6편, 5편을 게재한 연구자도 각각 1명씩 있음을 알 수 있다. 17년 동안 학회지가 간행하는 동안 연구자 1인이 1편의 논문만을 게재하는 것과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학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 저자 수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어교육 연구 향후 과제

그동안 한말연구학회의 기관지인 젯한말연구학회에 게재된 58편의 국어교육 분야 논문들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하여 본 학회에서 추구하는 국어교육 분야의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자의 소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이 연구자 수치는 공동연구 7편의 논문 저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참고로 2인 공저가 7편, 3인 공저가 1편이 게재되었다.

3.1. 학회의 정체성을 위한 국어교육의 과제

한말연구학회의 설립 목적은 앞에서 밝혔듯이 ‘우리말·글에 대한 연구’에 있다. 이는 국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학회의 정체성에 두고 있음이다. 국어 연구 분야의 외연 확장으로 국어교육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 분야로까지 학회의 연구 분야가 확대되었음은 기지의 사실이다. 국어 연구 분야의 외연 확대는 학회 차원뿐 아니라 국어학계 차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학회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할 때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외연의 확장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말연구학회지에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교과내용 영역을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6개의 영역 중 실제적으로 학회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문법 영역만이 본 학회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문법 영역은 58개 중 19개 논문밖에 실리지 않았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나머지 39개의 국어교육 분야 논문은 학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는 분야의 연구 주제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이 논문들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제안을 하면, 학회 정체성에 맞는 통합적 내용까지는 수용하자는 것이다. 곧 ‘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연구 논문이라 하더라도, 문법과 관련되는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 논문은 학회의 정체성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하자는 것이다. 타 영역과 문법 영역의 통합적 연구에 대하여는 수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연구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학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모호할 뿐이다.

다시 한번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국어교육 연구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2. 국어교육 연구 분야에 대한 과제

국어교육 분야는 그 대상을 기준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유아나 성인을 포함하는 국어교육이 있다. 현재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행하는 것이 전자의 국어교육으로 성인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 교육’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에게 국어의 사용, 이해, 표현 따위를 습득시키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말연구학회에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들을 보면 초·중등교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유아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게재한 것이다. 이는 본 학회가 국어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학회가 아니고 기본적인 줄기는 국어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학회이기 때문에, 협의의 국어교육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현재와 같이 국어교육을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유치중등뿐 아니라 성인 나아가 평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 연구 분야로 넓혀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3.3. 문법 교육 연구 주제에 대한 과제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어교육 영역은 문법 영역이다. 그동안 학회지에 게재된 문법 영역의 논문 수는 19편으로 양적으로 풍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문법 영역의 연구 논문 수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고, 나아가 문법 영역의 연구 주제에 대한 과제로 문법 영역의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9) 문법 영역 게재 논문

저자	제목	게재 연도/호
허재영	국어 지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 -7차 교육 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2002/10호
Rhee Seong Ha	When Stop Goes Further: From Malta "stop" to Auxiliary Verbs in Korean	2003/13호
김홍범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문법의 어말 어미 체계 재고찰	2004/15호
리의도	초등학교 국어과 발음 단원의 내용 연구	2005/17호
유혜령	언어 구조의 다차원성과 학교문법의 연결어미 교육 내용	2006/18호
이관규	제8차 국어과 교육과정(개정안)에서 문법 영역의 특징과 과제	2007/20호
박형우	문법 교육 연구와 교과서 제작 -목표와 내용, 교수, 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2008/22호
이병규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조직 양상 연구 1	2008/23호
허재영	문법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가치 범주 설정 가능성	2011/28호
박성우, 김홍범, 조경희	프로젝트 기반 유러닝을 활용한 국어 교육	2011/29호
오현아	문법 교육에서 맥락의 수용 문제	2011/29호
박보현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이해와 교육적 접근	2012/30호
김혜정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북한의 광고와 뉴스 담화의 화용적 분석을 토대로	2013/33호
이규범	"언어의 역사성" 교육 내용 연구 -"-ㄴ/ㄹ 수박에 없-" 구문을 중심으로-	2015/36호
김미형	조사 "은/는"의 정체성 - 문법서와 교재에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	2015/38호
허재영	사회 방언과 전문 용어 교육의 문제점	2015/38호
김남미	지식구조 발견 절차로서의 국어사 수업 방안	2016/39호
김홍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활용한 문법교수법	2016/39호
신호철	문법 교과서에서 매체의 활용 유형 연구	2016/39호

문법 영역의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문법 내용에 대한 논문이 5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문이 4편, 교재에 대한 논문이 3편, 교육과정에 대한 논문이 3편, 그 외 주제의 논문이 4편이다. -물론 타 영역에서 문법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연구 주제들도 있긴 하다.- 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분야는 방대하다. 그러한 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문법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것이 문법 교육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어학적 연구 결과물을 응용하여 다양한 문법 교육 주제를 창안하고 접근하여 연구 주제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기대한다. 박보현 선생님의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이해와 교육적 접근”이란 논문과 김홍범 선생님의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활용한 문법교수법” 등의 논문이 그러한 창의적인 연구 주제로 발표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3.4. 국어교육 연구자 확장에 대한 과제

앞에서 학회지에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 저자의 총 수가 39명이라고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정보-KRI’ 누리집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국어교육 연구자를 검색하면 482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39명만이 본 학회지에 게재하였다는 사실은 학회 차원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본 학회지의 성격이 국어학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 하나는 대학 중심의 학회적인 성격 때문은 아닌가도 고민해 본다.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고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끔은 맹목적인 전진을 해보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유야 어떠하든 향후 국어교육 연구자의 참여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하나의 과제로 남긴다.

4. 맺음말

이제까지 *한말연구학회*에 게재된 국어교육 분야의 연구 논문 58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발표자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서 발표문을 마치겠다.

먼저 국어교육 분야를 교과내용 영역(6개)과 교과교육 영역(7개)으로 이원적 기준을 제시하여 분류하였다. 국어교육 분야의 게재 논문 중 문법 영역의 게재 논문이 19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교과내용 영역과 교과교육 영역을 통합한 영역의 논문으로는 읽기와 쓰기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문이 각각 7편씩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 발간된 *한말연구* 제6호에 처음으로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꾸준히 게재되고 있는데,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매년 5편씩 게재되었다. 또한 국어교육 분야의 게재 논문 총 저자의 수는 39명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30명의 연구자가 1편씩을 게재하였다.

향후 학회에서 국어교육 분야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국어교육 연구 주제를 문법 영역이나 문법을 포함한 통합적 연구 주제로 제한해야 함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법 교육 영역의 연구 주제의 외연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를 창안해야 함을 제시하였고, 국어교육 연구자를 확장해야 함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30년 후 한말연구학회의 환갑 잔치날 국어교육 분야뿐 아니라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분야의 연구 논문들이 향후 남길 과제가 아닌 과거의 업적으로 칭송받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참고문헌은 **저한말연구학회**지에 실린 국어교육 분야 논문으로 같음함.

저자명	논문 제목	게재연도/호
강혜진	읽기 지도에서 학년간/동료 교수 학습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00/6호
허재영	교과 『독서』 교과서 편재와 개선 방향	2001/8호
이상구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구성주의	2001/9호
허재영	국어 지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 -7차 교육 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2002/10호
김미형	논설문 문체의 변천 연구	2002/11호
한성일	우리말다운 번역과 국어 교육	2002/11호
허재영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의 체제와 내용	2002/11호
정 동환, 정원주	유아의 어휘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언어 프로그램 -동시를 중심으로-	2003/12호
R h e e Seong Ha	When Stop Goes Further: From Malta "stop" to Auxiliary Verbs in Korean	2003/13호
김혜정	한국의 읽기 교육 전개 양상에 관한 일고	2004/14호
김정자	쓰기 과제 구성에 대한 연구	2004/15호
김홍범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문법의 어말 어미 체계 재고찰	2004/15호
정 동환, 정원주	유아의 어휘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언어프로그램 -연극 놀이를 중심으로-	2004/15호
허재영	국어과 교육과정과 독서교육론의 전개 -학문적 정체성 확립 과정을 중심으로-	2005/16호
리의도	초등학교 국어과 발음 단원의 내용 연구	2005/17호
정 동환, 정원주	유아의 어휘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언어 프로그램 - 동화를 중심으로 -	2005/17호
김선정	"읽기 중심의 쓰기" 모형 실행 연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6/18호
김혜정	"교과 독서"의 수업 적용 원리	2006/18호
유혜령	언어 구조의 다차원성과 학교문법의 연결어미 교육 내용	2006/18호
허재영	쓰기 교육과정의 변천과 이론적 배경	2006/18호
김정우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징	2007/20호
이관규	제8차 국어과 교육과정(개정안)에서 문법 영역의 특징과 과제	2007/20호
최미숙	매체 환경에 따른 국어교육의 변화 -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2007/20호
김라연	모둠 독서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글쓰기 변화 양상	2007/21호
정 동환, 정원주	유아의 어휘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언어 프로그램 -전래동요를 중심으로-	2007/21호
박영민, 최숙기	중학생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 연구	2008/22호
박형우	문법 교육 연구와 교과서 제작 -목표와 내용, 교수, 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2008/22호
서종훈	문단 연구양상 및 지도방법 연구	2008/22호
이병규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조직 양상 연구 1	2008/23호
정 동환, 정원주	유아의 어휘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언어프로그램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2008/23호
김경주	신문 칼럼의 읽기 지도에 대한 고찰 -2007 개정 국어과교육과정에 따른 비판적 읽기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2009/24호
김정자	쓰기 수업 평가에 관한 연구	2009/24호
서종훈	문단 인식 방법론에 대한 시론	2009/24호

이동혁, 유혜원	대학 글쓰기에서 주어 사용 오류의 현황 분석과 주어 사용 지도 방안	2009/25호
허재영	대학 글쓰기 교과와 운영 방식과 교재 개발 실태	2009/25호
김남미	대학 교양수업 발표의 피드백 방안	2010/26호
김슬옹	인식 방법론 어휘 담론과 교육	2010/26호
김준희	글쓰기의 치유 과정에 관한 연구	2010/26호
신호철	국어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관점	2010/27호
정희창	글쓰기 교재의 표기·표현 내용 구성 방안 연구	2010/27호
김혜정	국어과 교육내용으로서 맥락의 교육적 실행 연구 -중등 읽기 영역에서의 교수법 및 교재 구성을 중심으로-	2011/28호
허재영	문법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가치 범주 설정 가능성	2011/28호
김남미	TA(teaching assistant) 교육 원칙과 방안 -대학의 글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2011/29호
박성우, 김홍범, 조경희	프로젝트 기반 유러닝을 활용한 국어 교육	2011/29호
오현아	문법 교육에서 맥락의 수용 문제	2011/29호
박보현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이해와 교육적 접근	2012/30호
정원주	동화 제시와 질문 방법을 통한 유아의 언어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2013/32호
김혜정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북한의 광고와 뉴스 담화의 화용적 분석을 토대로	2013/33호
서정미	대학 교양 교육에서의 교양국어 교재 구성 -학습자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2013/33호
전영옥	대학생 대상 말하기 교육의 목표와 방향	2013/33호
이남호	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일 고찰	2014/35호
서종훈	요약문의 속성과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 1, 2 학습자들의 요약문 쓰기 중심적으로-	2015/36호
이규범	"언어의 역사성" 교육 내용 연구 -"-ㄴ/ㄹ 수밖에 없-" 구문을 중심으로-	2015/36호
김미형	조사 "은/는"의 정체성 - 문법서와 교재에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	2015/38호
허재영	사회 방언과 전문 용어 교육의 문제점	2015/38호
김남미	지식구조 발견 절차로서의 국어사 수업 방안	2016/39호
김홍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활용한 문법교수법	2016/39호
신호철	문법 교과서에서 매체의 활용 유형 연구	2016/39호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김용경(경동대)

< 차 례 >

1. 머리말
2. 게재 논문의 통계 분석
3. 분야별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현황
4. 맺음말

1. 머리말

한말연구학회는 본래 국어학 중심의 연구 학회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한국어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말연구학회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들이 많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한말연구학회 창립 30돌을 기념하면서 그동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말연구』 제1호(1995)부터 제39호(2015)까지 게재된 한국어교육 분야 연구 논문 53편에 대한 호별, 연도별, 저자별 현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게재된 논문을 관련 분야별로 하위 구분하여 연구 현황을 제시하고, 분야별 논문 성향과 특징, 문제점 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말연구학회 또는 한국어교육학회가 나아가야 할 연구 과제를 제시하겠다.

2. 게재 논문의 통계 분석

2.1. 게재 총 논문수와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 수

『한말연구』 제1호가 발행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475편의 논문¹⁾이 게재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 수는 53편으로 논문 게재 비율은 10.9%에 해당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이 처음으로 게재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 제7호부터이며, 이 시기 이후만 계산한다면 게재율은 13.0%로 조금 높아진다. 각 호별로 보면 제37호(2015년)가 27.2%로 가장 높은 게재율을 보였고, 19호(2006년), 22호(2008년)가 각각 26.7%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게재율

1) 총 논문 수와 분야별 논문 수는 발표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 2006년이 22.2%로 가장 높았고, 2009년, 2011년이 각각 20.0%의 게재율을 보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어교육 논문 게재율이 발행호에 따라서 매우 불규칙한 반면, 2010년 이후부터는 평균 14% 전후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도별 게재 논문 수 비교

연도	총 논문 수(편)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 수(편)	논문 게재 비율(%)
1995	14	0	0
1996	12	0	0
1997	14	0	0
1998	16	0	0
1999	11	0	0
2000	24	1	4.2
2001	19	0	0
2002	23	2	8.7
2003	20	2	10.0
2004	24	0	0.0
2005	24	4	16.7
2006	27	6	22.2
2007	28	4	14.3
2008	31	4	12.9
2009	25	5	20.0
2010	27	3	11.1
2011	30	6	20.0
2012	27	5	18.5
2013	27	4	14.8
2014	24	3	12.5
2015	28	4	14.3
계	475	53	10.9

2.2. 저자별 게재 논문 수 비교

『한말연구』에 게재된 한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을 저자별로 분류하여 보았다. 한국어교육 분야에 게재된 논문 연구자 수는 모두 45명이다.²⁾

<표 2> 저자별 게재 논문 수 비교

논문 수	4편	3편	2편	1편	계
저자 수	2명	2명	9명	32명	45명

2) 여기에 제시된 연구자 수는 공동 연구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1편의 논문을 게재한 저자 수가 전체 인원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들이 몇몇의 저자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 분야별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현황

여기서는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분야를 크게 교육일반, 언어기능교육론, 문법교육론, 어휘교육론, 문화교육론, 교수법, 교육내용 구성, 교육과정론, 교육방법론, 교육평가론, 교재론, 교사교육론, 오류.대조분석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겠다. 언어기능교육론은 필요에 따라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법교육론은 문법, 발음, 담화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³⁾

위의 분류 방식에 따라 각 논문을 분야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한국어교육 일반(7)	한국어기능교육론(3)	한국어문법교육론(11)
한국어어휘교육론(8)	한국어문화교육론(2)	한국어교수법(3)
한국어교육과정론(1)	한국어교육내용 구성(5)	한국어교육방법론(3)
한국어교육평가론(2)	한국어교재론(5)	한국어교사교육론(1)
한국어오류.대조분석론(2)		

위와 같이 『한말연구』 학술지에 실린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들은 한국어교육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한국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보다 10년 정도 늦은 시기부터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기 시작하였지만, 그동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 논문들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나 문제점 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문법론’ 관련 논문은 모두 11편으로 전체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 중에서 2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논문 수를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어휘교육론’ 분야 논문이 8편(15.1%), ‘한국어교육 일반’ 논문이 7편(13.2%) 순으로 실려 있다.

(2)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일반화 되어 있는 한국어교육 현실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기능교육 관련 논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두 편의 논문이 ‘쓰기, 표현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그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실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지 않거나 교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하겠다.

(3)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에도 관련 논문은 1편밖에 없다. 특히 국가적으로 한국어교육과정과 관련한 표준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등이 거의 없다.

(4) 한국어교육일반과 관련된 논문의 수가 많은 편이나 특정 지역 또는 대학 중심 등 미시적

3) 이 분류 방법은 박영순(2002:6)를 대부분 따르고 있다.

관점에서의 현황 제시가 많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교육문제라든가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책, 남.북한어를 아우르는 교육과정 마련 및 교재 편찬 제안 등 새로운 분야에 접근한 논문도 있어 다양성을 더해주었다.

(5) 문화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많이 제시되었으나 교육과정론이나 교재론에 분산되어 있어서 그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학회에서는 문법과 관련되지 않은 문화교육 주제는 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수는 앞으로 적어질 전망이다.

(6) 교육과정론이나 교사교육론 분야에서는 1편의 논문만이 게재되고 있어서 이 분야의 논문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7) 새로운 이론이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연구 논문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제한된 연구 영역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아서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3.1. 한국어교육 일반(7)

권재일(2002), 「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제11호.

Micael Namkil Kim(2003),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Southern California」, 제12호.

허재영(2007), 「일제강점기 조선어 장려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제20호.

김진호(2008), 「한국어 교육 관련 주체별 현황 및 개선방향-국내 대학 관련 단체 및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제23호.

최혜진(2009),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와 한국어 교육의 과제」, 제25호.

김용경(2011), 「오사카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특성 연구」, 제28호

이상혁(2011), 「해외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교육과 남북 언어 문제-우리말 통합 교육 교재 편찬의 제안을 중심으로-」, 제28호.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은 모두 7편이다. 이 중, 두 편의 논문은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과 남캘리포니아주 한국어교육 전반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은 국내 교육기관, 정책기관, 학술기관 소개 및 이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 오사카 지역의 한국어교육,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도 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일본인에 의해 추진한 조선어 장려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것과 해외동포와 외국인을 위해 남북한 통합 언어 교육 과정 및 교재 편찬 사업을 제안한 것도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현실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남북한 통합 사업 제안 등은 한국어교육 연구사적인 측면과 통일 이후 한국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다른 의의를 가진다. 다만, 보다 다양한 한국어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 논문이 많지 않고, 국내외의 다양한 한국어교육 현황을 포괄적으로 다룬 논문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3.2 한국어기능교육론(3)

김영만(2005), 「블로그를 활용한 한국어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제16호.

조용준(2012),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의 동향」, 제31호.

김은호(2015), 「비선호 응답으로서의 코드스위칭-한국어 수업의 토론 상황을 중심으로-」, 제37호.

기능교육론의 입장에서 게재된 논문은 극히 적다. ‘읽기’와 관련된 논문은 한 편도 없을뿐더러 ‘쓰기’ 두 편을 제외하면 다른 논문은 거의 없다. 한국어학습의 기본이 언어기능에 있다면 이와 관련한 논문도 훨씬 많아야 할 것이다.

3.3. 한국어문법교육론(11)

김정은(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제11호.

박석준(2005), 「초급 한국어 교재의 청자 높임법」, 제17호.

김홍범(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학교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19호.

강현화.황미연(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24호.

이경.박동호(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발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ㄴ’와 ‘ㄷ’를 중심으로-」, 제28호.

양명희(2011), 「한국어교육에서의 화행 교육의 목표와 방향 -칭찬 반응 화행을 중심으로-」, 제29호.

주림결.김영주(2013), 「중국인 KFL 학습자의 학습기간에 따른 파찰음 발음 연구」, 제32호.

김진호(2013), 「한국어 교육의 "이유, 원인" 의미기능어 연구」, 제33호.

양삼기.김영주(2014),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연구-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제35호.

김용경(2015), 「문법 범주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 설정 -부정법, 피동법을 중심으로 -」, 제37호.

김호정(2015), 「한국어교육을 위한 담화 문법 연구의 동향 분석」, 제37호.

문법교육론 분야는 다시 ‘발음교육’, ‘문법교육’, ‘담화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발음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3편인데, 모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음과 자음 발음을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KFL 학습자의 발음을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있으며, 이 논문과 연계하여 중국인 KFL 학습자와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기간의 차이에 따른 발음 특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문법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5편인데, 혼란스러운 문법용어 사용, 표준문법용어 제시, 수준별 문법항목 제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나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문법서의 문제점, 연결어미의 의미적, 문법적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거나, 한국어교육에서 문법항목 설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문법범주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문법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법항목 설정, 교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부족한 편이고, 수준별 문법항목 설정 기준

제시, 개별 문법 항목의 통사적 제약 관계 등과 관련한 논문이 적은 편이다.

‘담화문법’과 관련된 논문은 3편인데, 담화문법 연구의 경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향후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다. 그리고 ‘불평화행’, ‘칭찬화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3.4. 한국어어휘교육론(8)

손세모(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호칭/지칭에 대하여」, 제16호.

심혜령(2006), 「한자어 명사의 공기 관계와 중국어와의 비교 -1등급 기초어휘 중 일부 한자어 명사를 중심으로-」, 제19호.

김주희(2008), 「몽골 전래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지도의 실제와 분석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2호

정성미(2009),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어휘선정에 관하여 -기존 교재의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제24호.

백낙천.김정선.이용훈(2009),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형용사의 연어 관계 연구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1, 2> 교재를 중심으로」, 제25호.

김영만(2010),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고급반 수업 구성 방안」, 제27호.

전영옥(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오류 분석」, 제27호.

박진영.심혜령(2012), 「모바일 기반 의성어,의태어 교육 연구」, 제31호.

어휘교육론 관련 논문은 모두 8편으로 전체 논문 중 1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의 어휘 선정 문제와 어휘 오류를 분석하고 있으나 연구 대상자 집단의 수가 적고, 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여서 한계도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 교육에서의 ‘호칭’ 및 ‘지칭’, 연어 관계 연구, 속담 활용 수업 방안, 전래 동화를 활용한 어휘 교육 등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3.5. 한국어문화교육론(2)

서은아(200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화 교재 항목 구성에 관한 연구」, 제25호.

김진호(2010),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 항목 연구」, 제27호.

문화교육론 관련 연구는 모두 2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론이나 교재론 분야에도 다양한 논문이 실려 있어 이를 포함하면 그 수가 적은 편은 아니다. 현재 학회에서는 문법과 관련된 연구논문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실태와 구체적인 요구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문화 항목 설정에 관한 연구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으나 교재 제작을 위한 구성에 가깝다.

3.6. 한국어교수법(3)

Micael Namkil Kim(2005), 「Teaching Korean for an Era Globalization -A Case of Grammar Instruction and Integrative Skills-」, 제17호.

안주호(2008), 「한국어 교육에서 연결어미의 교수방안에 대한 연구 -{-길래}를 중심으로-」, 제22호.

정대현(2015), 「처리 교수에서 정의적 활동과 참조적 활동의 교수 효과 비교 연구」, 제36호.

교수법과 관련한 논문은 모두 3편인데 정확성과 유창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 교수법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구성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개별 어미의 교수방안, 처리 교수에 있어서의 두 가지 활동이 갖는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방법이나, 교수 전략, 언어기능별 교수법 분야에서 연구할 여지가 많음에도 제한된 논문만이 실려 있어 아쉽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되는 통합교수법 이론 소개와 문어가 아닌 구어 자료로서의 '-길래'에 대한 독립적 위치 제시, 이의 위계화에 이은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 구조화 활동에서 참조적 활동과 정의적 활동의 효과를 처음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은 의의가 있다.

3.7. 한국어교육과정론(1)

김진호(201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가천대학교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제30호.

학문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해 보다 세밀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의를 가지나 특정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편성을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3.8. 한국어교육내용 구성(5)

임소영(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학습목표」, 제13호.

남길임(2007),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용법 사전(가칭)의 편찬」, 제20호.

안주호(2007), 「한국어 교육에서의 표준어와 지역방언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제21호.

오정미(2008),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 선정에 관한 문제」, 제22호.

황성은·심혜령(2014),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구축 방안 연구」, 제35호.

교육내용 구성과 관련한 논문은 모두 5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면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두 편의 논문이 학습자 말뭉치와 관련되어 있어 직접적인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교육내용을 보조할 대상에 대한 연구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교육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 지역방언을 교육내용으로 삼을 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는 연구로 보인다. 문학작품 선정과 관련한 연구는 한말학회의 성격과 거리가 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3.9. 한국어교육방법론(3)

- 김영만(2006), 「다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통합 교육 방안 -고급 수준 학습자를 중심으로-」, 제18호.
박석준(2006), 「한국어교육에서의 인터넷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제19호.
김영만(2007), 「영화 및 관련 웹 사이트를 이용한 한국어 고급반 수업 구성 연구」, 제20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습방안을 연구한 논문이 모두 3편이다. 한 연구자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펴 왔지만, 최근에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인터넷 활용 관련 연구가 최근 더욱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한말학회 최근호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

3.10. 한국어교육평가론(2)

- 조용준, 전선경(2006), 「한국어능력 평가로서의 빈칸 시험의 개발에 대한 기초적 연구」, 제19호.
한슬기(2008),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능력 평가 방법」, 제22호.

다양한 평가 유형에 따라 한국어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지극히 적다. 그리고 평가 관련 범위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중에서 '빈칸 시험'과 관련한 논문은 외국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3.11. 한국어교재론(5)

- 김정은(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초급 교재 분석과 교재 개발」, 제7호.
허재영(2012), 「한국어 교육사의 관점에서 본 『교린수지』와 『스과지남』 비교 연구」, 제31호.
고경민(2013), 「국외 한국어 교재의 변천사 연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제22호.
신호철(2013), 「급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 중심형 한국어 교육 교재 구성 방안 연구」, 제33호.
배현대,신호철,이현희(2014),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 개발 연구」, 제34호.

교재론과 관련한 논문은 모두 5편이다. 이 중 한국어 교육사와 한국어교재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논문은 향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의 교재 편찬을 참고로 하여 목표중심형 교재를 만들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도 보인다.

3.12. 한국어교사교육론(1)

김준희(2006),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와 전망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제18호.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를 국어기본법에 의해 제정·시행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교육기관에 소속된 한국어교사의 재교육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시급한 실정이다.

3.13. 한국어오류·대조분석론(2)

전영옥(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목적격 조사 오류 분석」, 제19호.

정효주·김영주(2012), 「중국인 학습자의 유음화 발음 오류 연구」, 제31호.

오류·대조분석론과 관련된 연구 논문은 모두 2편이다. 그런데 이 두 편 모두 발음 및 문법형태의 오류와 관련된 논문이어서 대조분석과 관련된 논문은 없다. 외국인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도 대조언어학에 입각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3.2. 향후 과제

3.1.에서는 『한말연구』 학술지에 실린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들에서 나타나는 연구 현황, 특성, 문제점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간략히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1) 한국어교육의 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연구사 중심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교육의 역사가 1950년대 이후 새롭게 활로를 찾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어교육의 흐름을 관통하는 줄기를 이어줄 수 있는 연구 성과들이 나왔으면 한다.

(2) 언어기능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문어교육은 물론이고 구어교육에 이르기까지 언어기능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전략이나 학습전략, 교육 내용 구성, 교육방법의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현재까지 게재된 한국어교육 논문 중에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전무하다.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타 언어에 대한 대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특정 언어권(중국어권) 학습자들에서 벗어나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 있는 한국인 학습자의 70%가 중국인 학습자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비슷

한 내용을 반복하여 연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것은 한국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발전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5) 한국어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하거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사전, 말뭉치 자료, 인터넷 활용 자료 등을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준별 어휘 항목의 개발이나 문법 항목을 설정할 때 아주 제한된 문어 자료나 모국어 화자를 중심으로 한 말뭉치 자료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구어 자료를 보다 확대하고 외국인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어휘 항목이나 문법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인터넷 학습 자료들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학회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학문 분야가 대두될 때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어교육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다양한 연구 성과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훌륭한 논문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에 대한 허용 여부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7)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기반을 다질 연구들이 많이 게재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사전, 구어 말뭉치 자료 연구, 말하기 능력시험 평가, 점차 다양해지는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한다.

(8) 교사 재교육 관련 연구 성과나 참신한 교수법 관련 연구 성과들도 한말연구에 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9) 기존의 연구방법만을 답습하는 연구물보다는 새로운 이론이나 미개척 분야의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서 한국어교육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학회지가 되었으면 한다.

4. 맺음말

『한말연구』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지금(1995)까지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이 중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들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관련 논문들이 매년 13%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논문들을 연도별, 저자별, 분야별로 분석하고, 분야별 논문 발표 성향과 특징, 문제점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학회가 지향해야 할 연구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학회 30년 역사를 돌아보면,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취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발표가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란다.

■ 참고문헌

일반언어학적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조용준(건국대)

< 차례 >

1. 서론
2. 현황 분석
3. 앞으로의 과제
4. 결론

1. 서론

“우리말을 연구하는 국어학은 곧 언어학”(허용 1963:3)이라는 의식은 국어학자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환원주의적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국어학의 앞선 연구의 토대 아래 일반 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와 연관된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어학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온 이유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관점에서 비판적인 안목에서 끊임없이 해외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수용해 온 것도 그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젯한말 연구 창간호부터 39호까지에 실린 논문들이 보여주는 일반언어학적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젯한말 연구는 “순수 국어학, 언어학의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응용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학술지를 지향”(학회지 규정 제2조)하고 있어 순수 국어학은 물론 응용국어학, 이론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등 언어학 관련 학술 논문도 자유로이 실을 수 있는 학술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젯한말 연구는 이론 국어학 및 응용 국어학 전문지의 성격이 특별히 강하다. 단적인 예로 젯한말 연구 39호에까지 실린 논문 중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살핀 연구는 정영주(1995, 1996) 두 편이 유일하였다. 이 논문들은 중국 감속성과 청해성에 거주하고 있는 살라 족의 언어인 살라(Salar)어의 격조사에 대한 연구였다. 이외에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 어, 터키어의 단어 형성을 비교·고찰한 김희경(2010),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 변화를 비교한 전정례(1998), 한국어와 영어의 완곡어를 대조·분석한 김미형(2009),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을 비교한 전정예(2013)가 있었다. 또한 한국어, 영어, 프랑스 어, 에스파냐 어, 태국어, 일본어 등의 범언어적 비교를 통해 문법화의 양상을 다룬 이성하(2000), 언어 변화의 요인과 양상을 고찰한 전정

레(2006),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살핀 전정예(2009), 언어유형론 개관과 국어 연구를 다룬 김건희(2014)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어 이외의 타언어 연구나 대조언어학적 논의 등을 포함하는 일반언어학적 연구는 **저한말 연구획** 39호까지 실린 총 481편의 논문 중 10편(0.0002%)에 불과하였다. 이는 **저한말 연구획** 일반언어학 연구에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어학 전문 학술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연구 대상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한말 연구획**에 실린 일반언어학 연구의 동향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저한말 연구획**에 실린 논문들의 일반 언어 이론의 수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살펴본 후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2. 현황 분석

2.1. 해외 이론의 수용 정도

이 절에서는 **저한말 연구획**에 실린 논문들에 나타난 해외 이론의 수용 정도를 계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일반언어학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는 해외 이론에 대한 수용성과 상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국어학자가 자신의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언어학적 논의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자들의 연구 경향이나 성과도 중요하겠으나 아무래도 해외 언어학자의 논의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논문에 실린 참고 문헌을 분석해서 이와 같은 해외 이론의 수용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의 절대적인 평가는 무의미하므로 동일 성격의 국어학 전문 학술지와 비교 작업을 통해서 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 국어학 전문 학술지에 대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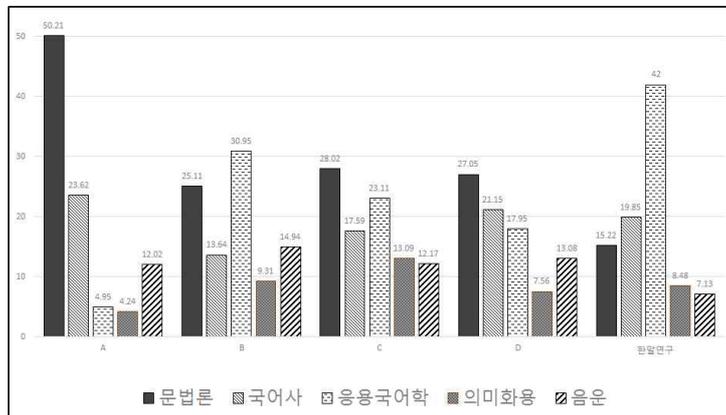
국어학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는 크게 언어학, 국어국문학, 국어학, 한국학(넓게는 동아시아학) 전문 학술지로 나눌 수 있다. **저한말 연구획**은 크게 보아 국어학 관련 전문 학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으로는 **저한말 연구획**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국어학 전문 학술지 5종을 선택하였다.¹⁾ 각 학술지의 기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외에도 국어학 전문 학술지로서 **저한말 연구획**에 실린 사실과 관점획 **저한말 연구획**에 의미학획 **저한말 연구획**을 들 수도 있으나 각각 말뭉치 국어학, 국어의미론, 국어형태론 등 국어학의 하위 분야를 주대상으로 하는 학술지로서 **저한말 연구획**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국어학 전문 학술지의 개관(2016.6.30. 현재, 창립/창간 연도순)²⁾³⁾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창립 연도	창간 연도	최근 발행 권호수	분석대상 (1990~현재)	분석대상 총논문수
한글	한글학회	1908	1932	312호	207-312호(총 105권)	727편
국어학	국어학회	1959	1962	77호	20-70호(총 51권)	685편
우리말 연구	우리말학회	1982	1991	45호	1-45호 (총 45권)	425편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1984	1994	70호	1-70호 (총 70권)	861편
한말 연구	한말연구학회	1986	1995	39호	1-39호 (총 39권)	481편

『한말 연구』가 창간된 것이 1995년이었으므로 이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점을 90년대로 잡아 야 해서 다른 학술지의 경우 1990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출간된 논문 총 3,179편을 비교·분석 의 대상으로 삼았다. 각 학술지에 따른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각 학술지의 분야별 점유율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한말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응용 국어학 분야의 논문 비율(42%) 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문법론(15.22%)과 음성·음운론(7.13%) 분야는 다른 학 술지에 비해 연구 논문의 비율이 높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말 연구』는 A 학술지와 대척점에 있다. A 학술지는 응용 국어학 분야의 비율(4.95%)은 가장 낮은 반면 문법론 연구의 비율 (50.21%)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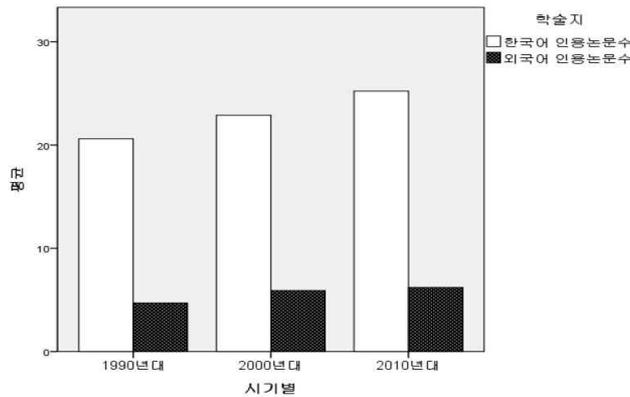
B. 인용 문헌의 언어별 통계와 『한말 연구』

90년대 이후 출간된 논문 총 3,179편을 분석해 본 결과 논문당 평균 29.03편을 인용하였으며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언어학의 관점에서 『한말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각 학술지명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A, B, C, D로 간략히 표기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 통계치를 제시할 때마다 그 명명의 순서를 무작위로 바꾸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통계 치에서 A가 어떤 특정한 학술지를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통계치에서도 A가 반드시 그 학술지를 지칭하 지는 않는다.
- 『우리말 연구』 『한국어학』 『한말 연구』는 각각 1991년, 1994년, 1995년에 창간되어 이들 세 학술지는 각 각 그 창간된 해를 기점으로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중 한국어 문헌은 23.06편을, 외국어 문헌은 5.97편을 평균 인용하여 한국어 인용문헌과 외국어 인용문헌의 비율이 1:0.26으로 한국어 문헌이 외국어 문헌에 비해 3.86배가 더 많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들 논문들이 국어학 연구 논문임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어 문헌 중에서는 영어 문헌이 평균 5.2편, 기타 외국어 문헌이 0.77편이 인용되어 영어 문헌이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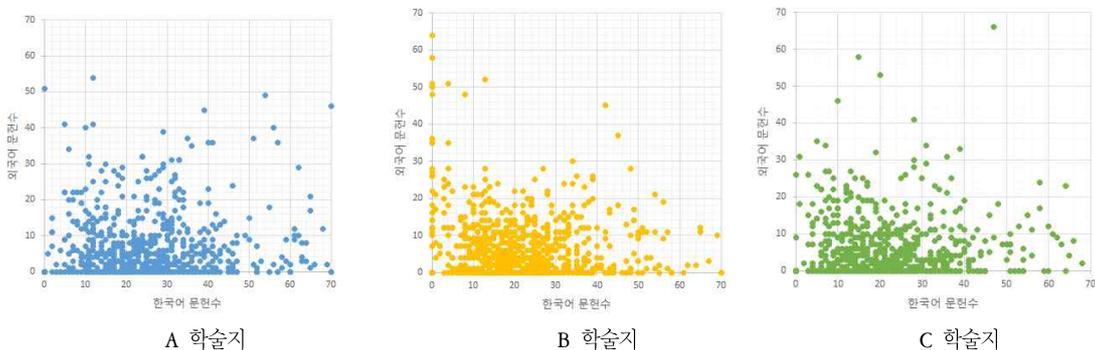
인용문헌의 언어별 통계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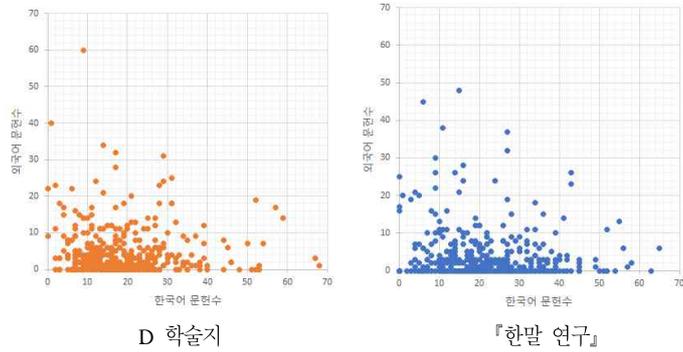


<그림 2> 시기별 인용 문헌의 언어별 통계

인용 문헌 중 한국어 논문의 경우는 1990년대 20.59편, 2000년대 22.89편, 2010년대 25.22편 등 꾸준히 논문당 평균값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도 논문당 평균값이 1990년대 4.71편, 2000년대 5.92편, 2010년대 6.22편 등 미미하나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관련 연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축적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문헌에 대한 접근도가 예전에 비해 용이해짐에 따라 선행 연구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변화로 이해된다.

각 학술지의 인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을 위해 우선 각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한국어 인용 문헌과 외국어 인용 문헌의 분포도를 작성하여 보았다.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술지에 실린 어떤 논문의 참고문헌에 한국어 논문이 27편, 외국어 논문이 8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면 가로축에서 27, 세로축에서 8에 해당하는 곳에 점을 찍도록 하였다. 총 3,179편을 학술지별로 이와 같이 분포도를 작성한 후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어 논문과 외국어 논문의 인용수가 70편을 상회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분포도를 수정하였다. 분포도 작성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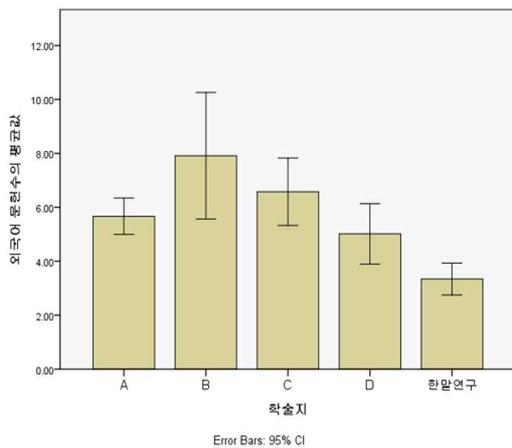
<그림 3> 각 학술지의 한국어 인용문헌과 외국어 인용문헌의 분포도

분포도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점은 논문 한 편을 의미한다. 만약 그 점이 가로축에서 63, 세로축에서 0의 지점에 위치한다면 이 논문은 참고문헌에서 한국어 문헌은 63편을 인용하였으나 외국어 문헌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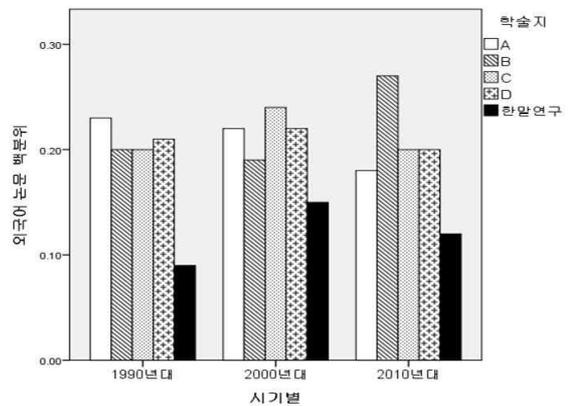
분포도에서 가로축에 점들이 더 많이 몰려 있게 된다면 외국어 문헌에 비해 한국어 문헌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로축에 점들이 더 많이 몰려 있다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앞서 말했듯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어학 논문들은 한국어 인용 문헌이 외국어 인용 문헌에 비해 3.86배가 많으므로 가로축에 점들이 몰려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3>을 통해 실증되는 바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는 학술지 별로 차이가 있다. 학술지 A, B, C는 세로 방향으로의 발산성, 혹은 확장성이 높아 역동적인 느낌을 주지만 학술지 D와 『한말 연구』 경우 상대적으로 가로축에 근접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세 학술지의 경우 외국어 인용 문헌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나타내는 반면 뒤의 두 학술지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나타낸다. 외국 이론, 더 나아가 일반언어학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인용 문헌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학술지 D와 더불어 『한말 연구』는 외국 이론의 수용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학술지별로 각 논문 당 외국어 참고문헌의 평균값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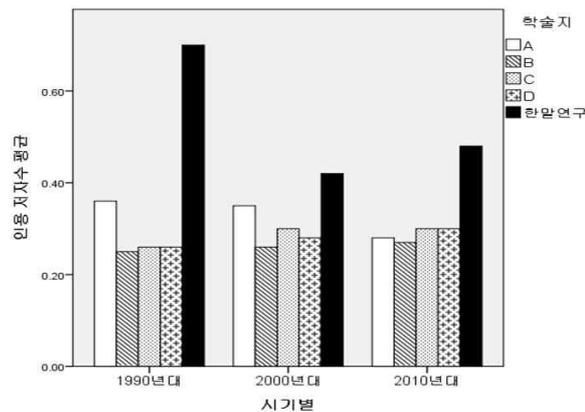


<그림 4> 각 학술지 논문의 외국어 인용문헌의 평균값



<그림 5> 시기별 각 학술지 논문의 외국어 인용문헌 비율

<그림 4>에서 보듯이 학술지 A의 경우 인용 외국어 논문수의 평균이 5.79편, 학술지 B의 경우 7.5편, 학술지 C의 경우 6.55편, 학술지 D의 경우 4.99편이었으나 **젯한말 연구학** 경우는 3.24편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도 시기별로 보아도 **젯한말 연구학**에 실린 논문의 참고문헌 중 외국어 논문의 비율이 다른 학술지에 비해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역으로 보면 **젯한말 연구학**의 경우 외국 문헌을 인용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다른 학술지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에서 외국 문헌을 전혀 인용하지 않은 논문의 시기별 백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시기별 각 학술지 논문에서 한국어 논문만 인용한 백분율

위 표에서 보듯이 **젯한말 연구학**의 경우 한국어 논문만을 참고문헌에 인용한 비율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70%에 육박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주춤하다가(42%) 2010년대 들어 다시 상승세에 있음(48%)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2010년대 들어 **젯한말 연구학**에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 중 절반은 한국어 논문만을 인용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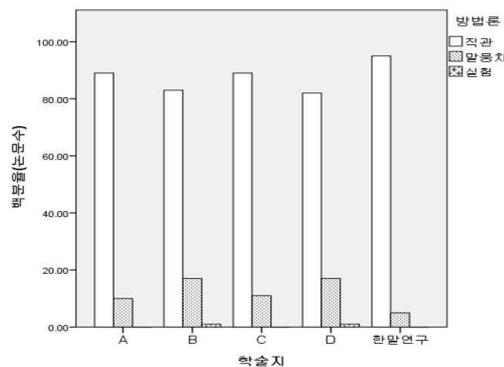
물론 외국어 논문을 참고문헌에 인용한다고 해서 해외 이론, 더 나아가 언어학 일반이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이유도 없고 한국어 논문만을 인용한다고 해서 외국어 이론과 언어학 일반이론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국어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직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형식주의적 관점이나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범어적인 고찰이 요구된다고 볼 때 관련 현상에 대한 해외의 접근과 그 성과를 한국어의 현상과 적극적으로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해외 문헌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참고문헌에 외국어 논문을 제시하는 것이 작은 일일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한국어 현상이 다른 언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한다 해도 이는 국어학 뿐만이 아니라 일반언어학계에도 보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되며 이 또한 그와 같음을 알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되며 이는 일반언어학계의 연구 동향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외국어 논문에 대한 접근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외 이론의 수용, 더 나아가 일반언어학의 수용 양상에 있어서도 **젯한말 연구학**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볼 수 있다.

2.2 일반언어 이론과 연구방법론의 수용

여기에서는 2000년말 연구획1~39호에 실린 논문에 담겨 있는 이론적 관점 및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논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내용이 방대하여 현대 국어를 다룬 문법론 논문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였다. 2000년말 연구획1~39호에 실린 총 481편의 논문 중 75편의 논문이 현대 국어를 다룬 문법론 분야였는데, 이들 76편을 분석해 보면 형태론 연구가 47편, 통사론 연구가 28편이었다. 이들을 또 연구 관점에 따라 분석해 보면 생성문법의 틀에서 고찰한 연구가 5편, 기능문법의 틀에서 쓰인 논문이 5편이고 그 외 나머지는 전통적인 구조주의의 시각에서 쓰여진 논문들이다. 전통적인 구조주의는 관찰되는 현상의 분석(concatenation)과 분류(classification)에 기초하는 경향이 다분한데 2000년말 연구획에 실린 문법론 관련 논문들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연구 관점 혹은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구조주의 색채가 강해 관점의 다양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를 발화의 총체라고 보는 블룸필드식의 언어관에서는 언어 직관은 연구방법론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촘스키 이후 언어 직관은 언어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국어 문법 연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언어 직관은 경험적 증거로서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언어 직관은 그 주관성으로 말미암아 경험적 증거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대안으로 말뭉치와 실험이 제시되었다. 특히 실험은 수용성 판단 과제(acceptability judgment task) 뿐만 아니라 신경심리학적 온라인 실험 과제를 이용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국어학의 경향도 직관 이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위에 제시한 학술지 5종에 실린 문법론 관련 논문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학술지별 문법론 분야의 연구방법론 비율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어 문법론 연구는 언어 직관에 의한 연구(80% 이상)가 다수를 차지하여 여전히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00년말 연구획은 특히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언어 직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95%의 논문(72편)이 언어 직관을 기초로 연구되었으며 단지 5%(4편)만이 말뭉치를 기반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용례를 통한 문법 기술이거나 기술 통계에 기초한 연구에 해당한다. 말뭉치 자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모집단일 수는 없으며 단지 표본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추론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3. 앞으로의 과제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젯한말 연구학**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양성’과 ‘균형성’일 것이다. 권재일(1997:25-26)에서는 국어학 연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연구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어학 연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 (1) 국어학 연구의 목표(권재일, 1997:25-26)
 - a. 국어의 본질 규명.
 - b. 이를 기반으로 한
 - ① 한국 문화 발전에의 기여
 - ② 인간 본성 이해에의 기여
 - ③ 국어와 관련한 응용에의 기여

권재일(1997:26)에서는 이들 4가지 목표가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나 국어학 연구를 보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1-a)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젯한말 연구학**을 살펴봐도 그와 같은 불균형성 및 획일성이 발견된다. 응용국어학으로의 쓸림 현상이 심해 문법론 연구나 음성·음운론 분야의 연구가 타 학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응용국어학이 대세여서 **젯한말 연구학**에도 그 점유율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비슷한 유형의 다른 학술지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균형감 있게 학술지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어를 바라보는 시각의 면에서 볼 때 그 연구 관점이 폭이 넓지 않은 면이 있다. 해외의 언어이론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연구 분야나 이론, 연구방법론이 다양화되고 그 이론의 깊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언어학 이론에 대한 수용성, 좁게 말하면 해외 언어이론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젯한말 연구학**을 분석해보면 다른 학술지에 비해 그 수용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젯한말 연구학**은 다양성과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할뿐더러 전반적으로 보면 연구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이론이나 일반언어학 연구에 귀를 열어야 하며 연구 주제에 관련된 해외 언어학계의 연구 동향과 성과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 개인의 역량과 태도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젊은 연구자의 분발이 요구된다. 여태까지 읽어오지도 않았던 해외 연구물을 갑자기 찾아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의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술대회를 통해 일반언어학 연구자와 소통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학회지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Lingua*와 같은 해외 학술지처럼 정해진 기간마다 주제별 특집호를 내되 객원 편집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필진을 구성하여 학술지를 출판하는 것도

학술지의 성격을 보완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어 현상에 대해 국어학자 뿐만 아니라 언어학자들도 함께 관심을 갖는 구체적인 주제를 찾아내어 **저한말 연구회**가 그 서로 간의 소통의 장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 **저한말 연구회** 1호~39호에 실린 논문의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저한말 연구회**는 일반언어학 연구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한말 연구회**에 실린 논문들의 일반언어학, 특히 해외 이론 수용을 중심으로 그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로 각 논문의 인용 문헌의 언어별 통계를 설정한 후 **저한말 연구회**와 유사한 성격의 학술지 4종, 즉 **저한글획**, **저한어학획**, **저한리말 연구회**, **저한국어학획**에 1990년을 기점으로 2016년 6월 30일까지 출간된 총 3,179편의 논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한말 연구회**는 연구 분야에 있어 응용국어학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42%)을 보여주어 다른 학술지에 비해 문법론 및 음성·음운론의 비중이 낮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해외 이론의 수용 양상을 인용 문헌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다른 학술지에 비해서 수용성이 떨어짐을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저한말 연구회** 앞으로의 과제로 ‘다양성’과 ‘균형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연구자의 자세뿐만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한국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 참고문헌

- 권재일(1997), 21세기 국어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저대국어문론총획** 15, 23-36쪽.
- 김건희(2014), 언어유형론 개관과 국어 연구, **저한말연구회**, 한말연구학회, 4-44쪽.
- 김미형(2009), 한·영 완곡어의 대조 분석, **저한말연구회** 25, 한말연구학회, 62-112쪽.
- 김희경(2010), 단어 형성에 관한 대조 연구, **저한말연구회** 26, 한말연구학회, 87-108쪽.
- 이성하(2000), 의미적 구체성과 문법화: 범언어적 사례 연구, **저한말연구회** 7, 한말연구학회, 224-248쪽.
- 전정례(1998),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변화 비교 연구, **저한말연구회** 4, 한말연구학회, 266-282쪽.
- 전정례(2006), 언어는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 **저한말연구회** 19, 한말연구학회, 301-321쪽.
- 전정예(2009), 언어와 문화, **저한말연구회** 24, 한말연구학회, 195-217쪽.
- 전정예(2013),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비교, **저한말연구회** 32, 한말연구학회, 177-211쪽.
- 정영주(1995), 살라어의 토씨 연구(1), **저한말연구회** 1, 한말연구학회, 162-204쪽.
- 정영주(1996), 살라어의 토씨 연구(2), **저한말연구회** 2, 한말연구학회, 159-230쪽.
- 허웅(1963), **저중세국어 연구회** 정음사.